조선어문

4

195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조선어문

1957. №4 (발행 제 2년)

내 용

연구와 토론

자 료

서적 소개와 비판

АКАДЕМИЯ НАУК КНДР
институт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ЧОСОН ОМУ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1957г. №4 (год издания 2)

СОДЕРЖАНИЕ

МАТЕРИАЛЫ

КРИТИКА И БИБЛИОТЕКА

15 세기 조선어의 주격과 그의 문법적 기능

황 부 영

§1. 주격의 개념

조선어에서도 기타의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격은 우선 문장의 주어 표시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가들은 모두 주격이나 주격 토를 문장의 주어 표시 기능과 련결시켜서 고찰하고 있다.

주 시경 선생은 주격 토를 《아무 다른 뜻이 없이 單純하게 임이되는 職權만 보이는 것, 곧 임기가 아무 關係 없이 임이되는 職權만 있음을 보이는》[주 1] 《임홑만겻》이라고 부르고, 이에는 《가, 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선생은 이 주격 토를 도움 토 《는》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무 關係 없이 임이됨을 홑으로 졌다 함은 假令 〈재는 날더라〉하면 〈재〉가 움직임 〈날〉의 임이로되, 이 말에는 다른 말과 關係함이 있어, 그 關係된 말의 임이의 움직임과 서로 다름이 되는 움직임을 하는 임이가 〈재〉라 함을 〈는〉으로 보인 것이라. 그러하나 〈재가 날더라〉하는 〈가〉는 이러한 關係가 없으므로 이 뜻을 가르랴고 홑을 씀이라》[주 2]

또한 선생은 《여럿이 겹치여 한 덩이 몸으로 임이가 됨을 보이는》[주 3] 《덩이임만겻》으로서 《에서》를 지적하고 있다.

김 두봉 선생은 주격 토를 《임씨를 월의 임자가 되게 하는》[주 4] 《임자겻》이라고 부르고, 이에는 《께서, 가, 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 두봉 선생은 이렇게 주격 토의 하나로서 《높이여 쓰는》 《께서》를 보충하면서도, 《에서》는 주격 토가 아니라고 하였다.

《모듬을 이름하는 임씨에는 〈에서〉란 토가 〈가, 이〉와 같이 쓰이는 일이 있나니, 보기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싸움을 이기였다.〉하는 〈에서〉니라, 그러나 본은 될 수 없나니, 이를터면 〈우리 나라에서 잘 되여 간다〉하면, 이 〈에서〉는 먼저와 같이 임자 토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주 5].

홍 기문 동지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립장에서 《主格이란 한 마디 말에서 主人公되는 事物을 表示하는 것》[주 6]이라고 정의하고, 《主格의 根本 形態》로서는 《가, 이》, 《主格의 尊敬態》로서

[주 1] 주 시경, 조선어 문법 82 페지. 《주 시경선생 유고》 (1939년).
[주 2] 주 시경, 같은 책 83 페지.
[주 3] 주 시경, 같은 책 84 페지.
[주 4] 김 두봉, 《깁더 조선 말본》 100 페지.
[주 5] 김 두봉, 같은 책 102 페지.

《께서》가 있다고 한 후에, 《主格의 特殊 形態》로서 《란(이란), 로서(으로서)》를 들고 있다.

그런데 홍 기문 동지의 견해 가운데서 흥미를 끄는 것은 《本主格》과《副主格》에 대한 문제다.

《主格은 性質上 한 말에 對하여 한 個에 限할 것이나, 두 個 以上이 連겊어 있을 때도 있다. 그 中의 하나만은 勿論 眞正한 主格이요, 그 남어지는 形式만 主格이요, 內容은 主格이 아니다. 眞正한 主格을 本主格, 그 外의 主格을 副主格이라고 하는데 副主格은 아래와 같다.

(ㄱ) 持格 대신으로

내가 精神이 爽快타＝나의 精神이 爽快타

(ㅋ) 對格 대신으로

그가 재조가 많다＝그에게 재조가 많다.

(ㅇ) 役格 대신으로 (《되》라는 動詞 우에서)

눈이 우박이 된다＝눈이 우박으로 된다.

(ㄷ) 數詞

사내가 하나가 간다.

(ㅌ) 數量 聯体

그 놈들이 個個이 惡人이다.

(ㄴ) 否認 副詞 《아니》 우에서

저것이 사슴이 아니다》[주 7]

홍 기문 동지의 이 지적은 조선어 주격의 문장론적 특성을 여러 모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 렬모 동지는 주격을 《일의 주체를 주체로서 나타내는》[주 8] 《임자 빛》으로 설명하고, 주격 토에는 다만 《가, 이》만이 있고, 《에서, 께서》 등은 주격 토가 아니라, 그의 《떠날빛》의 《변태(變態)》 또는 《전용(轉用)》으로 보고 있다.

《조선 어문 연구회》에서 출판한 《조선어 문법》에서는 주격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으나, 주격토로서 《가, 이, 께서》를 지적하고, 그의 특수형으로서 《란(이란), 로서(으로서)》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집합 명사에 가첨되여서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의 《에서》를 주격 토가 아니라, 위격 토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주격의 문장론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ㄱ) 主語로 된다.

ㄴ) 位格 대신으로 轉成의 補語로 된다.

그 놈이 이제야 사람이(사람으로) 되였다.

ㄷ) 否定文에서 《아니다》와 함께 쓰인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주 9].

아. 아. 홀로도비치 교수는 주격 안에 《일반적 주격》(общий 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과 《인칭의 주격》(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 лица)를 구별하고 《일반적 주격》이란 《주어를 미지(未知)

[주 6] 홍 기문, 《조선 문법 연구》 299 폐지. 여기서 《持格 對格, 役格》이라 함은 지금 보통 말하는 속격, 여격, 조격에 각각 해당된다.

[주 7] 홍 기문, 같은 책 302~303 폐지.

[주 8] 정 렬모, 《신편 고등 국어 문법》 132 폐지. 여기서 《떠날빛》이라 함은 대체 위격과 같다.

[주 9] 조선 어문 연구회, 《조선어 문법》 185 폐지. 김 병제 동지나 김 수경 동지의 초급 중학교용 교과서에 있어서도 《조선 어문 연구회》의 《조선어 문법》과 대체로 일치한다.

의 것으로, 사고의 새로운 대상으로 표현하는》[주 10] 수단으로서 이에는 《가, 이》가 있고, 《인칭의 주격》은 《존경을 표시하여야 할 인물의 이름 뒤에만 사용》[주 10]되며 이에는 《께서》가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홀로도비치 교수는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의 《에서》를 주격이 아니라, 《위-여격》(位-與格) 토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거의 모든 조선어 연구가들은 일치하게 주격을 주어 표시의 기능에 복무하는 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격 토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주 11].

조선어에서 주격 형태의 명사는 적어도 현대 조선어에서 인물,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명명의 형태로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선어의 주격이 조선어의 명사의 격 체계 조성의 기초로도 되지 않는다. 이런 기능은 주격이 아니라, 그의 형태가 어간과 일치하는 이른바 절대격이 논다. 바로 이 점이 례를 들어 로씨야어나 몽고어의 주격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주 12].

그러나 조선어에 있어서도 그의 기본적 기능이 문장의 주어 표시에 있는 이 주격은, 그의 일차적 기능이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 표시에 있는 기타의 모든 격과 명확히 구별된다.

현대 조선어에서 주격 토로서는 《가, 이》가 전형적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과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다 같이 《선생님께서》라는 말이 그의 첫머리에 쓰이여 있다. 그러나 그의 기능은 제각기 다른 것으로, 첫째 경우는 주어요, 둘째 경우는 간접 보어다. 이 때 다 같이 인물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결부되여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토 《께서》가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 그것을 위-여격 형태의 특수한 용법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 《께서》의 동음 이의적 분화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 10] 아. 아. 홀로도비치, 《조선어 문법 개요》 57~58 폐지.

[주 11] 게. 람슈테트는 토 《가, 이》를 주격토가 아니라, 특수한 조사(частица)로 보고 있다.

《—и(이)는 자음 뒤에서, —га(가)는 모음 뒤에서, 주어와 술어와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일본어의 га의 기능을 비교하라). 이 형태를 모든 문법서에서 주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и(이)는 영어의 the, a와 같은 한정적 조사(限定的 助詞), 로씨야어의 《И》의 의미를 가지는 련결적 조사다》(게. 람슈테트, 《조선어 문법》 로문판, 58폐지).

게. 람슈테트는 주격으로서는 이른바 절대격(사람, 아해, 집, 나무 등)을 말하고 있다(같은 책 58 폐지 참조).

[주 12] 로씨야어 주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조하라

《주격이란 인물, 대상, 혹은 현상의 명명으로 사용되며, 주어로서 혹은 술어의 구성 가운데서 그의 명사 부분으로 사용되는 출발적인 격 형태다. 주격은 기본적으로 주체 표시를 위하여 복무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러저러한 객체적 의미, 또한 상황어적 또는 규정어적 의미를 나타내는 기타의 모든 격과 대립된다》(쏘련 과학원, 《로씨야어 문법》 제 I권 120 폐지, 어음론과 형태론).

조선어에서는 어간이 절대격 형태와 일치하나, 몽고어에서는 어간이 주격과 일치하기도 한다. 게. 데. 싼쥐브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참조하라.

《언어학적 문헌에서 몽고어의 어간과 주격이 일치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 대다수 경우 어간과 주격이 동음 이의어를 형성하면서, 외부적으로 실지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각이한 범주다》(게. 데. 싼쥐브, 《몽고어의 비교 문법》 1권 140 폐지).

많은 조선어 연구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때에는 위-여격 토하고는 구별이 되는 주격 토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어에서 명사의 문법적 형태를 통하여 주체를 존경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토 《께서》를 쓰지 않고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어에서는 주격 토나 호격 토의 존경의 의미 뉴안쓰에 의한 형태적 분화는 문장론적 의의도 가진다. 토 《께서》를 동반한 명사가 주어로 될 적에는, 바로 그것에 대응하여 그와 관련을 맺는 술어도 바로 주체를 존경하는 형태 조성적 접미사 《시》를 가첨하여야 한다. 이 때 주어와 술어와의 사이에는 문법적 조응 관계(照應 關係)가 성립한다.

이렇게 토 《께서》의 사용에는 주어 표시와 간접 보어 표시라는 의미-기능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문장-구조적 차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의 주격 토로서의 《께서》를 시인하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다.

《학교에서 이겼다》라는 문장과 《학교에서 만났다》라는 문장에 있는 토 《에서》를 가첨한 《학교에서》는 그의 문장론적 기능이 제 각기 다르다. 첫째 경우는 주어고, 둘째 경우는 상황어다.

《학교에서 샀다》라는 문장 그것만으로는 《학교에서》가 주언지 상황언지 분간할 수 없다. 이 때 문맥 또는 장면을 통해서 딴 주어를 보충할 수 있다면 상황어지만 (례, 내가 학교에서 샀다), 딴 주어를 보충할 수 없을 때라야만 주어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술어 안에 포함되여 있는 형태 조성적 접미사 《시》를 통하여 곧 술어임을 알 수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집합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라 할지라도 토 《에서》를 가첨하여 주어로 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며, 《가》, 《이》를 붙이는 것이 보다 보통이라는 것과, 또 토 《에서》의 기능적 분화가 어떤 문장 구조상 특성을 가져 오지 않는 것을 고려할 적에 완전한 주격 토라고는 보기 곤난하다[주 13].

토 《으로서(로서)》의 주격 토로서의 자격은 더욱 희박하다. 《학생으로서 그런 일을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토 《으로서》가 가첨된 《학생으로서》가 주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문장에서는 문법적 기능상 《학생으로서》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옴이 없이 주어를 보충할 수 있다. 《나는 학생으로서 그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고 본즉, 토 《으로서》가 반드시도 주어 표시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 때 주어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단일 성분문(Одно-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은 조격 토의 특수한 용법의 하나로 볼 것이다.

토 《란(이란)》은 주격 토라기 보다는 문장에 일정한 의미 뉴안쓰를 부여하는 도움 토다. 그것은 토 《란(이란)》을 가첨한 명사가 비단 주어만이 아니라, 각종의 문장 성분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례, 아편이란 좋지 못하다, 아편이란 먹지 않는다, 아편이란 건 나쁘다)[주 14].

[주 13] 15 세기 조선어에 있어서도 이 《에서》에 대응하는 《에 이셔, 에셔》가 집합 명사의 주어로 사용된 듯한 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용법이 오랜 것을 알 수 있다.

이릆 나래 나라해 이셔 도ᄌᆞ기 자최 바다가아 (월인 석보 1권 6).

[주 14] 15 세기 조선어에도 《란(으란)》이 사용되고 있다.

詳은 ᄌᆞᄉᆞ로ᄫᆡᆯ 말란 子細히 다 쓸ᄊᆡ라 (석보 상절 서 4)

오ᄂᆞᆯ란 ᄇᆞ리고 가릴ᄊᆡ ᄆᆞᅀᆞᆷ 슬허 우노이다 (월인 석보 8권 93)

臣下란 忠貞ᄋᆞᆯ 勸ᄒᆞ시고, 子息으란 孝道를 勸ᄒᆞ시고 (월인 석보 8권 29)

15 세기 조선어에서는 《이란》이 아니라 《으란》이였다. 이것은 명사의 경우. 결합 모음 《이》보다 《으》를더 오래 전부터 쓴 흔적을 말할는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현대 조선어의 주격 토로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이), 께서》만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격토도 력사적인 소산물이며, 이것을 그냥 15 세기 조선어에 해당시킬 수는 물론 없다.

§2. 15 세기 조선어의 주격 토

15 세기 조선어의 주격 토로서는 명사의 어간의 받침의 유무를 물론하고 다 같이 《이》만이 쓰이였다 함은 조선어의 력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하여 일찍부터 지적되였다.

그런데 이 주격 토 《이》의 표기법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받침으로 끝난 명사에 가첨되여서 그 받침과 같은 음절을 이루도록 표기한 경우다.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룡비 어천가 2장)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훈민 정음 언해)

다른 하나는 받침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한'자로서 표기된 명사에 가첨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그 받침과 같은 음절을 이루도록 발음은 했으나, 표기는 따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에는 철자상 주격 토 《이》가 명확히 구별되여 표기된 셈이다.

漆沮 ᄀᆞᅀᅢᆼ 움흘 後聖이 니ᄅᆞ시니 (룡비 어천가 5장)

믈 우흿 龍이 江亭ᄋᆞᆯ 向ᄒᆞᅀᆞᄫᆞ니 (룡비 어천가 100장)

세째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등과 같이 당시의 발음 특성상 《ㅣ》 음이 뒤에 나오지 않는 모음들로 끝난 명사 어간에 가첨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그 명사 어간의 모음과 합쳐서 한 자모가 되도록 표기하였다.

만히 머그닌 양ᄌᆡ 셩가ᄉᆡ더니 (월인 석보 1권 42)

일후미 地藏이러시니, 지ᄌᆡ 노ᄑᆞ시며 (월인 석보 8권 59)

네째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등의 모음으로 끝났으나, 한'자로서 표기된 명사에 가첨되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부득이 주격 토 《이》를 따로 적되, 이른바 《딴이》 곧 《ㅣ》로 표기하였다.

우리 始祖ㅣ 慶興에 사ᄅᆞ샤 (룡비 어천가 2장)

天下ㅣ 定ᄒᆞᇙ 느지르샷다 (룡비 어천가 100장)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ㅐ, ㅔ, ㅚ, ㅟ, ㅢ, ㆎ, ㅣ …》 등과 같이 당시의 발음 특성상 《이》 음이 뒤에 나오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 어간으로서, 격토 가첨시에 이른바 결합 자음 《ㅎ》가 덧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격토가 가첨되지 않았다.

블근 새 그를 므러 (룡비 어천가 7장)

ᄒᆡ 처ᅀᅥᆷ 나ᄂᆞᆫ ᄡᅵ히라 (월인 석보 1권 24)

가마괴 우르미 다 法言三昧시니 (법화경 언해 6권 149)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주격 토가 가첨된 례가 부분적이나마 존재한다.

如來(ᅀᅧᆼ)ㅣ 分別 내디 아니ᄒᆞ샤ᄆᆞᆯ 기ᄃᆡ 기리시니라 (금강경 언해 28)

이 이젯 辰時니 齋時(ᄊᆞᆼ)ㅣ ᄒᆞ마 니를 ᄯᅥ기라 (금강경 언해 4)

須菩提(뗑)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금강경 언해 32)

당시 명사 어간에 각종의 토를 가첨할 적에 이른바 《ㅎ》 결합 자음이 나타나는 명사들, 례를 들어 《ᄒᆞ나(一), 둘(二), 세(三), 네(四), 돌(等), 자(尺), ᄯᅡ(地), 나라(國), 바다(海), ᄉᆞᆯ(膚), 우(上), 그르(栟), ᄆᆞᅀᆞᆯ(村), 나(齡), 님자(主), 뫼(山), 붑(鼓), 뒤(後), 닙(葉), 길(路), 대수(竹藪), ᄂᆞᆯ(刄)…》 등에 대해서는 받침의 유무를 물론하고 《히》를 가첨하였다.

여섯 자히 步ㅣ오 (월인 석보 1권 15)

하ᄂᆞᆯ히 현마 즐겁고도 (월인 석보 1권 21)

ᄉᆞᆯ히 지도 여외도 아니ᄒᆞ니라 (월인 석보 1권 26)

어듸… 앏뒤히 이시리오 (월인 석보 8권 32)

아ᄃᆞᆯ님이 나샤 나히 닐구비어늘 (월인 석보 8권 84)

林淨寺로 가는 ᄆᆞᄃᆡ에 대수히 이쇼ᄃᆡ (월인 석보 8권 99)

ᄂᆞᆯ카ᄫᆞᆫ ᄂᆞᆯ히 갈 ᄀᆞᄐᆞᆫ 것돌히 罪人 ᄃᆞᆯᄒᆞᆯ 모라 (월인 석보 21권 23)

이 때 일부 명사들에서는 《기》가 가첨될 수도 있었다.

이 셤 우희 이 남기 잇고 (월인 석보 1권 24)

비교: 閻浮提는 나못 일후미라 (월인 석보 1권 24)

瑠璃 ᄀᆞᄐᆞ야 안팟기 비취니 (월인 석보 7권 20)

밧기 거츠디 아니ᄒᆞᆯᄃᆞᆯ 닐오ᄃᆡ 眞이오 (금강경 언해 15)

비교: 밧 六塵과 안 六根과 가온ᄃᆡᆺ 六識을 노하 ᄇᆞ리라 (월인 석보 7권 54)

〔비고〕: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현대 조선어에서와 같이 인명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각종의 격토를 첨가할 적에 《이》 음이 덧날 수 있다.

阿難律이ᄃᆞ려 닐오ᄃᆡ (월인 석보 7권 1)

阿難이를 주어늘 (월인 석보 7권 8)

부텨 阿難이와 韋提希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월인 석보 8권 9)

安樂國이는 아비를 보라 가니 (월인 석보 8권 87)

光目일 福度ᄒᆞ더닌 無盡意 菩薩이 긔오 (월인 석보 21권 59)

이 때 《이》 음이 안 날 수도 있다.

安樂國은 大勢至시니 (월인 석보 8권 89)

이 때 이 《이》 음을 주격 토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 하면 조선어에서 몇 개의 격토를 덧붙일 적에 매개 격토는 자기의 기능을 그냥 보유하는 것이며, 주격 토 뒤에는 딴 격토, 지어는 속격 토조차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5 세기 조선어에서와 같이 주격 토로서는 《이》만이 있었던 조건 아래서, 이와 같은 《이》 음과 주격 토 《이》와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저긔 安樂國이 어마님ᄭᅴ ᄉᆞᆲ보ᄃᆡ (월인 석보 8권 98)

부텨…目蓮이 시기샤 警戒ᄒᆞ라 ᄒᆞ야시ᄂᆞᆯ (월인 석보 7권 47)

비교: 부텨 和尙을 시기샤 우리ᄅᆞᆯ 警戒ᄒᆞ라 ᄒᆞ야시ᄂᆞᆯ (월인 석보 7권 47)

그 저긔 世尊이… 羅殺女와 龍王과 四大弟子와 阿難이 爲ᄒᆞ야 ᄯᅩ 다ᄉᆞᆺ 石堀을 ᄆᆡᇰᄀᆞ니라 (월인 석보 7권 51)

이런 례를 통해서 볼 적에, 인명의 명사 뒤에 토 가첨시에 덧나는 《이》 음도 혹은 주격 토 《이》가 어원 망각된 것일는지 모른다(이 때 각이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6을 참조 하라).

§3. 15 세기 조선어에서의 명사 주격의 문법적 기능 [주 15]

1. 주어로서의 주격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현대 조선어에서와 같이 명사의 주격은 무엇보다도 완결된 문장의 주어로서의 기능을 놀았다. 이 때 주격의 명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 등 각종의 품사로 된 술어와 관련을 맺는다.

이 智慧 업슨 比丘ㅣ 어드러셔 오뇨(법화경 언해 6권 80)

神力이 至極 크시다 (법화경 언해 6권 107)

神奇ᄒᆞᆫ 變化ㅣ 몯내 ᄉᆞᆲ거시라(월인 석보 1권 14)

世人은 生滅의 ᄀᆞ초ᄆᆞᆯ 몰라 生滅로 煩惱 큰 病 삼ᄂᆞ니 제아디 몯ᄒᆞ도라(금강경 후서 11)

無憂樹는 나못 일후미니 시름 업다 ᄒᆞᄂᆞᆫ ᄠᅳ디니, 긔 菩薩 나싫제 夫人 자바 겨시던 남기라(월인 석보 2권 29)

주격 형태를 갖춘 명사가 주어로 되면서, 종결 술어가 아니라, 접속 술어와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神靈이 便安ᄒᆞ시고, 百姓이 즐기며, 나랏 ᄀᆞᅀᆡ 괴외ᄒᆞ고, 福이 구드며, 時節이 便安ᄒᆞ고, 녀르미 ᄃᆞ외며, 福이 오고, 厄이 스러디과뎌 ᄒᆞ노니 (월인 석보 서 25)

열헤 ᄒᆞᆫ둘히 ᄉᆞᆫ자 모딘 빅ᄒᆞ시 이실ᄊᆡ(월인 석보 21권 32)

큰 蓮花 ᄒᆞ나히 부텻 원 겨틔 이셔(월인 석보 8권 23)

뎨 歡心을 發ᄒᆞ고(금강경 언해 후서 3)

네내 利益을 앗ᄂᆞ니, 내 네 나라ᄒᆞᆯ 배요리라(월인 석보 7권 46)

두 개 이상의 명사가 병렬적으로 결합된 것이 주격 토를 가첨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접속사적 역할을 노는 《과(와), 며(이며) …》 등이 오든가, 또는 절대격의 명사가 그냥 병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어를 김 두봉 선생은 《뭇임자》라고 불렀다[주 16].

이 하ᄂᆞᆯ은 色과 空과 識괘 다 업고(월인 석보 1권 36)

鸞鳳이며 種種 새돌히 모다 넙놀며(월인 석보 2권 27)

婬欲은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잘씨오(월인 석보 1권 25)

이 때 이런 주어 뒤에 《다, 모다, ᄒᆞᆫᄃᆡ…》와 같은 부사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주 15] 일반적으로 격토는 명사, 수사, 대명사 또는 각종 품사의 미정어형, (15 세기 조선어에서는 각종 품사의 규정어형에 이르기까지)에 첨가된다고 말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의 여러 각 단어나 형태에 격토를 가첨하는 경우, 그의 특성이 제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명사, 수사, 대명사에 가첨되는 격의 특성이 그 품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론문에서는 수사, 대명사에 가첨되는 주격 토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명사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몰아서 취급하기로 한다.

[주 16] 다음의 것을 참조하라

《〈벌과 나비가〉 날아 온다. 이 말에 〈벌과 나비가〉가 임자감이니, 곧 〈날아 오〉의 임자되는 조각이니라, 그런데 〈벌과 나비가〉와 같이 여럿으로 된 임자를 〈뭇임자〉라 하나니라》(김 두봉 《깁더 조선 말본》 137~138 페지).

2. 각종의 보어로서의 주격

현대 조선어에서와 같이 주격의 명사가 동사 《ᄃᆞ외다》와 함께 사용되여, 이른바 전성의 보어와 같은 기능을 놀 수 있다.

黃金이 ᄯᅡ히 ᄃᆞ외오(아미타경 언해 9)

열ᄃᆞᆯ 마내 ᄌᆞᆷ넉 ᄂᆞᆫ 男子ㅣ ᄃᆞ외오, 올ᄒᆞᆫ 녁 ᄂᆞᆫ 女子ㅣ ᄃᆞ외어늘(월인 석보 1권 8)

이 ᄂᆡ 菩薩이 衆中에 ᄆᆞᆺ 웃머리 唱導ᄒᆞ시논 스스이 ᄃᆞ외얫더시니(법화경 언해 5권 91)

ᄆᆞᅀᆞ미 本來 一眞커늘 罔ᄒᆞ야 둘히 ᄃᆞ욀ᄊᆡ(월인 석보 21권 105)

주격의 명사가 명사 술어를 부정하는 《아니다》와 함께 사용되였음은 오늘과 같다.

글워리 經이 아니며, 經이 부텨 아니라, 道理 닐온 거시 이 經이오 道理로 몸 사ᄆᆞ시니 이 부톄시니(월인 석보 서 22)

오직 ᄂᆡ ᄒᆞ오ᅀᅡ 이 사ᄅᆞᄆᆞᆯ 擁護ᄒᆞᆯ ᄯᆞᄅᆞ미 아니라(월인 석보 21권 153)

당시에 있어서는 형용사 《ᄀᆞᆮᄒᆞ다, ᄀᆞᆮ다》와 함께 사용되여, 비교의 대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은 현대 조선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비치 희오 블구미 螺頭ㅣ ᄀᆞᄐᆞ니라(월인 석보 1권 23)

金像이 象 우희 오ᄅᆞ락 나리락 ᄒᆞ샤, 生佛이 ᄀᆞᆮᄒᆞ시며(월인 석보 21권 203)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이 때 주격이 아니라 구격이 사용된 례도 있다.

이 菩薩ㅅ 모ᄆᆡ 大小ㅣ 觀世音과 ᄀᆞᆮ고(월인 석보 8권 38)

法身은 量이 虛空과 ᄀᆞᆮᄒᆞ실ᄊᆡ(금강경 언해 30)

3. 각종 구의 주어로서의 주격

현대 조선어에서와 같이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주격 명사가 각종 품사의 규정어형이 형성하는 구의 주어가 될 수 있다.

두 律師ㅣ 各各 譜 ᄆᆡᇰᄀᆞᄅᆞ니 잇거늘(월인 석보 서 12)

이 부텨 나싫 저긔 몺 ᄀᆞᅀᅢ 光이 燈이 ᄀᆞᄐᆞ실ᄊᆡ(월인 석보 1권 8)

名賢劫이 엻 제 後ㅅ 일을 뵈요리라(월인 석보 1권 21)

一千世尊이 나싫 돌 아니(월인 석보 1권 21)

大熱惱ᄂᆞᆫ 熱惱ㅣ 더을 씨라(월인 석보 1권 29)

淨居ᄂᆞᆫ 조ᄒᆞᆫ 모ᄆᆡ 사ᄂᆞᆫ ᄃᆡ라(월인 석보 1권 34)

天子돌히…이 이리 겨신 동몰라 ᄒᆞ더니(월인 석보 21권 5)

기리 業障이 能히 ᄀᆞ리리 업스리라(월인 석보 21권 174)

이 때 규정어형이 《이, 적, 제, 돌, 씨, ᄃᆡ, 동, 다…》와 같은 불완전 명사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명사를 규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婆羅門은… 힘더기 조ᄒᆞᆫ 사ᄅᆞ미라(월인 석보 1권 5)

眞實로 내 나혼 悉達多ㅣ면 이제지 그 이베 가리라(월인 석보 21권 6)

15 세기 조선어에서 이와 같은 구의 주어가 주격이 아니라, 절대격 형태도 쓰이였음은 물론, 속격 형태 도 쓰이였다.

내 이제 ᄂᆡ 어믜 간 ᄯᅡᄒᆞᆯ 뵈요리라(월인 석보 21권 21)

八婇女의 기론 찻므리 모ᄌᆞ랄ᄊᆡ(월인 석보 8권 92)

내 너 爲ᄒᆞ야 地藏 菩薩의 人天 利益ᄒᆞᆫ 福德이를 어둘 닐오리라(월인 석보 21권 84)

또한 주격의 명사가 각종 품사의 미정형이 이루는 구의 주어로 될 수 있다.

四念處는 ᄂᆡ 가짓 念ᄒᆞᄂᆞᆫ 고디니 모믜 조티몯호ᄆᆞᆯ 보며, 受ᄒᆞᄂᆞᆫ 이리 다 受苦ᄅᆞ制요ᄆᆞᆯ 보며, ᄆᆞᅀᆞ미 無常호ᄆᆞᆯ 보며, 法에 다 업수믈 볼씨라 (월인 석보 7권 43)

열ᄒᆞ나ᄒᆞᆫ 겨지비 남지ᄂᆡ 몸 ᄃᆞ외요미오 (월인 석보 21권 185)

이 때에도 주격의 명사가 아니라, 속격의 명사가 사용될 수 있다.

부톄 니ᄅᆞ샤ᄃᆡ ᄂᆡ 겨지븨 고ᄫᆞ미 天女와 엇더ᄒᆞ더뇨 (월인 석보 7권 12)

그 ᄢᅴ 世自在王佛이 二百一十億 諸佛 나라햇 天人의 어딜며 사오나ᄫᆞᆷ과 ᄯᅡ희 곧 업스며 됴호ᄆᆞᆯ 닐어시늘 (월인 석보 8권 59)

能은 내 [주 17] 호미오 (월인 석보 서 2)

4. 사역문에서 사용되는 주격

《-긔(게)ᄒᆞ다》와 같이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주격의 명사가 어떤 행동을 집행하는 인물 자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조선어와는 약간 다른 점이다. 현대 조선어에서는 이 때 행동을 시키는 인물이 주격 명사로 되며, 행동 자체의 집행자는 대격이나 조격(보통 《하여금》과 함께) 형태가 되는 것이 례사롭다.

그 제 六十六億 諸天이 모다 議論호ᄃᆡ, 菩薩이 어느 나라해 ᄂᆞ리시게 ᄒᆞ려뇨 (월인 석보 2권 10)

시혹 地獄이 이쇼ᄃᆡ 구리기들 븕게 달와, 罪人이 안게 ᄒᆞ며 (월인 석보 21권 80)

여러 가짓 善을 너비 지ᅀᅳ면…現在 眷屬이 그지업시 利益게 ᄒᆞ리니 (월인 석보 21권 104)

이 사ᄅᆞ미 ᄆᆞᄎᆞ매 머즌 이리 門에 드디 아니케 ᄒᆞ리니 (월인 석보 21권 164)

우에 든 례에서와 같이 자동사를 사역 동사로 하였을 적에는, 현대 조선어에서는 행동의 집행자가 주격 형태를 전적으로 갖출 수 없다. 그러나 15 세기 조선어에서는 이와 같은 용법이 가능하였다. 이 때 형용사를 분석적 방법으로 타동사적 기능을 놀게 하였을 적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産母를 이바ᄃᆞ며,…술고기 머그며 풍류ᄒᆞᆯ씨, 子母ㅣ 安樂디 몯ᄒᆞ게 ᄒᆞᄂᆞ니 (월인 석보 21권 124)

그런데 주격 토의 이와 같은 사용을 그저 단순하게 그의 대격의 대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때의 주격 명사의 사용 문제는, 15 세기 조선어의 문장론적 구조, 특히 토 《긔(게)》의 접속 술어의 토로서의 성격이 매우 뚜렷하였다는 사실과 결부되여 있다.

현대 조선어에서 《그 사람이 앉게 하라》는 잘 안쓰고 《그 사람을 앉게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앉도록 하시오》는 잘 쓴다. 이 때 《앉게 하라》는 그의 단일화가 강하여서 그것이 하나의 타동사처럼, 앞의 명사 《그 사람》이 대격 《그 사람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도록 한다》에서는 단일화가 안되여 《하다》라는 동사는 《그 사람이 앉도록》 전체와 관련을 맺는다.

15 세기 조선어에서는 《게》가 오늘의 《도록》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다음의 례문에 있는 《게(에)》의 용법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 ᄯᆞ리 듣고 ᄯᅢ해 모미 다헐에 디여 (월인 석보 21권 22)

淨水 ᄒᆞᆫ 盞ᄋᆞ로 一日 一夜를 디나게 菩薩ㅅ 알ᅌᅴ 노ᄒᆞᆫ 後에 (월인 석보 21권 168)

[주 17] 각종 구의 주어로 된 대명사의 주격은 속격과 구별이 안된다. 15 세기 조선어에서 대명사 《나, 너, 뎌, 저…》 등의 주격과 속격은 형태상 일치한다.

大臣이 모디라 德을 제오ᅀᆞ바 업스시긔 ᄒᆞ더니 (월인 석보 21권 211)

타동사를 사역 동사로 했을 적에도 주격의 명사가 행동 자체의 집행자를 나타낸다. 현대 조선어에서도 이 때에는 주격의 명사를 무리해서 쓸 수 있다.

世尊하 날 救ᄒᆞ야 力士ㅣ 내 몸 ᄒᆞ야 ᄇᆞ리디 아니케 ᄒᆞ쇼셔 (월인 석보 7권 37)

내 前生애 여러 가짓 罪 이실씨 아ᄃᆞ리 이런 受苦를 ᄒᆞ게ᄒᆞ라, 내 모몰 엇뎨 드를 ᄆᆞ티 ᄇᆞᅀᆞ디 몯관ᄃᆡ, 내 아ᄃᆞ리 목수믈 일케 ᄒᆞ야뇨 (월인 석보 21권 219)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이 때 주격의 명사가 아니라, 대격의 명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金翅 ᄃᆞ외야 龍ᄋᆞᆯ 저킈 ᄒᆞ니(월인 석보 7권 24)

聖女ㅣ… 제 어미를 勸ᄒᆞ야 正見을 내에 ᄒᆞ야도 (월인 석보 21권 20)

土地 鬼神ᄋᆞᆯ ᄒᆞ야 죽ᄃᆞ록 衛護케 ᄒᆞ며 (월인 석보 21권 164)

이 때 《ᄒᆞ야, 勸ᄒᆞ야》 등의 말이 동반되는 일이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조격의 명사도 올 수 있다.

如來ㅣ… 一切 衆生ᄋᆞ로 眞有眞無와 眞色眞空이… 오직 제 性 中에 잇논 ᄃᆞᆯ 알에 ᄒᆞ시니 (금강경 언해 후서 13)

5. 제시의 주어

주격의 명사가 제시의 주어도 나타낼 수 있었다. 《제시의 주어란 주어의 앞에 주어 그 자체를, 또는 주어에 대등한 어(語)를 제시하여 주어를 강조하는 어를 말한다》[주 18]

阿那律 말이, 긔 아니 올ᄒᆞ니 (월인 석보 7권 1)

이 ᄆᆞᅀᆞ미 부톄 ᄃᆞ외며, 이 ᄆᆞᅀᆞ미 긔 부톄라 (월인 석보 8권 21).

地獄 罪報ㅣ 그 이러 엇더ᄒᆞ뇨 (월인 석보 21권 56)

一切 衆生ᄋᆞᆯ 救度코져 홇 사ᄅᆞᆷ과 無上菩提 닷고져 홇 사ᄅᆞᆷ과 三界에 여희여 나고져 홇 사ᄅᆞ미, 이 사ᄅᆞᆷ ᄃᆞᆯ히 地藏像ᄋᆞᆯ 보며 (월인 석보 21권 165)

§4. 15 세기 조선어에서 주격토를 갖춘 각종 품사의 미정형의 기능

형용사, 동사의 미정형도 주격 토를 가첨할 수 있었음은 현대 조선어와 같다. 그러나 그의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뵈여 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 품사의 미정형의 주격의 문법적 특성은 명사의 주격과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현대 조선어에서는 미정형의 토로서 《ㅁ, 기, 치》의 셋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때 《지》는 전형적인 미정형이 아니다. 왜냐 하면 미정형은 문장 가운데서 명사적 기능을 놀면서, 각종의 격토를 첨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 《지》 뒤에는 이런 격토가 일반적으로 오지 않는다. 례를 들어 《가질 말라, 가질 않는다, 가질 못하다, 가질 아니하다, 높지가 않다…》와 같이 례외적으로 주로 대격 토(부분적으로 주격 토)가 가첨되는 것은, 토 《지》의 특성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담은, 이 때의 단어 결합의 특성, 특히 타동사적 성격을 띤 뒤의 동사, 형용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높지가 않다》의 경우는 형용사적 성격이 있다).

[주 18] 조선 어문 연구회 《조선어 문법》 321 페지. 여기서 어(語)란 단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현대 조선어에서 미정형의 토로서는 《ㅁ》과 《기》만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15 세기 조선어에 있어서는 현대 조선어와는 달리 《ㅁ》만이 미정형의 토로서 사용되였다. 현대 조선어의 《기》는 발전되지 않았다[주 19].

그리고 현대 조선어에서 《지》로 되여 있는 것은 당시는 아직 《디》로 표기되여 있었다.

주로 《ㅁ》이 가첨된 미정형의 주격의 문법적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주어로 기능하는 미정형의 주격

주어로 사용되는 주격의 미정형은 주격 명사가 주어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화된 행동이나 상태가 사고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거나, 대상화된 행동이나 상태의 표식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 때 각종 품사의 미정형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문장의 문법적 특성, 특히 문장론적 특성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정형의 주어에 대응하는 술어로 될 수 있는 단어들의 제한성에서 엿볼 수 있다. 명사로 된 주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대응할 수 있으나, 미정형의 주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으며, 또 술어로 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도 력사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의 미정형이 주어로 될 적에, 명사 술어가 이에 따를 수 있다.

本來 ᄆᆞᆯᄀᆞᆫ 性에 흐린 ᄆᆞᅀᆞᆷ 니러나미 濁이라 (월인 석보 1권 16)

動ᄋᆞᆯ 세 가지로 닐올딘댄 뮈다 호미 ᄒᆞᆫ 가지오, 다 뮈다 호미 두 가지오, ᄒᆞᆫ 가지로 뮈다 호미 세 가지니 (월인 석보 2권 14)

一切 衆生ᄋᆞᆯ 恭敬호미 곧 이 제 ᄆᆞᅀᆞᆷ 降伏히논 고디라 (금강경 언해 15)

念念이 어긔욤 업수미 곧 이 그 ᄆᆞᅀᆞᆷ 降伏히요미라 (금강경 언해 15)

이렇게 명사 술어의 문장론적 구성도 여러 가지다. 가장 간단한 명사로부터 각종 품사의 규정어형에 의하여 수식되는 명사, 또는 각종 품사의 미정형 등이 올 수 있다.

주어로 기능하는 주격의 미정형에 형용사 술어도 대응할 수 있지만, 그 형용사에 제한이 있다.

《아니다》로 표현되는 술어의 주어도 될 수 있다. 이것은 미정형의 주어가 명사 술어와 대응하는 경우의 부정법이다(《아니다》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가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우선 형용사와 함께 처리한다).

衆生은 執着ᄒᆞ야 有 보미 眞實ㅅ 有ㅣ 아니며, 無 보미 眞實ㅅ 無ㅣ 아니니 (금강경 언해 후서 12)

다음으로 《이시다, 없다》가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미정형이 나타내는 대상화된 행동이나 상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말한다.

ᄒᆞ마 나며 업수미 업거니, 엇뎨 가며 오미 이시리오(월인 석보 서 2)

ᄒᆞ다가 이 四相 어루 보미 이시면 곧 이 衆生이라 (금강경 언해 28)

無明은 불고미 업슬씨라 (월인 석보 2권 21)

원래 미정형의 주어를 형용사 술어가 받을 적에 (례, 꽃이 핌이 아름답다) 그 형용사를 미

[주 19] 극히 드물기는 하나 미정형과 관련시킬 수 있는 《기》의 사용도 없지 않다.

그 後에ᅀᅡ 놀애 브르며, 춤츠며 롱담ᄒᆞ야, 남진 어르기를 ᄒᆞ며, (월인 석보 1권 44)

정형을 이룬 동사나 형용사의 상황어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례, 꽃이 아름답게 피였다). 이런 경우에 그 형용사가 미정형의 주어를 받아 술어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딴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할 능력이 없는 《이시다》나 《없다》가 미정형의 주어를 받으면서, 술어로 되는 것은 특수한 어법으로 보아야 한다.

15 세기 조선어에서 형용사의 어휘-의미론적 특성으로 보아 그가 수식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의 주격 미정형을 받아, 그의 술어로 되는 용법이 매우 발달되여 있었다.

世間앳 煩惱 만호미 바ᄅᆞᆯ ᄀᆞᄐᆞ니(월인 석보 1권 11)

보샤미 멀리잇가 善心이 오울면 안존 고대셔 말가히 보리니 (월인 석보 8권 1)

智 둘 아니로ᄃᆞᆫ 흔 智慧로ᄃᆡ ᄠᅳ부미 다ᄅᆞ니 (월인 석보 8권 31)

變化 뵈요미 自在ᄒᆞ야 十方 世界에 ᄀᆞᄃᆞᆨᄒᆞ니라 (월인 석보 8권 35)

여러 業의 感호ᄆᆞ로 報 어두미 이러ᄒᆞ며 (월인 석보 21권 43)

그 사ᄅᆞ미 福 어두미 無量無邊ᄒᆞ리이다 (월인 석보 21권 131)

福 어두미 그지업서, 그지업슨 罪를 滅ᄒᆞ리이다 (월인 석보 21권 177)

장ᄎᆞ 迷錯顚倒ᄒᆞ야 生死애 흘루미 아래셔 甚ᄒᆞᆯ씨 (금강경 언해 후서 12)

邪ᄅᆞᆯ 조차 ᄆᆞᅀᆞ미 一定티 몯ᄒᆞ고 보아 가 ᄢᅡ듀미 하ᄂᆞ니 (금강경 언해 16)

스승 버으로미 漸漸 멀어늘 (법화경 언해 6권 5)

ᄂᆞ치 살찌여 장ᄎᆞ 주구미 오라디 아니ᄒᆞ리니 (법화경 언해 6권 8)

알며 行호미 邪曲ᄒᆞᆯ씨 (법화경 언해 6권 175)

雜虜의 干戈ㅣ 빗구미 ᄌᆞ즈니 (두시 언해 5권 8)

和親호ᄆᆞᆯ 혜아리미 疎拙ᄒᆞᆫ ᄃᆞᆯ 아노니 (두시 언해 5권 11)

이 때 《…듯(ᄃᆞᆺ) ᄒᆞ다》와 같은 어법이 술어로 올 수 있다.

三界에 나디 몯호미 그윗 使者ㅣ 罪人 조차 ᄃᆞᆫ니ᄂᆞᆫ ᄃᆞᆺ ᄒᆞᆯ씨 使ㅣ라 ᄒᆞ니 (월인 석보 7권 45)

偸生ᄋᆞᆫ 아니 오라 사화 주글 거시 아직 사라슈미 人生ᄋᆞᆯ 일버어 잇ᄂᆞᆫᄃᆞᆺ ᄒᆞᆯ시라 (두시 언해 4권 8)

이렇게 동사 미정형의 주격에 대하여 《ᄀᆞᆮᄒᆞ다, 멀다, 다ᄅᆞ다, 自在ᄒᆞ다, 이러ᄒᆞ다, 無量無邊ᄒᆞ다, 그지없다, 甚ᄒᆞ다, 하다, 오라디 아니ᄒᆞ다, 邪曲ᄒᆞ다, ᄌᆞᆽ다, ᄃᆞᆺᄒᆞ다…》 등과 같이, 그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술어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미정형의 주격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을 형용사 술어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며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범위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범위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

ᄆᆞᅀᆞ미 조코 便安코 즐거우미 羅漢 ᄀᆞᆮ호ᄆᆞᆯ 得디 몯ᄒᆞ면 (월인 석보 8권 65)

受苦ᄅᆞᄫᆡ요미 地獄 두고 더으니 (월인 석보 1권 21)

無量淨은 조호미 그지업슬씨라 (월인 석보 1권 33)

처엄 나싫 저긔 端正호미 위두ᄒᆞ실씨 (월인 석보 2권 22의 2)

너부며 크미 虛空과 等ᄒᆞ야 (금강경 언해 후서 10)

이렇게 주로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형용사 미정형의 주격을 받는 술어로 사용된다.

형용사나 동사의 미정형 주격을 받는 형용사가 해당 미정형을 이룬 그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어로 되는 것들은 역시 특수한 어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少淨은 조호미 져글씨니, 三禪天 中에 조호미 ᄯᅩ 져그니라 (월인 석보 1권 33)

八婇女ㅣ 됴ᄒᆞᆫ 根源을 닷가 無上 道理ᄅᆞᆯ 일우미 머디 아니ᄒᆞ더라 (월인 석보 8권 91)

鼎湖애 龍의 나가미 오라니(두시 언해 5권 18)

어떤 형용사는 미정형 주격 명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특수한 의미적 뉴안쓰를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비록 이 형용사가 그 미정형을 이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수는 있으나, 의미 뉴안쓰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역시 특수한 어법을 형성한다.

네 釋譜ᄅᆞᆯ ᄆᆡᇰᄀᆞ라 飜譯호미 맛당ᄒᆞ니라 (월인 석보 서 11)

시혹 목숨 ᄇᆞ료미 어려ᄫᅳ며 (월인 석보 21권 91)

人天ㅅ 供養經을 바도미 맛당타 (아미 타경 언해 3)

이 經이 深妙ᄒᆞ야 千萬劫에 맛나미 어려우니라 (법화경 언해 6권 18)

業流에 조차 圓通 몯ᄒᆞᆫ 根으로 經ㅅ 말 疑心호미 곧 올티 몯ᄒᆞ니라 (법화경 언해 6권 29)

진실로 아ᄃᆞᆯ 다나ᄆᆞᆫ 사오납고, 도ᄅᆞ혀 ᄯᆞᆯ 나호미 됴ᄒᆞᆫ ᄃᆞᆯ 아노라 (두시 언해 4권 3)

好ᄒᆞᆫ 樓에 사ᄅᆞ샤미 可티 아니ᄒᆞ시라 (두시 언해 5권 7)

이 때에는 주로 양태성 의미 표현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 《맛당다, 됴타, 올타, 可타, …》 등과,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렵다, 쉽다, …》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주격의 미정형이 형성하는 독특한 어법들이다.

현대 조선어에서는 특히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렵다, 쉽다, 힘들다, 좋다, …》 등과 함께 미정형 《기》가 사용됨은 주지되여 있는 사실이다. 미정형 《기》가 아직 발전되지 못한 15 세기 조선어에 있어서는, 《ㅁ》 미정형의 주격이 주로 이런 역할을 놀았다.

동사, 형용사의 미정형의 주격에 대하여, 타동사가 술어로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동사나 형용사의 미정형이 비록 대상화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대상 자체는 표현할 수 없다는 사정과 결부되여 있다.

精을 일허 아로미 나ᄂᆞ니 (월인 석보 2권 21의 1)

구즌 고대 나미 다 가온ᄃᆡ 現ᄒᆞ며 (법화경 언해 6권 57)

藥王經 尊호샤미 일로 브터 始作ᄒᆞ샷다 (법화경 언해 6권 136)

功 이루미 절로 나도샷다 (법화경 언해 6권 130)

天步의 艱難호미 뵈야ᄒᆞ로 다ᄋᆞᄂᆞ니 (두시 언해 5권 3)

驪山애 行幸 ᄇᆞ라ᅀᆞ오미 긋고, 花蕚樓에 登臨ᄒᆞ샤미 ᄆᆞᆺ도다 (두시 언해 5권 18)

이와 같이 자동사로서도 《나다, 現ᄒᆞ다, 날다, 다ᄋᆞ다, 긋다, ᄆᆞᆺ다, 始作ᄒᆞ다…》 등의 어떤 상태의 발생, 소멸, 생성 등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때 동사 《ᄃᆞ외다》가 사용되여 분석적인 피동형을 조성할 수 있다.

能히 生滅 여희디 몯호ᄆᆞᆫ 다 이 ᄆᆞᅀᆞ미 더러요미 ᄃᆞ욀씨, (금강경 언해 후서 9)

執著ᄋᆞᆯ 구디 자바 法의 미요미 ᄃᆞ외야 (금강경 후서 14)

2. 각종 보어로 기능하는 미정형의 주격

주격을 갖춘 각종 품사의 미정형도 명사 주격과 같이, 동사 《ᄃᆞ외다》, 형용사 《ᄀᆞᆮᄒᆞ다》, 《ᄒᆞᆫ가지다》 또는 《아니다》와 함께 사용되여서, 각종의 보어의 역할을 놀 수 있었다.

부톄 百億 世界예 化身ᄒᆞ야 敎化ᄒᆞ샤미 ᄃᆞ리 즈믄 ᄀᆞᄅᆞ매 비취요미 ᄀᆞᆮᄒᆞ니라 (월인 석보 1권 1)

佛身ᄲᅮᆫ ᄒᆞ오사 알ᄫᅴ 現호미 아니라 (월인 석보 21권 34)

三昧功이 이르샤 뫼ᄆᆡ 버므로미 ᄃᆞ외디 아니ᄒᆞ샤 (법화경 언해 6권 146)
祗ᄂᆞᆫ 祗陁ㅣ오, 桓ᄋᆞᆫ 수프리니, 祗陁樹ㅣ라 ᄒᆞ미 ᄒᆞᆫ가지라 (월인 석보 7권 56)

3. 토 《디》의 기능

현대 조선어의 《지》에 해당되는 토 《디》가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사용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디》는 불완전 명사 《ᄃᆞ》의 주격으로부터, 미정형적 기능을 노는 토로 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조선어에서와 같이 이 《디》는 《아니ᄒᆞ다, 몯ᄒᆞ다, 말다》와 함께 미정형의 토처럼 쓰이였다.

大地 뮈디 아니ᄒᆞᆺ ᄒᆞ야 (월인 석보 21권 200)
고디 듣디 아니ᄒᆞ니 (월인 석보 21권 206)
一切 毒害를 맛나도 損히오디 몯ᄒᆞ리라 (월인 석보 21권 171)
太子를 더러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우리 乃終내 便安티 몯ᄒᆞ리라 (월인 석보 21권 215)
ᄒᆞ마 나하든 산 것 주기디 마롫디어늘 (월인 석보 21권 124)

그런데 15 세기 조선어에 있어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토 《디》가 현대 조선어의 미정형의 토 《기》와 동일한 기능을 노는 례가 있다.

네 내의 여러 劫에 勤苦ᄒᆞ야 이러ᄐᆞᆺᄒᆞᆫ 化티 어려운 剛强ᄒᆞᆫ 罪苦 衆生ᄋᆞᆯ 度脫ᄒᆞ거든 보ᄂᆞ니(월인 석보 21권 34)
性이 剛彊ᄒᆞ야 질드려 降伏히디 어렵거늘 (월인 석보 21권 116)
法力 大勢 ᄆᆞᄌᆞ니 아니시면 그 지믈 어긔디 어려우실ᄊᆡ (법화경 언해 6권 74)

이렇게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들과 함께 사용된 《디》가 오늘날의 《기》와 그의 기능이 같음을 곧 알 수 있다. 이 때의 《디》는 어떤 문장을 끌고 온, 불완전 명사 《ᄃᆞ》의 주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 (《…ᄒᆞ미 어렵다》와 같은 어법에서 미정형이 주격인 것과 같이).

사실 오늘날의 미정형의 토 《기》는 불완전 명사 《ᄃᆞ》의 주격형 《디》의 추상화와, 어음 변화를 입은 형태다 [주 20].

《디》가 불완전 명사의 주격과 같은 기능을 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주 20] 미정형의 토 《기》의 발생에 대하여 홍 기문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16 세기까지 경향적으로 존재하던 앞자음이 정칙적으로 발전하였음에 대해서, 그와 꼭 같이 경향적으로 존재하던 뒤'자음 변화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다른 방언 구역에서는 의연히 경향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나, 중부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방언에서는 그의 경향적인 변화까지 고만 정지하여 버리였다. 서울 방언에서는 이 뒤'자음 변화를 정지할 데 대하여 심히 예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15~16 세기 문헌에서 《디》로 나타나던 토가 현대어에 와서 《기》로 바뀐 등의 어음 현상에서 잘 드러나는 바다.

질드려 降服히디 어렵거늘 (월인 석보 21권 116장)
하ᄂᆞᆯ ᄯᅳ든 노파 묻디 어렵거니와 (두시 언해 23권 9장)

여기의 《디》라는 토는 현대어에 와서 《기》로 바뀌고 있다 …

그러나 이 때까지 조선어에서 《ㄷ》가 《ㄱ》로 바뀌는 것과 같은 례를 볼 수 없음에 따라, 이 《디》도 직접 《기》로 바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앞자음 변화에 의해서 《ㄷ》가 《ㅈ》로 바뀐 것이 뒤'자음 변화의 음으로 인정되여 다시 《지》가 《기》로 돌아 간 것이다. 서울 방언에는 이런 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아주 흥미 있는 현상이다》(홍 기문, 조선어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력사적 발달, 조선 어문 1957년 1호 23 페지).

大乘法은 ᄒᆞᆫ갓 손발 시수므로 조ᄒᆞ몰 삼논 디 아니라(금강경 언해 5)
아 사ᄅᆞᄆᆞᆫ… 佛의 善根을 심군 디 아닌돌 반ᄃᆞ기 알리라 (금강경 언해)
사ᄅᆞ미 먼 ᄯᅡᄒᆞ로서 와 糧食 ᄀᆞᆺ건 디 사ᄋᆞ리오 (월인 석보 21권 106)
그 ᄢᅴ 人間애 이셔 부텨 몯 보ᅀᆞᆫ 반 디 오라더니 (월인 석보 21권 181)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ㅁ》 미정형의 주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이른바 《이중 주격》

조선어 주격의 문법적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동일한 문장 가운데에 주격을 갖춘 명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 또는 드물기는 하나 셋이 있는 경우다. 이것은 이른바 《이중 주격》으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홍 기문 동지가 《本主格》, 《副主格》이라고 명명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이중 주격》에 대한 홍 기문 동지의 견해는 주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기 견해와 호상 련결되여 있다. 《主語에는 大主語와 小主語가 있다. 大主語는 數詞와 數量 聯体를 副主格으로 둔 本主格과 持格 對格 대신으로 쓰는 副主對에 該當하고. 小主語는 數詞와 數量 聯体로 된 副主格과 그 以外의 本主格에 該當한다.

大主 小主
사내가 하나가 간다. 數詞 副主格

大主 小主
그놈들이 個個이 惡人이다. 數詞 聯体 副主格

大主 小主
네가 바득이 選手다. 持格 대신

大主 小主
그가 재조가 많다. 對格 대신》[주 21]

이렇게 하나의 술어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개의 주격 명사가 대응하는 현상의 존재는 조선어의 특성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조선어 연구가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였다.

김 두봉 선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임자감은 월을 이룸에 임자되는 조각을 이름이니, 보기를 들면,

<그 사람이 힘이> 세다.

이 말에 <그 사람이 힘이>가 임자감이니, 곧 〔세〕의 임자되는 조각이니라. 그러한데 <그 사람이>와 같이 마디를 풀이로 삼은 임자를 〔큰 임자〕라 하고, <힘이>와 같이 조각 마디의 임자를 〔작은 임자〕라고 하나니라》[주 22].

필자는 여기서 이른바 《대주어》, 《소주어》가 문장 성분의 일반적 체계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 여하에 관한 문제, 또는 이런 문장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등에 관한 문제들을 고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주 23]. 이것은 형태론의 분야가 아니라, 문장론에 속한다. 다만 이 때 매개의 주격 명사가 어떤 문법적 역할을 놀고 있으며, 그들의 호상 관계는 어떠하며, 또 술어로 된 단어의 어휘-문법론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등에 대하여서만 고찰하려고 한다.

[주 21] 홍 기문, 《조선 문법 연구》 377 페지.
[주 22] 김 두봉, 《깁더 조선 말본》 137~138 페지.

홍 기문 동지는 《대주어》와 《소주어》의 어순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이 두 주격 명사 사이에는 수량 관계, (례, 쥐가 열이 달아 난다, 쥐가 두 마리가 달아 난다). 부분과 용도 (례, 보리가 씨가 굵다, 신이 감개가 풀린다), 소유 관계 (례, 네가 土地가 많다) 의속(依屬) 관계 (례, 金兄이 精神이 爽快라) 등이 있다고 하였다. [주 24]

아. 아. 홀로도비치 교수는 이렇게 한 술어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주격 명사가 대응할 적에, 하나는 진정한 주어, 다른 하나는 독특한 종류의 《보어》로 보고 있다.

《보어 가운데서 항상, 주로 조사 <는>, <은>을 동반하는 기본격, 드물게는 주격의 형태를 갖추고, 이러하여 형식적으로 주어와 일치하는 것이 특정적인 특수한 집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보어는 항상 주어보다 앞선다. 이것들은 주어에 대하여 가지는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이 관계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ㄱ) 주어가 부분을 표현할 때, 보어는 전체를 표현한다. 부분으로서는 보통 몸체의 부분이 온다.

노루는 꼬리가 짧다. 나는 머리가 아프다. 그는 나이가 많다.

ㄴ) 주어가 소유의 객체를 나타낼 때, 보어는 소유의 주체를 표현한다.

나는 돈이 없소.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ㄷ) 보어는 이러저러한 감각을 느끼는 인물을 표현하고, 이것이 동반되는 주어는 이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뒤' 종류의 문장은 내용에 있어서 분석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이 때 보어가 주어로, 주어가 보어로 바뀌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종류의 문장에서 보통인 형용사-술어가 동사로 넘어 갈 수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의 세째 어간에 보조 동사 <하다>를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례를 들면, <무섭다>로부터 <무서워 하다>》[주 25].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들을 참작하여 15 세기 조선어를 중심으로 이 때의 두 주격 형태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앞의 주격을 갖춘 명사는 외연이 보다 광범한 대상을 가리키며, 뒤의 주격을 갖춘 명사는 그 대상 가운데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 사ᄅᆞ미 眷屬이 비록 業 다ᄉᆞ로 惡趣에 ᄠᅥ러딣 사ᄅᆞ미 劫數ᄅᆞᆯ 혜리라도 (월인 석보 21권 163)

[주 23] 이 때 앞의 명사를 보통 장면의 주어라고 한다, 《조선 어문 연구회》의 《조선어 문법》에 있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하라.

《場面의 主語란 이미 主語와 述語를 갖춘 文의 앞에 提示되여, 陳述의 場面을 規定하는 語를 말한다.

例를 들면,

나는 배가 고프다. 平壤은 경치가 좋다.

노루는 꼬리가 짧다. 그 놈이 재주는 비상하다…

勿論 意味上으로는 位格의 名詞와 비슷하다(나에게 있어서는, 平壤에서는, 노루에는, 그놈에 있어서는) 言語上으로는 主語的으로 表現되였으므로 이를 特히 場面의 主語라 한다》(조선 어문 연구회 《조선어 문법》 319~320 페지).

[주 24] 홍 기문, 《조선 문법 연구》 394~396 페지 참조.

[주 25] 아. 아. 홀로도비치, 《조선어 문법 개요》 253~254 페지. 여기서 든 례 가운데서 그의 《보어》가 비록 주격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문제에 이 인용이 그냥 해당된다.

이와 같은 문장은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이 사ᄅᆞ미 眷屬이, 비록 業 다ᄉᆞ로 惡趣에 ᄠᅥ러딣 사ᄅᆞ미 劫數ᄅᆞᆯ 혜리라도》와 같이 《眷屬이》와 《사ᄅᆞ미》를 같은 비중으로 놓을 적인데, 이 때에는 《眷屬 중의…한 사ᄅᆞ미》라는 뜻으로 된다. 이것은 이른바 《제시의 주어》와는 구별하여야 할다.

다른 하나는 《이 사ᄅᆞ미 眷屬이 비록 業 다ᄉᆞ로 惡趣에 ᄠᅥ러딣, 사ᄅᆞ미 劫數ᄅᆞᆯ 혜리라도》와 같이 《眷屬이》를 규정어형 《ᄠᅥ러딣》이 형성하는 구의 주어로 볼 적이다. 그런데 조선어에서는 구의 주어와, 또 그 구가 규정하는 말이 다 같이 그 구의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로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주격 토를 갖춘 명사는 참다운 주어가 아니라, 속격과도 같이 《…중에서》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15 세기 조선어에서는 주격 토의 이와 같은 사용이 많다.

내 成佛ᄒᆞ야 ᄂᆞᆷᄂᆞᆫ 나랏 有情이 菩提心을 發ᄒᆞ야 極樂國에 나고져 願ᄒᆞᇙ 사ᄅᆞ미 命終ᄒᆞᇙ 저긔, 내 그 사ᄅᆞᄆᆡ 알ᄑᆡ 現호리니, 그러티 아니ᄒᆞ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ᅌᅵ다 (월인 석보 8권 62)

이 문장을 《내 成佛ᄒᆞ야 ᄂᆞᆷᄂᆞᆫ 나랏 有情이 菩提心을 發ᄒᆞ야, 極樂國에 나고져 願ᄒᆞᇙ 사ᄅᆞ미 命終ᄒᆞᇙ 저긔…》와 같이 《有情이》를 《發ᄒᆞ야》하고 《사ᄅᆞ미》를 《命終ᄒᆞᇙ》하고 따로 따로 관련시킨다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것도 《有情 가운데에…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리해하여야만 된다.

ᄒᆞ다가 男女 女人이 善 아니 行ᄒᆞᄂᆞ니와, 모딘 일 行ᄒᆞᄂᆞ니와, 因果信티 아니호매 니르며 邪婬 妄語ᄒᆞᄂᆞ니와, 兩舌惡口ᄒᆞᄂᆞ니와, 大乘 허러 비웃ᄂᆞ니와, 이 ᄀᆞᄐᆞᆫ 여러 가짓 業엣 衆生이 반ᄃᆞ기 惡趣에 ᄠᅥ러디리니 (월인 석보 21권 60)

이 때 뒤에 오는 명사가 주격 형태가 아니라, 절대격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衆生이 뎌 나라해 나고져 願ᄒᆞᇙ 사ᄅᆞᄆᆞᆫ 세 가짓 ᄆᆞᅀᆞᄆᆞᆯ 發ᄒᆞ면 곧 가아 나리니 (월인 석보 8권 46)

내 成佛ᄒᆞ야 나랏 衆生이 三惡道애 ᄠᅥ러디리 [주 26] 이시면, 내 乃終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ᅌᅵ다 (월인 석보 8권 60)

堅牢야 네 큰 神力을 諸神이 미츠리 [주 26] 져그니 (월인 석보 21권 151)

貴ᄒᆞ며 ᄂᆞ자ᄫᆞ니 업시 얼굴 잇ᄂᆞᆫ 거시 이 시름 免ᄒᆞ리 [주 26] 업도다 (월인 석보 21권 196)

天下애 앗가ᄫᆞᆫ 거시 몸 ᄀᆞᄐᆞ니 [주 26] 업스니ᅌᅵ다 (월인 석보 21권 216)

世界 中에 큰 거시 虛空애 너므니 [주 26] 업스며, 一切 性 中에 큰 거시 佛性에 너므니 [주 26] 업스니 (금강경 언해 27)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뒤의 주격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이, 앞의 주격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에 붙어 있는 것 중의 일부분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어떤 물체의 가장 구체적인 일부분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형상(形狀), 색체, 특성, 성격, 성질 등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觀世音 菩薩과 大勢至왜 一切 고대 모미 衆生 ᄀᆞᄐᆞ니 (월인 석보 8권 45)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ᄒᆞᇙᄊᆡ 보ᄇᆡᄅᆞᆯ 아니 앗기ᄂᆞᆺ다 (월인 석보 1권 11)

나랏 有情이 목수미 그지이시면 (월인 석보 8권 61)

[주 26] 이 때의 《ㅣ》를 주격 토로 보고, 그것이 각 품사의 규정어형에 직접 가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불완전 명사의 절대격으로 본다.

ᄒᆞᆫ 婆羅門의 ᄡᅳ러 前生ㅅ 福이 둗거ᄫᅵ (월인 석보 21권 19)

夜叉ㅣ 제 양ᄌᆞ 각각 달아 (월인 석보 21권 23)

菩薩ㅅ 어마니미 姓이 므스기러니잇고 (월인 석보 21권 27)

이 사ᄅᆞ미 나히 ᄌᆞ라 (월인 석보 21권 162)

法이 어루 닐움 업수미 이 일후미 法 닐오미라 (금강경 후서 15)

이와 같이 앞명사는 뒤'명사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뒤'명사는 어떤 대상의 속성 표시와 관련된다. 이 때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명사와 관련을 맺는 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에 제한성이 있는 사실이다. 술어로는 형용사, 명사가 오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제한된 일부 자동사도 올 수 있다. 그러나 타동사는 전적으로 오지 못한다. 그것은 이 때의 둘째 명사의 어휘-의미론적 특성상 당연한 일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둘째 명사와 술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에도 둘째 명사가 주격이 아니라, 절대격으로 될 수도 있다.

그 蓮花ㅣ 닙마다 百寶色이오 (월인 석보 8권 17)

ᄒᆞᆫ 나라해 ᄒᆞᆫ 須彌山곰 이쇼ᄃᆡ 그 山이 東녀근 黃金이오, (월인 석보 1권 22)

太子ㅣ 性 고ᄫᆞ샤 (월인 석보 21권 211)

이와 같은 경우 앞의 명사를 속격 명사로 바꾸어 놓아도 의미는 동일하다(례, 太子ᄋᆡ 性 고ᄫᆞ샤).

뿐만 아니라, 《太子ㅣ 性 고ᄫᆞ샤》라는 문장은 《性이 고ᄫᆞᆫ 太子》, 또는 《太子ᄋᆡ 고ᄫᆞᆫ 性》 등으로 문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데, 이것으로 보아도 앞의 명사는 그의 기능이 속격과 동일하며, 둘째의 명사가 술어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격 형태로서 표시한 문장과, 속격 형태의 문장으로 표시한 문장이(太子ㅣ 性 고ᄫᆞ샤, — 라는 문장과, 太子ᄋᆡ 性 고ᄫᆞ샤—라는 문장) 전등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 시경 선생은 《그 사람이 맘이 착하오》라는 문장은 도해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을 〈그 사람의 맘이 착하오〉라 함으로 풀어, 〈맘〉을 으뜸의 임으로 잡고, 〈그 사람〉이를 맘의 언기로 잡으면, 그 일은 바꾸임이 없으나, 그 본말의 힘은 잃어 버리나니라(힘은 勢와 한 뜻으로 씀이라)》 [주 27]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앞의 명사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는 주체를 나타내고, 뒤'명사가 소유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다. 이 때 소유 대상은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사들과 관련을 맺는 술어로서는 물론 타동사는 올 수 없고, 소유, 획득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 례를 들어 《이시다, 없다, 만ᄒᆞ다, 적다, ᄀᆞᆺ다, 다ᄋᆞ다, …》 등이 온다.

大王이 앗가ᄫᆞᆫ ᄠᅳ디 곧 업더시이다 (월인 석보 8권 91)

열헤 ᄒᆞᆫ둘히 ᄉᆞᄌᆞ 모딘 ᄇᆡᄒᆞ시 이실써 (월인 석보 21권 32)

이 지븨 사ᄂᆞᆫ 사ᄅᆞᄆᆡ 여러 가짓 橫病이 업서 (월인 석보 21권 99)

이 經이 세 일후미 잇ᄂᆞ니 (월인 석보 21권 101)

[주 27] 주 시경, 《조선어 문법》 57 페지.

우리 眷屬이…모딘 이리 만코, 善ᄒᆞᆫ 이리 져거 (월인 석보 21권 121)

未來世예 사ᄅᆞᆷ둘히 衣食이 不足ᄒᆞ야 (월인 석보 21권 169)

그 功德이 ᄀᆞᆺ이 업서 ᄃᆞᆯ며 혜디 몯ᄒᆞ리라 (금강경 언해 25)

이 때에도 둘째 명사가 주격 형태가 아니라 절대격 형태를 갖출 수 있다.

地藏 菩薩이 큰 慈悲 ᄀᆞᄌᆞ샤 (월인 석보 21권 166)

ᄆᆞᅀᆞ미 ᄇᆞ라옴 업슬ᄊᆡ (금강경 언해 24)

法이 실로 일훔 업건마른 (월인 석보 서 5)

동사 《이시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법들이 비록 구체적인 소유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두 개의 주격 명사와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시다》의 문법적 기능에 끌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여듧 地獄이 各各 여듧 寒氷 地獄과 여듧 炎火 地獄이 眷屬ᄃᆞᄫᅵ야 잇고 (월인 석보 1권 29)

舍利佛아 極樂國이 이 ᄀᆞ티 功德 莊嚴이 이러 잇ᄂᆞ니라 (아미타경 언해)

이와 같은 것들은, 앞의 명사를 주격이 아니라 위-여격으로 바꾸어 놓아도 의미 상에는 차이가 없다(례, 사ᄅᆞᄆᆡ게는 여러 가짓 橫病이 업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장은 《여러 가짓 橫病이 업는 사ᄅᆞᆷ, 그 사ᄅᆞᄆᆡ게 업는 여러 가짓 橫病》 등으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도 둘째 명사가 술어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의 명사는 그의 기능이 위-여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주격과 관련하여 부언하여야 할 것은 둘째 명사와 술어로 된 형용사나 자동사가 결합되여서, 단일한 언어적 단위(합성어나 성구론적 결합)를 형성하면서, 첫째 명사를 완전한 주어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현대 조선어에서 매우 광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일한 언어적 단위로서는 주격 토 《이》가 삽입될 수도 있고, 안 삽입될 수도 있다(례, 빛나다, 이름나다, 힘세다, 맛있다, 맛적다, 손크다, 기운세다, …).

이런 현상은 15 세기 조선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靈ᄒᆞᆫ 光明이 ᄒᆞ오아 빗나고 法身이 샹녜 이셔 (월인 석보 서 1)

維摩ㅣ 좀ᄌᆞ코 마리 업거늘 (월인 석보 8권 66)

無量壽는 그지업슨 목수미라 (아미타경 언해 5)

이 더러운 ᄆᆞᅀᆞ미며 몸 얼구리 數업스나 (금강경 언해 17)

虛空이 ᄀᆞᆺ업서 혜아리디 몯ᄒᆞ리니 (금강경 언해 27)

§6. 주격의 특수한 용법

우리는 앞에서 주격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말하였다. 주격은 무엇보다도 문장(여러 가지 구도 포함하여)의 각종의 주어를 나타낸다. 동시에 주격의 명사는 단어 《ᄀᆞᆮᄒᆞ다, 아니다, ᄃᆞ외다, ᄒᆞᆫ가지다…》 등과 함께 그의 보어가 되며, 사역문에 있어서는 현대 조선어에서 보통 대격 또는 조격으로 표현되는 행동 자체의 집행자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주격의 명사는 이른바 《이중 주격》의 하나로서 론리적으로는 속격이나 위-여격과 동일한 기능을 논다.

일견할 적에 주격 형태의 이와 같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은 호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격의 이 모든 기능은 그래도 주어 표시라는 그의 기본적 기능과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부되여 있으며, 주어가 아닌 경우의 주격의 사용은 주격 토의 미분화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조선어 문장 구성의 특성하고 련결되여 있다.

조선어에서는 《되다,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격의 명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조선어 문장 구성법의 특성이다. 또 이 때 주격이 사용될 수 있는 데는 론리적 및 문법적 근거들이 있다.

만어 《혼ᄒᆞ다》와 함께 15 세기 조선어에서 주격 명사가 사용될 수 있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며, 뒤에 구격으로 완전히 교체된 것은 조선어 문장 구조의 특성이 변화된 사실을 의미한다.

사역문에서의 주격의 사용 여부의 문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긔(게) ᄒᆞ다》의 어법의 단일화, 추상화 과정과 결부되여 있다.

이른바 《이중 주격》을 가지는 문장에서 주격이 속격이나 위-여격의 기능을 놀 수 있은 것도, 일정한 문장론적 제약 속에서 일어 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름이 빛이 난다》에서 《이름이 빛난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와의 련계의 긴밀화는 그의 어휘적 단일화를 가져 옴으로써 앞의 주격 명사를 완전한 주어로 등장시키고 있는 언어적 사실에 의하여 확증될 수 있다.

그러나 15 세기 조선어에서 주격 토로 볼 수 있는 토 《이》가 가첨된 형태가, 일정한 문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으면서, 주격과는 관련이 없는 기능을 노는 례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天魔 五道ㅣ 고티디 몯ᄒᆞ미 ᄀᆞᄅᆞ쵸미 常이오 (월인 석보 8권 24)

光有 聖人이 五百 弟子ᄃᆞ려 겨샤…衆生ᄋᆞᆯ 教化ᄒᆞ더시니, 그 數ㅣ 몯내 혜리러라 (월인 석보 8권 89)

願ᄒᆞᆫᄃᆞᆫ 仁者ㅣ 請ᄒᆞᅀᆞᄫᅡ 閻浮提ㅅ 사ᄅᆞᄆᆞᆯ 어엿비 너기샤 어셔 ᄂᆞ려오시게 ᄒᆞ쇼셔 (월인 석보 21권 201)

理ㅣ 求ᄒᆞ논 ᄆᆞᅀᆞᆷ 이실ᄊᆡ 일후미 若非無相이라 (금강경 언해 17)

이럴ᄊᆡ 修行人이 如來ㅅ 三十二相애 ᄃᆞ나 著호미 몯ᄒᆞ리며, 내 般若 波羅密法ᄋᆞᆯ 아노라 닐오미 몯ᄒᆞ리며, 또 般若波羅密法行ᄋᆞᆯ 行티 아니ᄒᆞ야 成佛ᄋᆞᆯ 得호려 닐오미 몯ᄒᆞ리라 (금강경 언해 39)

이와 같은 례는 《이》가 가첨된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와는 아무런 련계도 맺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 직접 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미정형 토와 비슷한 《디》의 다음과 같은 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魂神이 아모 趣에 잇ᄂᆞᆫ 디 모ᄅᆞ며 (월인 석보 21권 173)

弟子ㅣ 傳ᄒᆞᆫ 디 내 시러 아디 몯ᄒᆞ리로다 (금강경 언해 후서 15)

또 다음과 같이 《이》음이 가첨된 형태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하고는 아무런 문장론적 련계도없이, 규정어를 나타내는 것도 적지 않다.

熱은 더ᄫᅳᆯ씨니 혀근 煩惱ㅣ 熱이라 (월인 석보 1권 34)

내 모ᄆᆞᆯ 。사ᄆᆞ샤, 長者ㅣ 지븨 ᄃᆞ려 가샤 (월인 석보 8권 94)

이제 너를 노하 보내면, 내 모미 長者ㅣ 怒를 맛나리라 (월인 석보 8권 98)

長者ㅣ 아ᄃᆞ리 發願ᄒᆞ야 닐오ᄃᆡ (월인 석보 21권 18)

司ᄂᆞᆫ 臣下ㅣ 일 ᄀᆞ숨 아ᄂᆞᆫ ᄊᆞ히라 (월인 석보 21권 109)

또 위격 대신으로 쓴 례도 있다.

ᄒᆞᆫ 히ᄅᆞᆯ 梓州ㅣ 사로라 (두시 언해 2권 1)

이와 같이 주격과 같은 형태의 명사가 규정어, 보어, 상황어 등 각종의 기능을 노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용법이 먼저 말한 주어 표시와 이렇게나 저렇게나 관련이 있는 주격의 각양한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결국 원래 《이》를 가첨하던 명사의 형태가 각종의 문장 성

(33 페지로 감)

조선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형성에 관하여

김 하 명

1

일반적으로는 창작 방법, 특수적으로는 사실주의에 관한 문제를 정당하게 연구 해명하는 것은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으로서의 문학사에 관한 과학적으로 정당한 표상을 줄 것이며, 우리 문학사의 서술에 거대한 방조로 될 것이다.

예술적 방법들의 발생과 발전은 우선 당해 시기의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류의 문학 발전의 력사는 선진 문학의 발전이 항상 진리와 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실주의적 창작 방법에 의거하면서 그 사실주의의 발선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사실주의에 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철학계나 문예 학계의 날카로운 론쟁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학자들과 작가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사실주의》의 간판 밑에 자본주의 사회 제도의 합리화에 광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진정한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 대하여 동물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비방과 중상을 퍼붓고 있다. 그것은 사멸에 직면한 그 자들의 사회적 처지가 사실주의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주의는 력사적으로 그 발전 단계가 각이하나, 우선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전제로 하며,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 주는 창작 방법이다.

인민들—선진 계급은 반동적 지배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진리와 생활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현실에 대하여 진지한 과학적 태도를 취한다. 그것은 인민의 리해 관계가 언제나 현실의 발전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력사의 발전 법칙은 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승리, 새 것의 불가 극복성을 증시하면서 선진 계급의 승리를 약속해 주며, 력사 창조의 주인공은 인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로부터 선진 계급과 사실주의와의 관계가 규정된다.

사실주의는 생활의 진리를 반영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념, 인간의 열렬한 해방적 지향을 반영하면서 인도주의적이며 애국적인 자기 성격으로 하여 인민의 리해 관계를 옹호한다.

반대로 인민들—선진 계급은 사실주의 문학에서 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자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되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며 그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 및 력사적 발전 경로를 정확히 밝히는 일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작가들과 독자들을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정당한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생활 반영과 작품 분석의 실천에 있어서 옳은 립장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의 사상적 사환군'들, 사실주의에 대한 비방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의 연구 분야에서 예술적 방법의 발전에 관한 문제는 그 중 밝혀지지 못한 문제의 하나다.

종래에 사실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론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혹은 론자들이 동일한 술어를 각이하게 해석하여 자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론의된 창작 방법 문제를 우리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리 응수 동지는 자기의 《조선 문학사》(1~14 세기)에서 1~9 세기간의 문학을 총괄하면서 고대 사람들의 생활 처지는 《고대 문학으로 하여금 구체적 현실에 튼튼히 뿌리를 박고 강한 실천적인 요구를 부단히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고대 문학이 그 창작 방법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사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고, 이 시기의 창작 방법을 일괄해서 《고대 사실주의》로 불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성격 지었다.

《첫째로, 고대 문학 작품들은 어느 서사 설화나 시가임을 막론하고 거의 다 력사적인 실지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군기, 을지 문덕전, 혜성가 등이 다 그러하다.

다음 고대 사실주의는 서사적 성격을 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력사적 사실에 충실한 나머지 우선 객관적 사건 서술에 중요 관심이 돌려져서 어떤 것은 지나치게 해설적이며 설명적인 감을 주기도 하였는바, 년대기가 특히 그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서정시 중에는 전형적인 서정시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 비교적 적어 겨우 황조가, 제망매가, 정읍사, 최 치원의 쌍녀총(雙女塚) 등에서 그 뚜렷한 실례를 볼 수 있을 따름이였다.……

세째로, 고대 사실주의의 다음 특성은 그 표현이 솔직하고 소박하며 단순하고 명료한 점이다. ………

끝으로, 고대 문학 작품은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력사적인 사실이였던 것만큼 그 곳에 오늘날 예술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허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 그곳에는 고대적인 허구가 있었는바 그것은 곧 신화적인 허구였다. ……그래서 고대 사실주의에 이러한 측면을 가진 부분을 우리는 신화적 사실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주 1].

이 인용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조선 문학사》의 저자는 《고대 문학 작품》이란 말과 《고대 사실주의》란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과연 고대 사회의 모든 문학 작품을 모두 통털어서 사실주의적인 작품—《고대 사실주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겠는가?

둘째로, 고대 문학에서는 전형적인 서정시가 비교적 적으며, 《설화 문학 작품이 량적으로 절대로 우세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력사적 사실에 부합되는가?

[주 1] 같은 책 244~245 폐지. 방점은 인용자의 것,

세째로, 고대 사실주의 안에서 다시 그 중의 한 부분을 갈라서 신화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문제들은 응당 집체적 토의의 대상이 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첫째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필자는 우리 나라의 《고대 문학 작품》을 총괄적으로 우리 문예학에서 지금까지 써 온 《고대 사실주의》란 개념 속에 포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대 사실주의》란 많이는 고대 희랍 예술의 창작 방법으로서 씌여 온 말이다. 물론 개별적 민족 문학에 있어서 류사한 문학 현상을 이 술어로써 표현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나라 1~9 세기의 모든 문학 작품들이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보다 많이 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들도 있으며, 또 지배 계급에 의하여 현실이 외곡된 반사실주의적인 작품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물론 사실주의에 대한 문제의 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 문학사》(1~14 세기)의 저자가 이를 바로 조선 문학에서의 《고대 사실주의》의 주요한 표징으로 들었으며, 이로써 《고대 문학 곧 고대 사실주의》라는 결론의 주요 론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필자의 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맑스가 인류 사회의 가장 건전한 유년 시기로 부른 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문학의 형태들과 쟌르의 발전에 있어서 사시(史詩—эпопея)가 서정시보다 선행하였으며, 서정시는 극보다 선행하였다.

그러나 문학의 형태들과 쟌르의 형성 발전은 각이한 민족들에게 있어서 력사 발전의 구체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각이한 순서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현전 문헌은 첫시기의 예술 문학 작품이 서정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리 응수 동지는 이 시기의 년대기에 들어 있는 개별적 설화 작품들—단군기, 을지 문덕전 등을 바로 《년대기》로 지칭하면서, 이 시기 문학에서 서정시는 비교적 적으며 설화 문학 작품이 량적으로 우세를 차지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다 서사시적이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희랍에 있어서의 호마의 《오지쎄이》나 《일리아드》와 우리 나라 년대기에 들어 있는 설화 작품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고대 설화 작품들은 주로 인민 구두 창작으로서, 년대기의 저자들이 자기 시대의 력사적 사변들을 후세에 상세히 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이들 형상력이 풍부한 구전 설화들을 많이 인입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서정시가 개별적 작가들의 예술적 충동에 의하여 씌여진 개인 창작이라면, 고대 설화 작품들은 대부분이 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고대 희랍에서의 서사적 작품들은 신화적 표상에 토대하면서, 호마의 예술적 재능에 의하여 탁마된 그의 개인 창작의 성격을 띠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 고대 문학에서 전형적인 서정시가 비교적 적고, 다만 황조가, 제망매가, 정읍사, 최 치원의 쌍녀총만이 《전형적 서정시》라고 하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전하는 25 수의 향가와 이 시기의 적지 않은 한시 작품들의 대부분이 오늘 우리 문예학의 개념에 의하면 모두 서정시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현전하는 향가나 한시 외에 더 많은 서정시 작품들이 창작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것은 우선 이 시기에 《삼대목(三代目)》이란 향가집이 편찬되였었다는 기록만으로도 확증된다고 생각한다.

모죽지랑가나 우적가나 안민가가 모두 어찌하여 《전형적인 서정시》로 될 수 없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고대 문학에서 서사 문학이 우세하였다는 주장 가운데는 고대 희랍의 문학적 현상에서의 류추에서 오는 주관적인 독단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대 사실주의 작품의 일부분을 다시 신화적 사실주의로 갈라 놓는 것은, 이 술어들의 내용상 규정성을 더욱 모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선진 문예 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이 맑스 엥겔스의 사실주의에 대한 견해에 비추어 《고대 사실주의》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거니와, 우선 그의 정부당에 대하여는 잠간 두고, 종래의 례에 따라 이 개념을 그 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고대 사실주의》와 《신화적 사실주의》란 술어는 대체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문학의 구체적 재료에 근거하여 창작 방법 문제를 론의한 론문으로서는 희귀한 박 종식 동지의 《연암 박 지원의 창작 방법에 대하여》에서도 우리 문학의 구체적 현상을 부족하게 고려하면서, 기성 개념으로써 기계적으로 재단한 실례를 볼 수 있다.

이 론문에서 박 종식 동지는 주로 박 연암의 문학의 우리 문학사상 위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전시기의 창작 방법의 발전을 간단히 개괄하면서, 15~16 세기에 성행한 《량반 계급의 계급적 울타리 안에서 강호를 노래하고 혹은 당쟁에서 실각한 정치가들의 개인 생활을 영탄한》[주 2]. 시조 작품들의 그 성격적인 현실 표현의 특징들로 하여 《이 시기의 문학 발전 과정을 고전주의적 사조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때에 박 종식 동지는 이 시기 문학의 현실 표현의 특징이 《현실을 지배 계급의 일정한 규범과 취미에서 취사 선택하고,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현실을 평가하며, 형식에 있어서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사조》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견해에는 리해되지 않는 점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고전주의》는 서구라파 문학사에서 사실주의 발전의 한 단계를 이루는 문학 사조의 하나다.

그것은 17 세기 불란서의 특정한 사회-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 자연의 모방, 리성의 목소리에 대한 복종, 새로운 기초 우에서의 고대 예술의 제 원칙의 적용으로써 중세기 사회의 지배층들에게 복무하던 문학에 비하여 거대한 진일보였으며, 그의 형성 초기에 있어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맑스-레닌주의 문예학은 고전주의가 그의 초기 개화 시기와 그 후의 림시적 앙양 시기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문학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을 생활에로 접근하도록 추동하였으며, 중세기적 봉건주의 및 계층적 군주 정체와의 투쟁이 제기하는 진보적 요구에 대답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15~16 세기에 주로 량반들에 의하여 창작된 시조 작품들은 박 종식 동지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시가 세교(世敎)에 관계된다고 주장한 당시의 시인들까지도 이른바 이 세교를 유교적 교리의 설교로 리해하였으며, 인민의 생활적 진실을 반영하고 거기로부터 산 교훈을 주는 사실주의적 시 문학의 원칙을 개척하지 못하였다》[주 3].

서구라파 문학에서 고전주의의 대표적 예술 형태로서 극문학이 발전하였으며, 특히는 그 작자들이 종전에 최고의 모범으로서 존경해 오던 교회 서적이 아니라, 고대 문학의 고전적 작품들을 모범으로 하는 구호를 들고 진출하였기 때문에 《고전주의》란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였다는

[주 2] 《박 연암 연구》 44 페지.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55.

[주 3] 같은 책 44 페지.

사정을 고려할 때에 우리 나라 15~16 세기 문학의 주도적 사조를 《고전주의》로 부르기는 곤난하다. 모든 민족 문학의 발전 행정이 서구라파의 그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 력사적 발전의 차이성에 의하여 문학 사조의 교체 과정도 각이한만큼, 특히 문학의 호상 교류 관계가 없던 여러 나라들의 문학 사조를 반드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지적한 실례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학 사조, 예술적 방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오늘 우리 문예학 분야에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견해상 차이들은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집체적 토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대학들에서의 《문학 리론》 및 《조선 문학사》 과목들의 과학성과 사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인민들에게 문학 발전의 제 법칙을 옳게 리해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얼마 전에 쏘련 과학원 고리끼 명칭 세계 문학 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사실주의에 관한 토론 행정은 매개 민족 문학 발전의 구체적 경험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들이 선행하지 않고는 소여 문제의 전면적 해명이 곤난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오늘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형성 발전에 관한 문제의 정당한 해명은 더욱 절실하며, 그 의의는 국내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문예학자들, 평론가와 작가, 시인들은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참가하는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에 관한 집체적 토론의 시기는 성숙되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를 토론함에 있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주의》란 술어의 개념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선진 문예학계에서도 《사실주의》란 술어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각이하게 해석되고 있는만큼, 일정하게 정식화된 개념 규정이 없이는, 즉 그 용어의 통일이 없이는 토론에서 의거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엥겔스에 의하여 정식화된 사실주의의 기본 표징에 비추어,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 발전의 기본 단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사실주의는 디테일의 정당성 외에 전형적 환경에서의 전형적 성격들의 정당한 재현을 의미한다》[주 4]고 한 엥겔스의 규정에 의한 사실주의의 기본 요구가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쳐 어느 시기에 해결되였는가가 밝혀진 후에 이것을 기준으로, 매개 시기 문학의 특징적인 표현 형식을 성격 짓는 몇 단계로 구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론구함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문학의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히 립각해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 튼튼히 서서 그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력사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밝혀진 어느 외국 문학 현상을 가지고 교조주의적으로 들어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실주의》란 말은 엥겔스의 정식화에 의한 한정된 의미로 쓴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 가자.

2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 참된 의미의 《사실주의》는 어느 시기에 형성되였는가? 먼저 결론부터

[주 4] (1888년 4월 마가레트 하크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면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는 17 세기의 준비기를 거쳐 18 세기에 형성되였다고 생각한다.

1592~1598년의 임진 조국 전쟁은 조선 인민의 물질 및 정신 생활의 전 령역에 걸쳐 일대 전환기로 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문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섰는바, 이미 17 세기 초엽부터 소설 작품이 대량적으로 창작되고 널리 보급되였다. 이 시기에 소설 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킨 기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임진 조국 전쟁에서 싸워 이긴 조선 인민의 사상 의식 수준의 장성과 미학적 요구의 가일층의 제고다.

전후 7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들은 량반 통치배들의 무위 무능성, 정치적 타락과 정신적 허약성을 낱낱이 알게 되였으며, 단합된 인민의 위력을 자각하게 되였다. 인민들 속에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불합리한 착취 제도로부터 벗어 나려는 해방적 지향이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선진 문학 앞에는 인민들에게 현실 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며,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감을 환기시키는 과업이 제기되였다.

종래의 시조나 한림 별곡체 등의 시가 형식만으로는 이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가 없었다. 현실 생활의 제 관계를 있는 그 대로,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의 생활 현상들을 대체로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지각된 그 대로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요구에 가장 적합한 문학 형식이 바로 구성이 큰 서사적 문학 형태로서의 소설 문학이였다. 다른 한편으로 소설은 다른 문학 쟌르에 비하여 대중이 리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객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문학의 주체적 력량—문학 발전의 력사, 일정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문학은 이 시기까지에 설화 문학, 패설 문학, 전기(傳奇) 문학, 한문 작품의 번역 등을 통하여 산문 형식에 의한 생활 반영의 경험을 적지 않게 축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5 세기에 창제된 훈민 정음은 이미 서사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많은 보급을 보고 있었으므로 선진 작가들이 우선 국문으로 소설을 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6 세기에 중국 소설이 대량적으로 들어 와 많이 읽힘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소설 문학의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였고, 자기 나라 말로 씌여진 소설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17 세기에 임진록, 홍 길동전, 전 우치전, 박씨 부인전, 림 장군전, 김 만중의 사씨 남정기, 구운몽, 기타 대형식의 소설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소설 작품들은 그 사상 예술적 수준에서 각이하나, 종래의 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광범하고 복잡한 생활 현상들을 《생활의 형식》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문학의 사실주의의 발전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임진록은 문'자 그 대로 임진 조국 전쟁 시기의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항전 기록이다. 작자는 임진 조국 전쟁의 력사적 사실에 의거하면서 인민들의 자유 분방한 환상력에 의하여 7년간에 걸친 임진 조국 전쟁의 전 력사적 과정에 대한 훌륭한 예술적 일반화를 주었다.

박씨 부인전과 림 장군전에는 병자 전쟁 시기의 조선 인민의 념원과 지향이 진실하게 반영되여 있다.

우리는 홍 길동전에서 이 시기 량반 가정의 내부 모순과, 반(反)봉건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

의 의식의 장성 과정에 대한 반영을 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설 문학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아직 엥겔스가 규정한바, 전형적 환경에서의 전형적 성격이 진실한 세부 묘사와 원만히 배합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인 홍 길동전을 례로 들어 보자.

소설 홍 길동전은 허 균이 활동하던 임진 조국 전쟁 직후의 첨예한 사회적 모순을 기본 갈등으로 하여 봉건 관료 통치를 반대하는 이 시기 인민들의 반항 투쟁을 반영하였다.

작품은 그 문제 제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민적 립장에 서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당해 시기의 조선 현실을 재현하였다.

작품은 가부장적 봉건 가족 제도의 산물인 적서 차별의 철폐에 대하여 리 왕조 봉건 관료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 봉기의 불가피성과 그의 력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반인민적 봉건 국가의 전복에 기초하여 착취와 압박을 근절한 리상 국가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작품은 당시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실을 두 세력의 대립으로 특징 짓고 있다.

이것은 홍 길동전이 당시의 조선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런 의미에서 즉 당시 조선 봉건 사회의 본질적인 면을 정당하게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이다.

그러나 홍 길동전은 아직 엥겔스가 규정한 바의 사실주의의 속성을 완전히는 체현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공 홍 길동은 당시 인민의 해방적 지향을 체현한 투사의 형상이다. 그의 성격 속에는 당시 조선 인민의 긍정적 자질이 반영되여 있다. 그러나 인민 봉기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동은 초인적인 형태로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은 그 세부 묘사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홍 길동은 자기가 하고저 하는 일에서 막히는 것이 없다. 그는 짚으로 사람 일곱을 만들어 동일한 시각에 조선 팔도에 나타나며 바람을 불리고 비를 오게 하는 술법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한 길동의 도술은 중세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의 환상적 표현으로서, 객관적으로 실재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사건과 인물의 성격은 주로 서술 형식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아직 사실주의 소설의 기본 특징인 묘사의 수법을 적게 쓰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의 행동의 초인간성은 이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특징적이다. 전 우치전의 주인공 전 우치도, 임진록의 주인공들도, 또 박씨 부인전과 구운몽의 주인공들도 도술의 능수들이다. 그들은 도술에 의하여 자기의 선량한 념원들을 달성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당해 시기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면서 현실의 진실한 반영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출현하였으나, 아직은 이 시기 인민들의 인식 수준에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작품들이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루나, 《우수한 비판적 사실주의》로 단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최 시학 동지는 《허 균의 <홍 길동전>》[주 5]이란 론문에서 홍 길동전이 《인민 대중의 착취 계급에 대한 항의와 투쟁을 반영하였으며, 나아 가서 농민 대중의 리상적 세계를 뵈여 준 우수한

[주 5] 《청년 문학》 1957, 4호.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방점은 인용자의 것).

이에 있어서 최 시학 동지는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한 고리끼의 해석에 비추어 자기 견해의 정당성을 론증하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하여 일찌기 고리끼가 〈정신적으로 자기의 환경보다 높이 장성하였으며, 자기 계급의 황페한 육체적 힘의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사회적 창조적 무능력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주로 이 사실주의의 창조자였다〉라고 한 바와 같이, 허 균은 정신적으로 자기의 환경보다 높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량반 계급의 사회적, 창조적 무능력을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비판적 사실주의 방법에 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보건대 《홍 길동전》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으로 보는 조건은 이 작품이 첫째로 《봉건 제도가 인간과 인민 대중의 정상적 발전에 끼치는 해독적 성격을 폭로하며 리상적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하》였다는 것과, 둘째로 작자 허 균이 고리끼가 말한 바의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였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홍 길동전》은 물론 당해 시기 조선 사회의 기본적 모순을 반영하였으며, 인민들의 해방적 지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문예학은, 비판적 경향이 있는 모든 작품을 비판적 사실주의로 보지 않는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구체적인 력사적 시기에 출현한 일정한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였으며, 특정한 자기 속성을 갖고 있는 사실주의의 특수 형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판적 사실주의는 세계 문학사에서 19~20 세기의 사실주의 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다.

물론 근간에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비판적 사실주의》란 술어 밑에 거의 백년간에 걸친 기간의 각이한 사회적 내용을 가진 각이한 쓰찔의 작품들을 지칭해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 개념이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가령 체르느쉡쓰끼의 《무엇을 할가》를 비롯할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작품들도, 뜨루게네브, 곤차로브 등의 작품들, 그리고 서구라파의 발자크, 기타의 작품들도 일괄하여 동일한 《비판적 사실주의》란 술어로써 부르고 있는 것은 이 각이한 계렬의 작품들이 가지는 서로 상이한 경향성, 사회적 내용과 쓰찔상의 특성을 차요시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래에 씌여진 례에 근거하더라도, 비판적 사실주의는 일정한 력사적 개념으로서의 규정성이 있다. 그것은 결코 모든 시기의 비판적 경향을 가진 모든 문학 작품들에 대한 총괄적 명칭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당해 시기의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객관적인 관찰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생산력 및 과학의 발전과, 계급 투쟁의 격화를 전제로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서구라파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적대적인 계급 사회의 진정한 본질이 명백해진 19 세기에, 작가들이 《자기의 생활 상태와 호상 관계를 랭정한 눈으로 관찰》〔주 6〕하는 것이 요구되였던 시기에 와서 개화 발전하였으며,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가 서구라파 제국에서와는 다른 사회적 지반 우에서 형성 발전하였다. 아직 봉건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인 시기에, 지주들과 농민들 사이의, 지배 계급들과 피압박 대중과의 모순이 격화된 시기에, 그러나 역시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전하고 현대 과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지식층에 보급된 시기에 로씨야 비판적 사실주의는 형성되였고, 찬

〔주 6〕 칼 맑스, 에프.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21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1년 판.

란한 개화 발전을 보았다.

이러나저러나 간에 비판적 사실주의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랭정한 관찰에 기초하며 바로 직접적으로 발자크와 같은 사람들의 작품들과 관련되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특히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한 고리끼의 견해에 의한다면 더구나 홍 길동전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비판적 사실주의에 대한 고리끼의 규정은 실상 현재 우리 문예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은 내용으로 국한되여 있다.

고리끼는 제 1차 쏘베트 작가 대회에서의 보고에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특성을 성격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작가군은 수십명에 지나지 않으나 비판적 사실주의와 혁명적 랑만주의의 가장 거대한 창조자들이였다. 이들은 죄다 자기 계급의 탈락자, 《방탕한 자식》들인데 부르조아지에 의하여 몰락한 귀족이 아니면, 자기 계급의 답답한 분위기로부터 탈출한 소부르조아지의 자식들이였다. 구라파 문인들의 이 그루빠의 책들은, 첫째로 기술적인 모범을 받을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 둘째로 부르조아지의 발전과 조락의 과정을 설명하는 문건, 계급의 탈락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였으나, 그 계급의 풍속, 전통, 활동을 비판적으로 해명한 문건으로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중적이고 두말할 여지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주 7〕

고리끼는 이렇게 비판적 사실주의의 담당층, 그 문학의 의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같은 보고의 다른 대목에서 그의 일정한 제한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결코 비판적 사실주의의 광대한 사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한 언어에 의한 회화(繪畵)에 있어서의 그 형식 달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들은 이 사실주의가 과거의 잔재들을 폭로하고 그 잔재들과 투쟁하여 그것들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주 8〕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끼는 비판적 사실주의를 주로 19~20 세기의 서구라파 및 로씨야 문학에 있어서의 진보적인 사실주의 문학으로 리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고리끼는 특히 비판적 사실주의의 긍정적 성과의 하나로서 《언어에 의한 회화(繪畵)에 있어서의 그 형식 달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서사적 작품에서의 구체적 묘사—디테일의 정당성을 념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고리끼가 비판적 사실주의의 창조자들이 《정신적으로 자기의 환경보다 높이 장성하였으며 자기 계급의 황페한 육체적 힘의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사회적 창조적 무능력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 시학 동지가 리해하는 것처럼 허 균이 《정신적으로 자기의 환경보다 높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량반 계급의 사회적 창조적 무능력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보기는 곤난하다.

물론 허 균은 당시 17 세기 초엽에 있어서 선진적인 사상가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봉건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특히 적서 차별의 철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광해군의 폭정이 인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위정자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사회 발전의 수준은 아직 허 균으로 하여금 《량반 계급의 사회적 창조적 무

〔주 7〕 엠. 고리끼 《문학론》 4권 185 페지. 조쏘 출판사 1956년.

〔주 8〕 같은 책 215 페지.

능력을 똑똑히 볼 수 있게》할 만한 객관적 조건들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 《홍 길동전》이 실증해 준다. 허 균은 《홍 길동전》에서 홍 길동이 《률도국》을 정복하고 리상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작자는 이 률도국 정복으로써 리 왕조 정부를 전복할 필요성에 대한 사상을 구현하였다. 홍 길동이 률도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보내는 격문에서 스스로를 의병장(義兵將)으로 부르고,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이러므로 탕(湯)이 벌걸(伐桀)하시고 무왕(武王)이 벌주(伐紂)하시니 천도이 자연한 일이라》고 한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이러한 가상적인 률도국 왕을 통하여 당시의 폭정자인 광해군을 암유한 것으로 보이며, 홍 길동을 의병장이라고 부름으로써 인민의 대변자로서의 그의 행동의 애국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그러나 《홍 길동전》에서의 률도국 정복과 《리상 국가》 건설은 결국 어진 왕에 의한 낡은 왕의 대체로써, 《백성이 송덕하여 격양가는 요순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그쳤다.

률도국의 새 임금이 된 홍 길동은 봉건 국가 기구를 그 대로 답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가 친척에게 모두 해당한 벼슬을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작자 허 균이 그렇듯 증오한 것은 광해군과 같은 폭군이요, 인민들을 함부로 착취 압박함으로써 도탄에 빠치는 탐관 오리이지 왕권이나 량반 계급의 지배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아니였다.

그는 아직 량반 계급의 몰락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작자 허 균의 죄가 아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에는 아직 봉건 제도를 지양하고 보다 발전한 새 사회 제도로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물질적 토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앞에서 《홍 길동전》이 아직 사건의 묘사와 인간 성격의 창조에 있어서 디테일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바, 바로 이러한 조건, 즉 중세기적 문학의 특성을 원만한 정도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이 작품은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의 일반적 속성을 원만히 구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작품에는 비판적 경향이 강하며 18 세기에 이룩된 비판적 사실주의의 선구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 시학 동지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을 《우수한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는 17 세기 후반기 김 만중의 《사씨 남정기》에서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면서 18 세기의 문학 작품들, 특히 박 연암의 작품들과 춘향전 등에서 비로소 형성되였다.

그러면 18 세기 사실주의 문학을 17 세기 문학과 구별 짓는 중요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이 시기 문학, 특히는 연암의 문학 작품들은 신화적 환상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는 데 있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의 성격도 사건의 전개도 환상적 모찌브에 의하여 규정되여 있지 않다. 이 시기의 사실주의적 작품들은 비로소 당시 사람들의 사회 생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였다.

연암의 작품들의 여러 주인공들을 상기하자. 그들은 모두 초인적인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흔히 보며 자주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다. 《광문》은 종로 네거리를 다니며 빌어 먹는 거지였고, 《우상》은 일본에 파견된 정부 사절단의 서기였으며, 량반전의 주인공 《정선 고을의 한 량반》은 당시 사회에서 어데서나 볼 수 있던 몰락 량반의 한 사람이다. 《말거간전》의 주인공들도 《예덕 선생전》의 주인공들도, 또 《허생전》과 《민옹전》의 주인공들이 모두 그러하다.

이들 주인공의 형상은 각각 개성적 성격을 통하여 일정한 계층의 특질들을 생동하게 보

여 준다.

인물 성격의 개성화는 상기 작품들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 동일한 사회 계층의 인물들도 그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비상히 개성적이다.

다음으로 연암의 작품들과 춘향전을 비롯한 판소리 작품들에 와서 이 시기의 경제 관계의 분석이 강화되고 그 민족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엥겔스가 발자크의 《인간 희극》을 통하여 《경제학적인 세부의 의미에서조차 이 시대의 모든 직업적인 력사가, 경제 학자, 통계 학자들의 저서를 합친 것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진실로 당시의 경제 관계에 일어난 심각한 변동들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량반전과 허생전, 흥부전과 춘향전이 모두 그러하다. 17 세기의 소설 작품들은 아직 많은 경우에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결코 이 시기 문학 작품들의 사회적 경향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량반전은 우리 문학사상 처음으로 량반 생활의 종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력사적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량반전에는 실로 붕괴기 조선 봉건 사회의 전 면모가 산 화폭으로서 들어 있다.

정선 고을의 한 량반, 정선 군수는 이 시기 량반 계급이 처해 있던 사회적 처지의 서로 다른 면을 진실하게 보여 주는 형상들이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량반 매매 문서에 반영된 현실 생활의 화폭은 얼마나 생생하며, 포괄하는 넓이는 얼마나 광대한가!

허생전은 이 시기 조선 인민의 경제 생활, 화폐 경제의 발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연암이 구상한 무인도의 《리상 사회》와, 홍 길동전에서의 《리상 왕국》을 대비함으로써 이 두 작품간의 사상의 질적 차이를 단적으로 리해할 수 있다.

《률도국》에 반영된 사상의 제약성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보아 온 바이다. 허생전의 작자는 자기가 구상한 리상 사회에서 어떠한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회의 기본 성원으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불행이 누구에게서보다도 가장 심각한 《변산 군도》 2천명이다. 이 사회에는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자유로운 로력과, 상호간에 존경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례절이 있을 뿐이다. 작자는 이 《리상 사회》의 구상으로써 로동의 해방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낡은 봉건 질서의 전면적인 부정의 립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연암의 작품들에서는 사회적 계급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리고 각 계급간의 호상 관계에 대한 아주 정당한 인식이 선명하게 표현되여 있다.

연암은 자기 작품들에서 량반 사대부들과 소유자 계급을 《황충이》 따위의 존재로, 《천하의 거드, 인의의 대적》으로서 락인을 찍는 한편, 엄행수와 같은 근로 인민을 《성인》으로도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로 내세웠다.

리 완 대장, 북곽 선생과 같은 량반 사회의 《위신 있는》 대표자들의 형상에 대한 작가의 관계와 홍 길동전의 《홍 재상》이나 사씨 남정기의 《류 한림》의 형상에 대한 작가의 관계를 대비해 보라.

연암이야말로 진실한 의미에서 《정신적으로 자기의 환경보다 높이 장성하였으며, 자기 계급의 황폐한 육체적 힘의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사회적 창조적 무능력을 똑똑히 본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연암의 작품들은 종래의 소설의 약점이던 슈제트 구성의 도식성을 완전히 극복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서구라파 문학에서의 비판적 사실주의가 19 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

발전한 문학 사조인데 18 세기 조선의 연암이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문학에 대한 과대한 평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 력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임진 조국 전쟁과 병자 전쟁을 지난 시기—18 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동, 특히 사회적 모순의 격화와 민족적 자의식의 앙양, 실학 사상의 발전들이 바로 이 시기 우리 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토양으로 되였다.

즉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인민 경제의 극심한 파괴와, 전후 재정 파탄을 미봉하기 위한 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의 증대로 말미암은 지주와 농민간의 모순의 격화가 이 시기 선진 문학으로 하여금 그 적라라한 진상의 파악에로, 그 비판적 성격의 강화에로 촉진시킨 첫째 요인으로 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시와 전후 시기를 통한 외국인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하여 자기 나라의 력사와 처지에 대한 심각한 관찰과 반성이 진행되였다. 특히 봉건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장성하는 화폐 경제와, 중국을 통하여 들어 오는 서구라파의 발전된 자연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의 증대는 이 시기 선진 사상가들과 작가들의 시야를 훨씬 넓혀 주었고, 자기의 생활 처지를 아주 랭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와 능력을 지어 주었다.

이것이 또한 이 시기 선진 문학의 주제의 사회적 확대와 그 비판적 성격의 강화를 규정한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주객관적 요인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8 세기에 이미 비판적 사실주의의 기본 요구에 수응한 우수한 작품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다른 면으로 볼 때에 우리 문학에서는 우선 사실주의의 형성 초기에 강한 비판적 성격을 띰으로써 우선 비판적 사실주의로서 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박 연암의 작품들 외에 이 시기에 창작된 구전 설화를 기초로 한 판소리 작품들—《흥부전》, 《춘향전》의 경우도 그러하다. 《흥부전》의 경우를 례로 들어 보자.

그의 토대로 되는 설화에서 놀부와 흥부의 형상은 각각 선과 악의 체현자로서, 그 기본 갈등은 선과 악의 관계이다.

이 시기의 판소리 가수들은 이 구전 작품의 형상들에다 새로운 시대적 성격을 체현시켰다.

판소리 대본에서도 구전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놀부와 흥부는 형제간이며, 형은 모질고 욕심쟁이요, 아우는 착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나 《흥부전》의 작자들은 이 형상들의 성격상 특징을 다만 도덕적 측면에서만 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근원과의 관계에서 밝혀 보여 주면서 이들에 대한 인민적 평가를 주고 있다.

만일 놀부의 형상이 봉건 경제가 붕괴기에 들어 서면서 화폐의 기능이 증대되는 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순전히 리해 관계만을 추구하는 현금주의자의 전형이라면, 흥부의 형상은 어질고 부지런하나 항상 가난하게 살아 가던 봉건 시대 농민들의 처지와 그 성격의 체현자이다. 이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에 작품에는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세태적 모찌브들이 광범하게 도입되였다. 흥부는 밤낮없이 쉬지 않고 일하여도 굶기를 남이 밥 먹듯 하는 판인데, 부자는 제가 지은 죄라도 돈을 주어 남에게 대신 매를 맞게 할 수 있으며, 또 돈을 받은 관원들은 그 죄를 감해 주기도 하는 등, 작품은 사회 생활에서 금권이 상당한 역할을 놀고 있는 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 구전 설화에서의 환상적 모찌브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으나 이 작품들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근대적이다.

특히 이 시기 서사적 작품들이 그 표현 형식면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거대하다. 구체적인 묘사, 특히 주인공들의 언어의 개성화는 우에서 이야기한 제 특성과 더불어 이 시기 소설 작품

들을 사실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올려 세운 주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판소리 대본의 쟌르상 특성, 즉 그가 수행하는 기능과 과업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판소리는 한 사람의 광대가 다른 한 사람이 반주해 주는 장고의 장단에 맞추어 쮸제트를 가진 서사적 내용을 노래와 설명과 동작으로써 전달하는 독연(獨演) 형태의 특수한 예술 형태다. 이렇게 판소리 작품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상연되였던만큼 그 대화들이 일상 생활에서 진행되는 형식 그 대로 재현할 것이 요구되였기 때문에 그 대본들은 회화에 있어서 언문 일치에 훨씬 접근하였다.

《춘향전》에서 리 몽룡이 암행 어사가 되여 남원으로 가는 길에 농부들과 주고 받는 한 장면을 례로 들어 보자.

《<저 농부 말 좀 들어 보면 좋겠구만>
<무삼 말?>
<이 골 춘향이가 본관의 수청들어 뢰물을 많이 받아 먹고 만정에 작폐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불내여
<게가 어데 삽나?>
<아무되 사든지?>
………》

물론 이 판소리 대본들은 그 많은 부분이 노래로 불러진 관계로 그 음악적 요구로부터 독특한 률문체를 형성하였으며, 그 묘사에 있어서 한문 성구를 람용한 도식적 표현들이 극복되지 못하였으며, 쮸제트 구성상의 도식성이 또한 이 작품들의 사상 예술성에 일정하게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세기 연암 박 지원의 작품들을 위시하여 흥부전, 춘향전 등 일련의 판소리 작품들에 와서 전 세기 소설의 제한성들이 현저하게 극복되고, 기본적으로 엥겔스의 정식화에 의한 사실주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실주의의 형성은 장구한 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을 밟는만큼 어느 한 작품에서 명확한 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여기서는 다만 그 기본 표징들에 의하여 시대적 구분을 시도한 데 불과하다.

필자는 이상에서 우리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예술적 방법에 관한 집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앞으로 광범한 집체적 토론을 통하여 우리 문학에서의 예술적 방법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시급히 해명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

(20 페지에서 옴)
분으로 사용되던 보다 옛날의 특성이 일정한 문장 구성의 제약성 속에 화석화의 형태로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라는 등등의 극히 중요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대명사에 있어서는 주격과 속격 형태가 일치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이》가 말하자면 주격의 토가 아니라, 람슈테트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절대격과 같은 그런 토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15 세기 조선어에 있어서도 벌써 주어 표시와 관련이 있는 주격 형태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과 병행해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주격의 기능과는 무관계한 일부 특수한 용법 곧 토 《이》의 이전의 기능이 잔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과 그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박 의 성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제기된지 이미 오래며, 인민들의 생활상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문제로 나서 있다.

오늘 인민 대중 속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 요구는 다음의 실천적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 문'자 체계를 어음 체계에 더 잘 대응케 하며, 글을 한층 더 형태주의 철자법에 올려 세우며, 자형을 실제 생활에 알맞게 다듬어서 읽고 쓰는 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하며, 교육적 효과와 글의 규범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나라의 출판 인쇄 사업에서도 선진적이고 능률적인 인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인쇄 사업을 대혁신시키며 타자기를 인민 대중에 널리 보급시킬 수 있게 하여, 쓰는 시간을 단축하고 주고 받는 문서를 깨끗이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의 강력한 앙양을 위해서나 인민들의 일상적 서사 생활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나라에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자 개혁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반세기 전에 주 시경 선생은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 시경 선생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자 개혁을 주장한 그 시기는 우리 나라 봉건 체계가 뒤흔들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도래하여 인민들의 교제 생활이 전에 없이 긴밀-활발해진 시기였다. 또한 그 결과 봉건 시기의 낡은 유물인 한문이 폐지되고 우리 글이 나라의 모든 부면에서 지배적 글로 올라 서게 된 시기였다.

《언문》 또는 《암클》이라 하여 가진 천대와 학대 속에 자라 온 우리 글은 전체 인민의 글로서 《국문》이라 불리면서 그의 사명과 역할이 크게 더해졌다. 일상적인 펜에 의한 서사 생활에서는 물론, 출판 인쇄 사업에서도 우리 문'자의 의의는 아주 커졌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 문'자가 가지고 있던 모순, 그 중에서도 특히 자모 문'자인 우리 문'자를 음절로 묶어 쓰는 모순성을 표면에 뚜렷이 드러내 놓게 하였다.

이 모순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주 시경 선생은 우리 문'자의 음절식 철자를 풀어서 가로쓰기로 즉 자모식 철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생의 이 주장은 본질상 우리 나라에서의 문'자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단순히

철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모 문'자를 자모—음절 문'자로 만든 것을 자모 문'자로 넘어 가게 하는 문'자 류형상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문'자의 혁신적인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 시경 선생은 문'자 개혁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혁안을 실지 서사 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주 시경 선생에 의해서 기초 지어진 이 참된 새로운 사상은 그 후 더욱 혹심해 가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밑에서도 계속 우리의 어학자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여 왔다. 점차 더욱 연구하고 정밀화하여야 할 모든 분야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되게 되고, 일정한 성과들을 거두게 되였다.

1923년에는 주 시경 선생을 이어 김 두봉 선생의 연구 성과가 《깁더 조선 말본》의 《좋을 글》편에 자세히 발표되였다. 이 곳에서 문'자 개혁 리론이 일대 전진을 보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과 그의 기본 방향, 가장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문'자로 만들기 위한 일반적 원칙, 우리 철자법을 보다 더 형태주의에 올려 놓기 위한 구체적 문제들이 면밀하게 연구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초서체가 고안되여 발표되였고 속기체도 처음으로 고안 발표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에 관한 연구는 날로 더 심해 가는 일제의 간섭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 심오화되여 갔으며, 문'자 개혁에 관한 리론적 연구와 함께 개혁안들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1936년 11월에는 조선어 학회에서 어학자들의 집체적 연구 결과로 되는 인쇄체의 림시안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으며, 이 문제는 그 후 계속 연구되여 여러 개인 안들도 발표되였다.

그러던 중 일제의 대륙 침략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야수적 탄압은 극도에 달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쓰지 못하게 강요하는 데 이르렀다. 우리 어학자의 대부분은 자기 모국어와 글을 연구한다는 리유로 검거 투옥되였다. 이런 환경에서 가로쓰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설사 연구가 다 되였다 하더라도, 일제의 야수적인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밑에서는 개혁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은 우리 민족 문화, 모국어, 문'자의 발전을 위한 무제한한 길을 열어 놓았다.

해방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은 실로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문'자의 역할도 비할 바 없이 커졌다.

문맹의 전반적인 퇴치, 인민적 문화의 개화, 인민들 사이의 서사적 교제 생활의 보다 일층의 긴밀화는 우리 글을 더욱 대중적인 것으로 발전시켰다.

1949년부터는 신문 잡지들까지 국한문 혼용체로부터 순 국문체로 넘어 갔다. 낡은 유물로 된 한'자는 국한문 혼용, 한'자의 제한, 괄호 안의 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드디여 우리 글에서 없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글 발전에서 큰 전진이였고, 우리 글의 철자법은 형태주의에로 더욱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6년 4월부터는 모든 부면에서 우리 글의 내리쓰기로부터 가로쓰기(풀지 않는)로 넘어 갔다.

이 모든 사실은 급속히 자라나는 인민들의 문화적 제 요구의 반영이며, 우리 글의 보다 일층의 대중화의 과정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글의 개혁을 위한 방향에로의 전진들이였다.

해방후 우리 글의 역할의 증대와 함께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여 보다 인민적인 것으로 되였지만, 우리 글의 기본 모순은 의연히 남아 있으며, 그의 제거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날카롭게 나선다.

이 모순의 제거를 위하여 해방후 우리 글을 풀어서 가로 쓸 데 대한 연구를 더욱 심오화하여 왔다. 1956년 10월 7일에는 직접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것의 연구 해결을 위한 《조선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가 나오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 문'자 개혁의 력사에서 새 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금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이 분야에서의 고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며, 각국 문'자 창제 및 문'자 개혁 사업의 경험을 참작하면서 집체적 력량을 기우려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 시경 선생이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제창한 문'자 개혁에 관한 사상은 계승 발전되여, 인민 정권하의 오늘에 와서는 당과 정부의 직접적인 옳은 지도와 깊은 배려 밑에 국가적인 연구 사업으로 되여 연구의 완성화에로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문'자란 음성 언어의 공간상 및 시간상 부족점을 보충하여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왔다. 이는 사람들의 교제 생활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해당 언어의 특성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기 체계를 완성 및 발전시켜 왔다. 문'자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변화의 성격, 속도 등에서 다른 현상들과 일정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의 자체 성격상 언어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게 되느니만큼 변화하게 된다.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들이 변화하여 온 것처럼 우리 문'자도 500 여년 전에 만들어진 후 그의 체계에 있어 현저한 변화를 입었다.

오늘 우리 문'자는 개혁하여야 할 력사적 단계에 오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 문제가 당면적인 절실한 문제로 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내'적으로는 우리의 문'자 및 그의 철자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외'적인 원인, 즉 우리 언어의 발전 및 우리 나라의 문화 기술적 및 사회적 발전과 관련되여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문화 기술적 및 사회적 발전과의 관계에서 오는 원인은 크다.

무릇 문'자는 그가 사람들 사이의 교제 수단인 음성 언어의 보조적 수단이란 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로는 언어를 정확하게 충실히 전달하여야 할 측면이며, 둘째로는 그가 될 수 있는 한 교제에 편리하여야 할 측면이다.

력사적 견지에서 문'자의 발달을 볼 때, 문'자는 회화 문'자에서 표의 문'자에로, 또한 이로부터 음절 문'자, 자모 문'자에로 해당 언어 구조를 전달하기 알맞게, 그리고 교제나 실지 사용에 편리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둘째 측면은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빈번해지면 질수록 더욱 커진다. 그것은 글을 주고 받는 일이 복잡해지고 문'자가 인민 대중에 보급될수록, 배우기 쉽고, 쓰고 읽고 출판하기에 편리한 문'자를 더욱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례컨대 중국어의 언어 구조에 알맞게 발전하여 온 오랜 력사를 가진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서 자모 문'자에로 이행하기 위한 문'자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어 구조에 적합하게 발달한 음절 문'자인 《가나자》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모 문'자에로 이행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은 이를 말하여 준다.

문'자에서의 이 두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문'자를 자모 문'자에로 이끌어 가고 있다.

자모 문'자 류형이라 하여 모두 두 측면을 만족시켜 주는 문'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문'자

가 우수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어음 체계에 잘 대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의(문'자로서 있기 위한 가치—표음 문'자에서는 그 문'자가 표시하는 어음)와 자형이 합리적이며, 철자법이 자모 문'자의 성격을 살리는 것으로 되며, 형태주의 원칙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시에 현대 선진적인 기계들을 리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우리의 문'자는 자모 문'자 류형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어음 체계에 잘 대응한다. 비록 자모들을 음절식으로 철자하는 조건하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능히 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를 정확하게 충분히 전달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음절적 철자는 오늘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왔다. 이 면에서 볼 때 문'자의 기본적인 역할인 제 1 측면의 역할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서사 생활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서 문'자의 제 2 측면이 전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사회적 환경하에서 불합리한 철자와 자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모 문'자를 음절식으로 철자하는 모순성은 크다. 우리 자모 문'자는 불합리한 철자로 인하여 음절 문'자의 지위에 전락케 되였다. 비록 우리 문'자가 세계의 수많은 문'자들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창제 원리에 의해서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지고, 자형이 좋고, 어음 체계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문'자의 우수성 전체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실지 교제의 편리성을 떠나서 그 문'자를 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음절식 철자 원칙은 그 같이도 훌륭한 우리 문'자를 만든 사람들 자체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일정한 사회적 제약성에 기인하는 것이였다.

봉건 경제와 사회적 분산성이 지배하는 당시에 있어서는 오늘 같이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긴밀치 못하고, 문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어려운 한문이 나라의 공식적 글로 뿐만 아니라 글을 주고 받는 모든 면에 사용되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우에서 말한 문'자의 제 2 측면이 그리 날카롭게 문제로 되지 않았다.

한'자 생활에 젖어 있었고, 붓으로 서사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우리 문'자를 한'자의 방형과 음절성에(한'자의 자형은 모난 틀 안에 들도록 되고 한 자 한 자가 한 음절을 나타낸다) 모방하여 그와 같은 방형으로 되는 음절 철자의 원칙의 규정을 내리게 되였던 것이다. 그 음절적 철자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음절의 첫소리인 자음자는 음절의 가운데 소리인 모음의 우 또는 왼쪽에 쓴다.

(례: 가, 서, 고, 수, 프 등)

2), 모음자는 자형에 따라, 즉 가로 길게 긋는 획이 있는 것(ㅡㅗㅛㅜㅠ 등)은 음절 첫소리인 자음자 아래 쓰고, 길게 내리 긋는 획이 있는 것(ㅣㅏㅓㅑㅕ 등)은 그 오른쪽에 쓴다(례 : 고기).

3), 음절의 끝 소리인 받침은 음절의 첫소리 자와 가운데 소리 자 아래 쓴다(례 : 군, 업).

이 기본 원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자모 문'자로서의 우리 문'자를 자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음절 문'자의 지위에 떨어뜨렸으며, 자형의 더 한층의 완성을 방해하였으며, 오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 문'자의 음절적 철자로부터 오는 결함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문'자의 음절적 철자는 독서 능률을 저하시킨다.

첫째로, 그것은 단어를 음절마다 띄여 쓰는 데 있다.

문'자에 있어 정확하게 빨리 읽게 하는 면에서 자모들의 련결 방식은 큰 의의를 갖는다. 자모들을 소리 내는 순서에 따라 계속 잇달아, 띄지 않고 쓰는가, 또는 음절마다 띄여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태부마다 띄여 쓰는가, 또는 단어마다 띄여 쓰는가 등 문제는 독서의 정확성과 그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들 여러 방식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단어마다 단위로 띄여 쓰는 형식이다.

자모들을 잇달아 쓸 때, 무엇을 기준으로—언어의 어음적 단위들을 기준으로 띄여 쓰겠는가, 또는 언어의 유의미적 측면을 기준으로 띄여 쓰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두 방향에 있어 후자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언어란 어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음이란 사유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띄여 쓰기는 사유의 단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며 동시에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면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음절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어음적 단위이지 사유의 단위는 아니다. 음절마다 띄여 쓰면 음절 별로 읽기는 쉬우나 요긴한 언어의 기본 목적인 사유의 전달의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의 철자법은 이 음절 묶음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잇달아 썼다. 이 방식은 글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음절들을 다시 단어별로 띄여 쓰는 방식이 결합하여 결국 음절-단어식 띄여 쓰기로 발전하였다.

때문에 현재 우리 띄여 쓰기에는 음절식 띄여 쓰기 원칙과 단어식 띄여 쓰기의 두 원칙이 결합되여 작용하고 있다. 음절적 철자를 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최고도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은 과거 단어식 띄여 쓰기 원칙이 결합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히 독서 능률을 높여 주며 사유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여 준다.

자모들을 잇달아 씀에 있어 띄여 쓰는 방식 가운데에는 자모들을 완전히 단어 단위별로 쓰는 방식도 있다. 이것은 자모-단어식 띄여 쓰기라 할 수 있다(략해서 단어식 띄여 쓰기로)

그러면 음절-단어식 띄여 쓰기와 자모-단어식 띄여 쓰기는 독서의 정확성과 능률의 면에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이는 구체적 언어 구조의 특성에 비추어서 해결될 문제이며, 일반론적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 표기에 있어서는 자모-단어식 띄여 쓰기가 월등하게 좋다. 그것은 음절-단어식 띄여 쓰기에 있어서는 요긴한 단어의 표기가 음절마다 띄여져서 분산됨으로 산만하여 단어의 지각에 있어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 장애로 된다. 이에 반하여 자모-단어식 띄여 쓰기에 있어서는 단어의 표기가 어떤 다른 것으로 분산되지 않고 자모들이 서로 밀착하여 있기 때문에 단어는 하나의 긴밀한 통합체로서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실지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자모 한 자 한 자 분석적으로 읽지는 않는다. 물론 처음에 자모 교육을 받을 때는 한 자 한 자 배우고, 또 좀 숙련되지 않았을 때는 떠듬 떠듬 읽는다. 그러나 좀 숙련만 된다면, 이 숙련과 문맥의 힘이 독서에 크게 작용한다.

동일한 단어, 동일한 형태부들은 항상 동일한 일정한 문'자들의 결합으로, 묶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해서 자주 눈에 띄울수록 그 단어, 형태부들은 더욱 빨리 통일적으로 파악케 된다.

그림 1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울밀대》, 《사회주의》는 항상 일정한 통일적인 결

합체로서 지각하게 된다.

례: (1) 명사의 말몸 (어간) 부문에서(그림 1 참조)

그림 1

《사람》은:		《울밀대》는:		《사회주의》는:	
(사람이)	ㅅㅏㄹㅏㅁ ㅣ	(울밀대가)	ㅜㄹㅁㅣㄹㄷㅐ ㄱㅏ	(사회주의가)	ㅅㅏㅎㅚㅈㅜㅢ ㄱㅏ
(사람의)	ㅅㅏㄹㅏㅁ ㅢ	(울밀대의)	ㅜㄹㅁㅣㄹㄷㅐ ㅢ	(사회주의의)	ㅅㅏㅎㅚㅈㅜㅢ ㅢ
(사람에)	ㅅㅏㄹㅏㅁ ㅔ	(울밀대에)	ㅜㄹㅁㅣㄹㄷㅐ ㅔ	(사회주의에)	ㅅㅏㅎㅚㅈㅜㅢ ㅔ
(사람을)	ㅅㅏㄹㅏㅁ ㅡㄹ	(울밀대를)	ㅜㄹㅁㅣㄹㄷㅐ ㄹㅡㄹ	(사회주의를)	ㅅㅏㅎㅚㅈㅜㅢ ㄹㅡㄹ
(사람으로)	ㅅㅏㄹㅏㅁ ㅡㄹㅗ	(울밀대로)	ㅜㄹㅁㅣㄹㄷㅐ ㄹㅗ	(사회주의로)	ㅅㅏㅎㅚㅈㅜㅢ ㄹㅗ
(사람에서)	ㅅㅏㄹㅏㅁ ㅔㅅㅓ	(울밀대에서)	ㅜㄹㅁㅣㄹㄷㅐ ㅔㅅㅓ	(사회주의에서)	ㅅㅏㅎㅚㅈㅜㅢ ㅔㅅㅓ

그림 2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 《에서》와 《에서도》는 항상 일정한 통일적인 결합체로서 지각하게 된다. 토들을 말몸에 붙여 쓰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에서 형태 《민》, 《자》 《공》 자들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개념을 표시하는 형태가 동일한 문'자 결합으로 일정하게 표기됨으로서 단어 전체의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토의 부분에서 (그림 2 참조)

그림 2

	《에서》는	《에서도》는
(국)	ㄱㅜㄱ ㅔㅅㅓ	ㄱㅜㄱ ㅔㅅㅓㄷㅗ
(교실)	ㄱㅛㅅㅣㄹ ㅔㅅㅓ	ㄱㅛㅅㅣㄹ ㅔㅅㅓㄷㅗ
(논)	ㄴㅗㄴ ㅔㅅㅓ	ㄴㅗㄴ ㅔㅅㅓㄷㅗ
(수도)	ㅅㅜㄷㅗ ㅔㅅㅓ	ㅅㅜㄷㅗ ㅔㅅㅓㄷㅗ
(시험장)	ㅅㅣㅎㅓㅁㅈㅏㅇ ㅔㅅㅓ	ㅅㅣㅎㅓㅁㅈㅏㅇ ㅔㅅㅓㄷㅗ
(하늘)	ㅎㅏㄴㅡㄹ ㅔㅅㅓ	ㅎㅏㄴㅡㄹ ㅔㅅㅓㄷㅗ
(흙)	ㅎㅡㄹㄱ ㅔㅅㅓ	ㅎㅡㄹㄱ ㅔㅅㅓㄷㅗ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음절마다 띄여야 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1)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 단어의 형태부의 의미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서 리해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부들이 어떤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 없이 단어 전체의 어음의 결합체를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례컨대 《선생》, 《학생》, 《학교》, 《공장》, 《공원》, 《할아버지》, 《오빠》, 《구름》, 《송아지》라 할 때 일일히 어원을 캐서 이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음 결합체 전체를 통해서 그 단어가 표시하는 개념을 안다. 이것은 실지 조선어의 형태부 또는 어원에 대한 지식 없이도 훌륭히 말을 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하다.

2) 조선어의 단음절 형태부가 한'자 어휘를 비롯하여 고유 조선어에도 많기는 하나 고유 조선어 단어의 형태부는 두 음절 이상의 형태부로 구성된 것이 많다. 《아버지》, 《호랑이》, 《진달래》, 《다리》, 《에서》, 《지마는》 등등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것은 음절별로 띄는 것에

(3) 말몸(어간)의 형태들에서 (그림 3 참조)

그림 3

형태《민》은		형태《자》는		형태《공》은	
(민법)	ㅁㅣㄴㅂㅓㅂ	(자기)	ㅈㅏㄱㅣ	(공사)	ㄱㅗㅇㅅㅏ
(민족)	ㅁㅣㄴㅈㅗㄱ	(자동차)	ㅈㅏㄷㅗㅇㅊㅏ	(공업)	ㄱㅗㅇㅓㅂ
(민주주의)	ㅁㅣㄴㅈㅜㅈㅜㅢ	(자서전)	ㅈㅏㅅㅓㅈㅓㄴ	(공작)	ㄱㅗㅇㅈㅏㄱ
(공민)	ㄱㅗㅇㅁㅣㄴ	(자연)	ㅈㅏㅕㄴ	(공장)	ㄱㅗㅇㅈㅏㅇ
(공민증)	ㄱㅗㅇㅁㅣㄴㅈㅡㅇ	(자주)	ㅈㅏㅈㅜ	(경공업)	ㄱㅕㅇㄱㅗㅇㅓㅂ
(시민)	ㅅㅣㅁㅣㄴ	(자체)	ㅈㅏㅊㅔ	(중공업)	ㅈㅜㅇㄱㅗㅇㅓㅂ
(인민)	ㅣㄴㅁㅣㄴ	(각자)	ㄱㅏㄱㅈㅏ	(목공)	ㅁㅗㄱㄱㅗㅇ

완전히 상반된다.

3) 읽음에 있어서도 항상 씌워진 그 음절별로 읽는 것은 아니다. 어음들은 호상 련쇄에서 이러저러한 결합적 변화와 련음, 절음 현상들을 보게 된다.

음절 철자에 있어서는 그것이 형태주의 철자 원칙에 있을 때에는 발음과는 일정한 모순에 있게 된다.

례컨대 《할아버지》, 《발음》에서 실지 발음은 《하라버지》, 《바름》으로 된다. 이것도 개혁하여 《ㅎㅏㄹㅏㅂㅓㅈㅣ》, 《ㅂㅏㄹㅂㅁ》으로 표기하면 단어는 통일적으로, 발음은 제 순서 대로 모순 없이 될 수 있다.

이 곳에 동음 이의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음절적 철자를 하면, 동음 이의어 가운데서 일련의 단어들, 례컨대 《구경(求景)》과 《국영(國營)》; 《반드시》와 《반듯이》 등이 철자상 차이가 없어지고 철자에서도 완전히 같게 《ㄱㅜㄱㅕㅇ》, 《ㅂㅏㄴㄷㅂㅅㅣ》 등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조선어 어휘 구성에서 불과 몇 단어밖에 안되며, 그것도 문맥의 힘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식별될 수 있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도 완전한 자모-단어식 띄여 쓰기로 넘어 가는 것이 독서 능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절적으로 철자하지 않으면, 형태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이에 모순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형태주의 철자 원칙이란, 각 형태부들의 어음적 상태가 련쇄된 어음 현상에서 비록 변화한다 하더라도, 본 상태 대로 적어 그 형태부를 늘 고정된 일정한 모양으로 표시하며, 나아 가서는 단어 전체가 늘 일정한 고정된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리 문'자에 일종의 뜻 글'자의 장점을 합하는 것으로서 독서 능률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다.

현재 도달된 음절 철자에서의 형태주의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도로 발전케 되여 독서 능률을 더욱 높인다.

례컨대 《맏누이》, 《천리》, 《학문》, 《얼음》은 발음에서 〔만누이〕, 〔철리〕, 〔항문〕, 〔어름〕으로 동화 또는 련음 현상을 일으켜 변화하나, 자모식 철자에서는 현 음절적 철자에서의 형태주의처럼 형태부를 파괴하지 않고 《ㅁㅏㄷㄴㅜㅣ》, 《ㅊㅓㄴㄹㅣ》, 《ㅎㅏㄱㅁㅜㄴ》, 《ㅓㄹㅂㅁ》과 같이 적는다. 만일에 소리 나는 대로 《ㅁㅏㄴㄴㅜㅣ》, 《ㅊㅓㄹㄹㅣ》 등으로 적는다면 이는 형태주의 철자법 원칙에 모순된다.

자모식 철자는 형태주의 원칙을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어는 긴밀한 전일체로 표시되여 읽음에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독서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다.

둘째로, 음절적 철자는 자획상 너무 복잡하며, 자형상 명확성이 적어서 독서 능률을 저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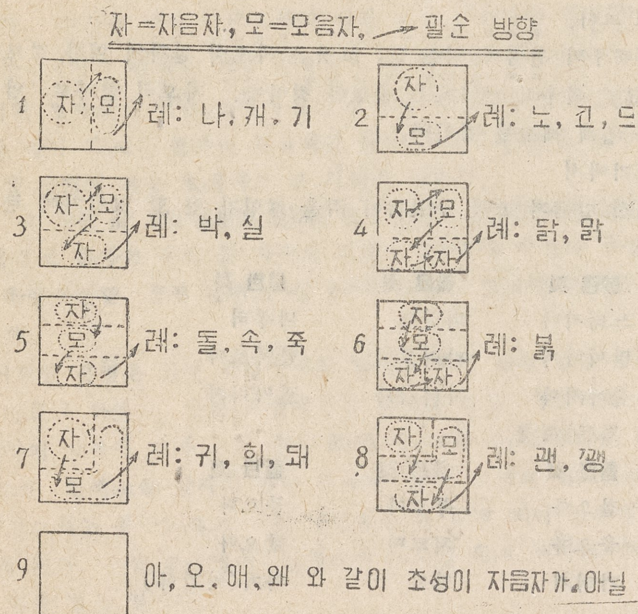
음절 철자는 자획이 많은 것은 14~15 획까지 나가며, 인쇄한 작은 활자가 뭉그러지기 쉽다. 타자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작은 활자의 인쇄에 있어 받침들의 《ㄹ》와 《ㅌ》, 《ㅁ》와《ㅂ》, 《ㅈ》과 《ㅊ》, 자호들의 기타 음절적 련결에서 《호》와 《호》, 《으》와 《오》, 《ㅍ》와 《ㅍ》 등은 서로 혼동되기 쉽다.

필기에 있어서 《느》와 《노》, 《르》와 《로》, 《러》와 《러》, 《이》와 《어》, 《의》와 《외》, 《희》와 《회》, 《게》와 《개》 등도 서로 혼동하기 쉬워 독서 능률을 저하시킨다. 이런 혼동을 없애고 독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문'자 개혁은 필요하다.

2. 음절적 철자는 필기 능률을 저하시킨다.

자모들을 음절별로 묶을 때 그 자모들의 결합 양식 및 쓸 때의 필순을 분석하여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왼쪽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필순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러 번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며 공결음을 하고 있다.

례컨대 《닭》자를 쓰려면, 펜을 왼편 우로 향하여 《ㄷ》을 쓰고, 다음 오른편 우로 돌려 《ㅏ》자를 쓰고, 다음 방향을 완전히 돌려 아래 왼편에 《ㄹ》을 쓰고, 오른편 아래로 돌려 《ㄱ》을 쓴다. 이것을 《ㄷㅏㄹㄱ》과 같이 왼편에서 바른편으로 차례로 써 가면, 펜을 한 방향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통하여 빨리 쓸 수 있다. 특히 개혁으로 초서체가 나오게 되면 더욱 쓰기에 빨라지리라는 것은 틀림 없다. 이 얼마나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게 될 것인가!

또한 가로 쓰기로의 이행은 음절적 철자에서 제기되는 자모들의 배치를 고루게 하기에 힘들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3. 음절적 철자는 학교 교육에서 많은 장애로 되여 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자모들을 음절별로 묶어 쓰는 여러 가지 특수한 방법을 가르치며, 또한 이에 토대하여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는 관계로 교수 효과, 교수 시간, 교수 방법에서는 물론, 학생들의 지능 발전에 있어 큰 장애로 되여 있다.

인민 학교의 어린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음절 철자 방식과 규칙을 깨닫기 힘드므로 결국 음절 묶음 하나 하나를 개별적 문'자처럼 통채로 암기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된다. 이런 사실은 성인들의 자모 교육시에도 보는 바다.

이런 결과는 학교에서 자모 교육 시간을 많이 허비케 한다. 현 인민 학교 1학년에서 자모 교육을 위한 기간은 4 개월로 잡고 있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배우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짜르며, 교수자들로부터는 자모 교육에 1년은 들여야 한다고 한다.

자모 문'자를 쓰는 다른 나라들에서 자모 교육은 4개월 안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음절 철자 때문에 그의 몇 배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것은 다른 과목 학습에 직접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직 음절 철자도 채 다 깨닫지 못한데다 다른 과목들을 겹쳐 배우게 되므로 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되며, 그들의 지능 발전에도 장애로 된다.

한편 교수자의 교수 방법적 면에서도 자모 교육상 더 선진적인 교수 방법을 도입할 수 없게

하여 교수 효과를 더 올리지 못하게 한다. 음절 철자가 교육상 주는 장애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철자법 습득을 아주 힘든 것으로 만든다. 오늘 인민 학교는 물론, 중학 내지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도 철자법을 완전히 제대로 지켜 쓰는 사람이 적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철자법을 옳게 지켜 쓰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지만, 음절식 철자에 의한 철자법에서 오는 원인도 크다.

음절식 철자에 의한 철자법이 형태주의 원칙에 서는 한, 그것은 자모식 철자에 의한 것보다 복잡하게 된다. 규정이 복잡할수록 실지 외우고 쓰기에는 불편한 것이다. 자모식 철자로 넘어간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곧 쉽게 해결될 것이다.

1). 말몸(어간)과 토의 표기에서

(1). 오늘의 언어 의식에 비추어서 말몸과 토를 구별하여 적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것들.

례: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늘어지다	느러지다	더불어	더부러
말미암아	말미아마	바라보다	밝아보다
부러지다	붙어지다	자라나다	잘아나다

(2), 말몸과 토의 한계를 가르기 힘든 것들.

례: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거르다	걸으다	부르다	불으다
오르다	올으다	치르다	칠으다
기러기	기러기	악아	아가(아기야)

2), 합성어의 표기에서

례: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며칠	몇일	오라버니	올아버니
이틀	읻흘	할아버지	하라버지

3),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에서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될 때, 어근과 접미사를 따로 따로 밝히는 경우와 안 밝히는 경우는 서로 혼동되기 쉽다.

례: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걸음(步)	거름	길이	기리
깊이	기피	개구리	개굴이
너무	넘우	도로	돌오
동그라미	동그람이	무덤	묻엄
반드시(必)	반듯이	살림살이	살림사리
삼발이	삼바리	슬며시	슬몃이
주검	죽엄	지붕	집웅
깍두기	깍둑이	깎이다	까끼다
피끄리	피끌이	쓰레기	쓸에기
얼루기	얼룩이	얼음	어름
웃음	우슴	일찌기	일찍이

이 밖에도 쉽게 해결될 것들이 수다하다. 음절 철자는 철자법 규정을 복잡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자법상 규범을 깨뜨리는 원인의 하나로 되였다. 음절 철자는 형태주의 철자법 원칙에 아주 모순되게 단어를 음절별로 분배하여 분산적으로 적게 한다.

단어들이 일정한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되지 못하고 늘 음절 묶음들의 집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쓸 때에도 늘 고정된 규범적인 형태로 쓰지 못하고 이러저러하게 모양을 달리 하게 된다. 그것은 단어 전체로서의 어떤 고정된 긴밀한 일정한 형태를 머리 속에 고착시키지 못하고 분산적이며 긴밀치 못한 음절별로 된 형태를 재생시키며 쓰려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띄여 쓰기에서도 심하게 작용하여 규범성을 잃게 하는 수가 많다.

이 같이 자모식 철자는 직접적인 학교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서사 생활 일반에 있어 규범성을 잘 지키게 하는 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4. 우리 문'자의 음절적 철자는 인쇄 사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음절적 철자는 우리 문'자수를 사실상 3000 자 이상의 음절자로 되게 하였다. 우리 언어에 있는 음절수만큼 음절 단위로 된 문'자 묶음도 있어야 하니까, 그의 수는 음절수와 같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인쇄 사업에서의 활자에 직접 관련 있는 것이며, 활자수도 3000 자[주1] 이상으로 만들게 하였다. 인쇄 사업에서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서 4호, 5호, 9뽀인트 등 활자의 규격에 따라 그의 수는 6000 자, 9000 자, 12000 자, 15000 자 등으로 자꾸 늘어 나는 것이므로 인쇄소는 활자의 산을 이루게 된다. 보통의 인쇄소는 이러한 각 종류의 활자를 한 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므로 그의 수십배를 더 갖게 되여 실제에 있어 인쇄소는 활자의 산으로 메워지게 된다. 오늘 조선에서 인쇄소의 크기를 활자 케이스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리유 있는 일이다.

이 음절 철자는 출판 과정을 복잡하게 하여 자모 → 주조 → 문선 → 식자 → 교식(식자와 교식은 합하여 조판이라고 함) → 지형 → 연판 → 인쇄 → 제책의 각 직장들을 필요로 하게 하며, 이에 따라 많은 로력과 시간, 많은 설비와 경비를 필요로 하게 한다.

이 음절식 철자에서 자모식 철자에로 넘어 가기만 하면 우리도 인쇄 사업에 선진적인 기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여 인쇄 사업을 대혁신시킬 수 있다.

우선 리노찌쁘라는 자동 인쇄 타자기는 복잡한 인쇄 과정을 극히 간소화하며 막대한 로력과 시간, 자재와 경비를 절약하게 할 것이다. 이 기계는 길이 1m 60cm, 너비 1m 60cm, 높이 2m, 무게 1t 900kg 정도의 것으로서, 보통 타자기와 같이 혼자 앉아서 타자 단추만 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주조, 문선, 식자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리하여 주조, 문선, 식자에 필요한 많은 로력과 자재가 절약되며 출판 시일을 아주 단축시킬 수 있다. 우의 공정 뿐만 아니라 륜전기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지형과 연판 공정도 완전히 없앨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기계를 사용한다면 혼자서라도 능히 주간 신문을 발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닌가!

다음에 례를 들어 문'자 개혁후 리노찌쁘를 사용하는 것과 오늘의 인쇄와를 대비해 보자.

오늘의 인쇄에 있어서는 고중 2학년용 《문학》 교과서(국판, 5호 활자, 319 페지, 1955년 발

[주 1] 교육 도서 출판사 인쇄 공장에서 쓰는 우리 문'자의 음절 활자수는 총 3231 자이며, 그 중 많이 쓰이는 것은 362자, 적게 쓰이는 것은 497자, 아주 적게 쓰이는 것은 2 372 자다.

비고: 인쇄 출판 관계 자료는 교육 도서 출판사 인쇄 공장과 국립 종합 인쇄 공장에서 얻은 것이다.

행)를 하나 박기에는 다음과 같이 로력과 시일이 걸린다. 교과서의 전체 활자수를 226 490자로 치면,

(1), 주조 : 6,5일 (1일 1인당 기준 책임량 34 560자)
(2), 문선 : 24,1일 (〃 〃 〃 〃 9 400자)
(3), 식자 : 16,8일 (〃 〃 〃 〃 19 페지)
(5호 활자 기준)

우와 같이 주조, 문선, 식자에서 총 47,4일 걸린다.

리노찌쁘를 사용하게 되면 음절을 풀어 쓰게 되니까, 자모수가 대체로 2,5배로 느는 것으로 보아 활자수가 총 566 225자로 된다. 리노찌쁘는 하루 한 사람 책임량이 75 000자이므로 7,55일 걸린다. 다시 말하면 리노찌쁘로는 주조, 문선, 식자 전 과정이 7,55일 걸린다.

이것은 리노찌쁘의 사용이 오늘의 음절적 철자에 의한 인쇄보다 6,2배나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로력도 그만큼 덜 든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여기다가 지형, 연판 과정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지형에 4,1일, 연판에 6,9일 합계 11일 더 빠르며 총체적으로 보면 7,7배나 빠른 것으로 된다.

우의 계산에서는 이들 공정에서 필요한 보수적 로력과 사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판 비용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선 그 방대한 활자의 산이 없어도 좋게 되며 실로 많은 자재들이 절약된다. 자모, 주조, 지형, 연판 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약된다.

우에서 본 것은 한 종류의 교과서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작년 1년 동안에 발행된 출판물의 부수를 보면,

	부 수
도 서	14,420,000
잡 지	18,120,000
교 과 서	12,830,000
신 문	174,100,000

이 표와 같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문'자 개혁이 출판 인쇄 사업과 관련하여 로력적 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국가에 주는 리익이란 실로 크다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로력과 시간 및 경비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자 개혁은 우리 출판 인쇄 사업을 선진적인 기술로 더 한층 무장시킬 수 있게 하며, 힘든 일을 문화적인 쉬운 일로 만들며, 아울러 더 문명한 선진적인 기계들을 더욱 인쇄 사업에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자수가 많다는 것은 타자기의 광범한 사용의 결정적 장애로 되여 있다.

서사 생활에서 공문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글을 주고 받는 일에서 글은 정확하고 깨끗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그리고 틀림 없이 리해하도록 하는 것이 리상적이다. 그런데 타자기는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모 문'자에 의한 타자기에 있어서는 (례, 로문 타자기, 영문 타자기) 쓰는 것보다도 더 빨리 찍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찍부터 타자기가 광범히 보급되여 생활 필수품처럼 되여 있다. 로문 타자기나 영문 타자기에는 타자 단추가 40~50안팎으로 되여 있으므로 기계는 아주 간단하며 선생 없이도 혼자서 배워 칠 수 있다. 점차 숙련함에 따라 열 손가락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영문 타자기에 있어 타자 기능 있는 사람이면 매분 120~200자, 따라서 시속 7 200~12 000자를 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 6배나 빠른 것으로 된다(한 시간에 2000 자 쓰는 것으로 계산하여). 뿐만 아니라 이들 타자기로는 동시에 약 6매까지도 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타자기의 크기는 작은 것에 있어서는 너비 28cm, 길이 15cm, 높이 6cm, 무게 3,5kg 정도여서 가지고 다니기도 아주 편리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타자기는 활자 수의 많은 것으로 인하여 자연히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평판 타자기다. 이것은 구라파의 보통 타자기의 구조와는 달리 타자 단추가 없고, 기계 아래에 그 많은 활자를 배렬한 평평한 활자 판 우를 앞뒤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활자를 한 자 한 자 뽑아 타자한다. 때문에 타자하는 사람이 무척 피로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평판 타자기를 10 여년 다루어 온 동무의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보통 1 시간에 1350 자를 칠 수 있으며, 아주 빨리 친대야 2 000자를 더 넘지 못한다. 영문 타자기 12000 자에 비하면 거의 10000 자 즉 5배나 떨어지며, 손으로 쓰는 것과 별반 차이 없다. 오늘 활자가 음절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2,5배로 보아 5000 자 치는 폭으로 되며, 그래도 7000 자가량 떨어진다.

또한 이 타자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3~4 개월이나 걸린다. 이것의 크기는 너비 59 cm, 길이 51cm, 높이 25cm 무게는 32kg나 되니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다.

이 결함을 어느 정도 고쳐 보려고 노력이 기우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원통 타자기, 자모—음절식 타자기 등이 나오고 있다. 원통 타자기는 평판 타자기의 활자판인 평판을 둥굴게 하여, 돌리면서 타자하게 된 것으로서, 기타는 평판 타자기의 원리에 립각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리용 가치가 적으며 더 연구 중에 있다.

자모-음절식 타자기는 자모 하나 하나를 타자하여 음절자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서 원리는 단추 있는 보통 구라파에서 쓰는 타자기의 원리와 같다. 이 타자기의 결함은 찍어 놓은 글'자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고 보기 흉하다.

이제 이것으로 타자한 례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5.1절을 증산으로 맞이하자!

봄날의 명절이며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의 명절인 5.1절은 가까와 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간편하고 대중성 있는 타자기로 넘어 가려면 역시 음절자로부터 자모식 철자에로 넘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세상에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 발달한 타자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기 타자기, 맹인 타자기, 구전 타자기, 속기 타자기, 자동 타자기 등이 그러하다.

출판 인쇄 사업, 타자기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신 사업에서도 풀어서 가로쓰기는 절실하다. 우리의 음절자 3000 자 이상에 일일히 전신 부호를 정한다는 것은 실제상 곤난하다. 때문에 전신 사업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문'자 개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풀어서 가로쓰기로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실제상 받는 리익과 편리란 실로 크다.

과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멈출 줄을 모른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기계가 나와도 우리는 이를 서사 생활에 도입하기 힘들 것이며, 다른 나라의 앞서 가는 문화 발전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유한 민족적인 훌륭한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자 방식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출판 인쇄 사업의 기술적 혁신, 타자기의 대중화 및 기타 문명의 리기의 서사 생활에로의 도입 문제는 어떤 국한된 적은 집단에 관계 되는 일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일상적 서사 생활과 우리 조국의 강력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다.

❊ ❊ ❊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음절식 철자는 우리의 우수한 자모 문'자를 서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없게 하는 속박물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속박물을 해체시키고 우리 문'자가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일찌기 주 시경 선생이 가르친 바와 같이 풀어서 가로쓰기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의 기본 방향

우리 나라에서의 문'자 개혁 사업은 자모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의 전통적인 우수한 민족적 문'자를 가진지 이미 오래며, 이를 높은 긍지감을 가지고 자랑한다.

우리 문'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철자에 있어 기본 결함이 있는 외에 자형 및 언어 체계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어떤 문'자에도 못지 않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자를 다듬어서 더욱 발전시켜 개혁하게 된다면, 인민들의 서사 생활에 가장 알맞는 문'자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위한 연구 사업은 주 시경 선생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자를 토대로 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현재 《조선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에 보내 온 개혁안들도 절대 다수가 우리 문'자를 토대로 하여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문'자에는 가로 글로 넘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물론 있다.

그 가능성은 첫째로, 우리 문'자가 자모 문'자이며 우리 언어의 어음 체계에 기본적으로 잘 대응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 글을 풀어서 가로쓰기로 넘어 가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자모 문'자란 언어의 개별적 음들을 표시하는 문'자로서, 매개 언어에 있어 그 수효는 해당 언어음만큼 있으면 되니까, 대체로 40자 안팎으로 그 수는 한정된다. 이러한 조건은 자모식 철자를 하는 나라들에서 인쇄나 필기를 손 쉽게 하여 준다.

우리 문'자도 자모 문'자로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어음 체계에 잘 대응하여 모든 어음을 자유로히 적어 낼 수 있다.

조선어 어음 체계는 잘 분화하여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나라 언어의 어음 체계와는 현저한 특이성을 보여 준다.

그 특성의 하나는 우리 어음 체계에서 순한 소리, 된 소리 및 거센 소리의 계렬들이 호상 관련을 가지면서 분화 발전하여 어음 체계는 《삼위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2	3	보충	
	위치	양식	순한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발음 양식	자모
1	뒤'입 천장 소리	파렬음	ㄱ	ㄲ	ㅋ	코'소리 뒤'입 천장 소리	ㆁ
2	혀끝 소리	파렬음	ㄷ	ㄸ	ㅌ	코'소리 (혀끝 소리)	ㄴ
		마찰음	ㅅ	ㅆ			
		파찰음	ㅈ	ㅉ	ㅊ		
3	량입술 소리	파렬음	ㅂ	ㅃ	ㅍ	코'소리 (량입술소리)	ㅁ

모음에서도 극히 다양하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그리고 중성 모음으로 분화 발전하였으며, 홑 모음만 쳐도 10 개나 된다. 특히 조선어에는 단어들의 분화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는 받침 소리들(내파음)이 발전하였다.

이 모든 어음들이 우리 문'자로 훌륭히 합리적으로 표시된다. 뿐만 아니라 〔ㅑ〕, 〔ㅕ〕, 〔ㅛ〕, 〔ㅠ〕, 〔ㅒ〕, 〔ㅖ〕의 어음도 간단하게 한 개 문'자로 ㅑ, ㅕ, ㅛ, ㅠ, ㅒ, ㅖ로 표시되며, 이는 실제 언어의 표기에 아주 간단하고 알맞는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문'자도 우리 문'자만큼 훌륭히 우리 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란 없다.

매개의 문'자 체계는 그 나라 말을 적기에 알맞게 발달하였다. 우리 어음 체계에서 분화 발달한 어음이 다른 나라 어음 체계에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어음 체계에서 발달한 어음이 우리 언어에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문'자 체계도 그 언어의 표기에 알맞게 발달한다. 또한 문'자란 일정한 규범성을 갖고 언어보다 뒤에 변화하며 일정한 보수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문'자는 어음수보다 적게 되여 있을 수 있다.

이제 언어의 어음 체계의 면에서 보아 로마자나 로씨야 문'자로 우리 말을 적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로마자에서는 총 26 자 중 20 자(ㄱ~g, ㄴ~n, ㄷ~d, ㄹ~r, ㅁ~m, ㅂ~b, ㅅ~s, ㅈ~ʒ, ㅋ~k, ㅌ~t, ㅍ~p, ㅎ~h, ㅏ~a, ㅗ~o, ㅜ~u, ㅣ~i, ㅔ~e, ㄹ~l, Y~w, 1~j)는 쓸 수 있을 것이나 조선어 어음을 42로 볼 때 22 자는 즉, 52%는 부족하다.

로마자로는 조선의 된 소리 〔ㄲ〕, 〔ㄸ〕, 〔ㅃ〕, 〔ㅆ〕,〔ㅉ〕,거센 소리 〔ㅊ〕, 코'소리 〔ㆁ〕 및 모음에서 〔ㅓ〕, 〔ㅡ〕, 〔ㅐ〕, 〔ㅚ〕, 〔ㅟ〕, 〔ㅢ〕를 비롯하여 〔ㅑ〕, 〔ㅕ〕, 〔ㅛ〕, 〔ㅠ〕, 〔ㅒ〕, 〔ㅖ〕 등의 어음을 표시할 수 없거나 한 개 문'자로는 표기할 수 없다.

로씨야 문'자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로씨야 문'자 총 33 자 중 빌려 쓸 수 있다면, 26 자(ㄱ~г, ㄴ~н, ㄷ~д, ㄹ~р, ㅁ~м, ㅂ~б, ㅈ~з, ㅊ~ч, ㅎ~х, ㄲ~к, ㄸ~т, ㅃ~п, ㅆ~с, ㅉ~ц, ㅏ~а, ㅑ~я, ㅗ~о, ㅛ~ё, ㅜ~у, ㅠ~ю, ㅣ~и, ㅔ~э, ㅖ~е, ㅢ~ы, ㄹ~л, 1~й)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어음을 적기에는 16자, 즉 약 40%나 부족하다.

로씨야 문'자로는 우리 어음의 자음에서 순한 소리 〔ㅅ〕, 코'소리 〔ㆁ〕, 거센 소리 〔ㅋ〕, 〔ㅌ〕, 〔ㅍ〕, 모음에서 〔ㅓ〕, 〔ㅡ〕,〔ㅐ〕,〔ㅚ〕, 〔ㅟ〕 등과 〔ㅕ〕,〔ㅒ〕 등 어음을 표기할 수 없다.

설사 이런 문'자를 빌려다 적는다 하더라도 그 문'자가 나타내는 어음과 우리 어음이 꼭 같지는 않다.

례컨대, 로마자에서의 g, d는 유성적인 〔ㄱ〕, 〔ㄷ〕이지만 우리의 ㄱ, ㄷ자는 무성적이다. 또한 b는 발음 위치나 발음 동작에 있어서도 우리의 ㅂ하고는 거리가 멀다.

로씨야자에 있어서도 ы(ㅢ)는 조선어의 〔ㅡ〕에 가까우며, с(ㅆ)는 〔ㅅ〕에, к(ㄲ)는 〔ㄱ〕에 가깝다. 비슷할 뿐이지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빌려

쓰려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1) 이미 있는 문'자에 어떤 부호들을 첨가해서 표시하는 방법. ㄱ) 문'자의 아래 또는 우에 부호를 다는 방법 : ţ, Ş, Ħ, Ķ, š, ž, č, ū. ㄴ) 문'자에 사선을 긋는 방법 : θ.

(2) 문'자를 가꾸로 놓아 새 음을 부여하는 방법 : ∀(A), ⅁(G), Ⅎ(F), ᴚ(R).

(3)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합해서 한 자로 만들어 표시하는 방법 : β

(4) 두 개 이상의 문'자들을 련결하여 어떤 음을 표시하는 방법 : ch=〔ㅎ〕, sch〔로어음의 ш〕

만일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말을 적는다면 태반이 부호 투성이로 될 것이다. 이것은 문'자의 자형상 가져야 할 자질에 비추어 적당치 않다. 더구나 우리의 고유한 우수한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취하겠는가!

게다가 로마자나 로씨야 문'자로는 조선어의 받침 소리는 표기할 수 없다. 그 나라들의 문'자는 외파의 어음 만을 적는 것으로 되여 있다.

례컨대, 로마자 g는 유성적인 〔ㄱ〕 음을 표시하며 언제나 내파음과는 관계 없다.

이리하여 조선의 《독》을 표시키 위한 dog는〔도그〕로, 《밥》을 표시키 위한 《bab》는 〔바브〕로, 《못》을 표시키 위한 mos는 〔모스〕로 발음된다.

로씨야자에 있어서도 《독》을 표시키 위한 дог는 〔도그〕로, 《밥》을 표시키 위한 баб는 〔바브〕로, 〔못〕을 표시키 위한 мос는 〔모쓰〕로 《꽃》을 표시키 위한 коч는 〔꼬츠〕로 발음된다.

그런데 조선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받침 수만 해도 27(ㅂ, ㅍ, ㅄ, ㄷ, ㅌ, ㅅ, ㅆ, ㅈ, ㅊ, ㄱ, ㅋ, ㄲ, ㄳ, ㅎ, ㄹ, ㄼ, ㄿ, ㄺ, ㄾ, ㄽ, ㅀ, ㄻ, ㄴ, ㄵ, ㄶ, ㅁ, ㅇ)이나 되며, 다른 나라 문'자로 표시키는 극히 곤난하다. 받침 표시를 위한 특수한 부호를 달든가 또는 기타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문'자란 자형과 함께 그가 나타내는 자의, 즉 어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바로 그 나라 문'자들은 내파의 어음과는 관계 없이 형성되였기 때문이다.

우리 문'자는 자기 언어를 적기에 알맞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철자와 자형에 일정한 부족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제후 봉건 지배 계급들과 또한 일제의 갖은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민들의 품 속에서 키워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둘째로, 우리 문'자의 자형에 있어서도 풀어 쓰기에로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형은 그 나라 문'자의 성격을 규정지음에 있어 문'자의 류형과 함께 기본 문제로 된다. 자형은 실제 서사 생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독서, 필기, 인쇄 및 타자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세계 문'자의 발전 력사는 소리 문'자에로의 발전, 문'자 체계의 완성과 함께 자형의 보다 합리화를 위한 력사였다.

로마자 및 슬라브자를 비롯한 세계에 존재하는 소리 문'자는 대반이 그림 문'자의 자형에서 점차 발전하여 오늘과 같은 자형으로 되였다. 때문에 그 근본을 따지면, 이 문'자들은 어떤 사물들의 그림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 문'자의 자형은 그의 제자 원리와 함께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되여 있으며 실생활에 부합된다.

우리 문'자의 자형의 독특한 성격을 기초 짓는 기본 조건은 그의 제자 원리에 있다. 우리 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즉 소여 어음을 발음할 때의 그 기관의 위치 및 동작 동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원칙에서 기본자 : 《ㄱ, ㄴ, ㅁ, ㅅ, ㅇ》의 자음자와 《•, ㅡ, ㅣ》의 모음자를 만들고 이에 획

을 더하는 방법으로 가획자를 만들었다.

문'자를 만듦에 있어 소리 문'자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같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은 합리적이며 독창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는 세상에 우리 문'자 밖에 없다.

이 원리에 따른다면 세계의 그 어떤 어음도 합리적으로 간명한 자형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찌기 김 두봉 선생은 이 면에 착안하고 이 체계를 완성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문'자가 이 같은 원리에 립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형에 있어서도 같은 성질의 어음들의 자형이 서로 명백히 차이 있으면서도 어떤 공통성으로 일관되여 있다. 즉 뒤'입 천장 소리(연구개음)의 문'자 ㄱㅋㄲ; 혀끝 파렬음의 문'자 ㄷ, ㅌ, ㄸ와 혀끝 코'소리 ㄴ; 혀끝 파찰음의 문'자 ㅈ, ㅊ, ㅉ와 혀끝 마찰음의 문'자 ㅅ, ㅆ; 두 입술 마찰음 ㅂ, ㅍ, ㅃ와 두 입술 코'소리 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 기본적 공통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기본 공통성의 기초에 놓인 자가 바로 기본자로 되여 있다.

기본자들 《ㄱ, ㄴ, ㅁ, ㅅ, ㅇ》을 보건대 자형상 서로 완전히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며 자획이 아주 적음을 알 수 있다.

가획자들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듦에 있어 서로 명확하게 차이 나도록 하고, 가획은 기본자에서 순한 소리, 거센 소리 순으로 더하여 가고, 된 소리는 병서의 원칙으로 되여 있다.

모음자들은 기본자 《•, ㅡ, ㅣ》를 토대로 하여 이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조선어 어음 체계의 특성과 모음 조화 체계에서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잘 고려하여 형상적으로 만들었다.

양성 모음은 조선어 언어 생활에 있어 일반적으로 밝고, 얇고, 작고, 표면에 들어 나고, 가벼운 인상을 줌에 반하여, 음성 모음은 컴컴하고, 깊숙하고 넓고 묵직한 인상을 준다.

례 : 노랗다∼누렇다, 만만하다∼문문하다
발갛다∼벌겋다, 캄캄하다∼컴컴하다
말랑말랑∼물렁물렁, 촐랑촐랑∼출렁출렁
탁∼툭, 하하∼허허

이런 것에 비추어 양성 모음 자는 밖 또는 우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ㅏ, ㅑ, ㅗ, ㅛ와 같이 가획하였다. 즉 내리긋는 획의 모음 자에 있어서는 《•》를 《ㅣ》의 바른편——음절칠의 밖에 더하고, 가로 긋는 획의 모음자에 있어서는 《•》를 《ㅡ》 우에 더하였다.

음성 모음자들은 양성 모음자와 상반 되는 자리에 《•》를 더하여 《ㅓ》, 《ㅜ》와 같이 만들었다. 이 얼마나 언어의 특색에 알맞게 문'자를 만들었는가!

이런 원칙에서 된 모음자들도 획이 매우 간단하며, 서로 잘 구별되고 아름답게 보인다.

모음자들과 자음자들을 비교하여 보면 모음자는 모음자 끼리, 자음자는 자음자 끼리 자형상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며, 또한 모음자 계렬과 자음자 계렬도 호상 자형상 구별된다. 이것은 조선어의 어음 현상에서 음절이 반드시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추어 쓰기와 읽기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반드시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풀어 쓰기에 이 문제는 더욱 현실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문'자의 풀어 쓰기에의 가능성은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인 특성에 알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자의 민족적 특성이란 그 문'자에 반영된 그 나라 어음 체계와의 대응 관계, 자형 및 철자상 특성, 그 나라 언어 표기의 합리성 여부, 그 나라 인민들의 사용상 편리 여부에 의해서 규

정된다.

우리의 문'자 개혁에서 자기 문'자를 토대로 해야 하겠다는 리유는 바로 우리 문'자가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옳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창제되고 그것이 오랜 력사를 지니고 사용되여 왔다는 데서 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체계나 자형에 있어서 우리 언어의 특성에는 물론, 실제 서사적 교제 생활에 그 이상 더 알맞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문'자가 지니고 있는 민족적 특성을 옳게 발전시키는 방향일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 이처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기의 민족적 문'자를 가지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자랑과 긍지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　　＊　　＊

그렇다 하여 현 우리 문'자에 아무런 부족점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부족점들이란 우리 문'자를 발전시킴에 있어 능히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문'자 체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 문'자는 40 자로서, 모음자 21 자와 자음자 19 자로 되여 있다. 우리 문'자 체계에는 오늘의 어음 체계와의 대응 관계에서 일정한 부족점들을 갖고 있다. 어음 체계와의 관계로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문'자가 쓰이지 않고 있다.

이 면에서 김 두봉 선생이 제안하고 있는 6 자—ㅿ, ㆆ, ㄹ, ㄹ, Y, 1 자들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보다 완성화함에 있어 긍정적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우리 문'자에 도입된다면 과거에 소위 《벌격 용언》이라 하여 오던 것들의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표음 문'자에 의한 표기를 형태화하여 보다 읽기 쉽게 하여 줄 것이다.

음절의 초성 표기에 사용되는 《ㅇ》자는 아무 소리도 나타내지 않으므로 없애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필요함은 이미 주 시경 선생이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자를 없애서 얻는 편리란 크다. 1956년 과학원에서 나온 《조선어 소사전》에 실린 단어들 가운데서 초성에 《ㅇ》자와 관련한 단어만 해도 13%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략적으로나마 이의 유리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홑모음이 아닌 모음자들 가운데서 일부 문'자들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j]》와 관련된 모음자들과 반모음 《Y[w]》와 관련된 모음자들은 다 같이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그의 처리 방법도 서로 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총체적으로 보아 문'자 수효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방향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형에 있어서

우리 문'자는 만들 당시의 사회적 및 만든 사람 자신들의 일정한 제약성으로 인하여 오늘 현실에는 이미 맞지 않는 자형상 부족점들을 가지고 나왔다. 보통 인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한문이 나라의 글로 있었고, 쓰는 도구도 간편치 못한 붓에 아직 머물러 있은 15 세기 당시에 있어서는, 음절 철자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자형에 있어서도 오늘 같이 복잡하게 문제될 수 없었으며, 한문'자의 해서체 같이 모나게, 필순이나 자획의 배치도 그 같이 하였다. 자획이 한두 획 많아지는 것도 그리 문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문'자의 제 2 측면에 대한 요구가 비상히 높아진 객관적 조건은 획 하나 많은 것, 비껴치는 것 하나 하나에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문'자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최대한으로 만족시켜 주도록 우리 문'자를 더욱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우리 문'자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의 기본 원칙을 더욱 리론과 실천에 맞게 발전시킬 것.

②, 자형은 서로 명확하게 분간되도록 할 것.

③, 자획은 그 수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할 것.

④, 자획의 배치와 필순은 필기에 알맞도록 할 것.

⑤, 개개의 자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련결된 자형들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할 것.

⑥, 이 제 원칙들 호상간에 모순되지 않게 자형을 만들 것.

우의 원칙에 의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할 것이다.

1), 활자체와 초서체를 설정하여야 하겠다.

문'자 개혁에 있어서는 활자체와 함께 초서체도 두는 것이 좋겠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활자체의 의의는 커지며 최대한으로 독서 능률을 올리게 자형의 간명성을 더해 가도록 변화시킨다. 한편 초서체는 쓰는 능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게끔 자형을 빨리 쓰기에 알맞게 변화시킨다. 이 같이 두 서체는 자기 기능의 최대한의 발휘와 함께 서로 글'자체를 달리 하게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 음절적 철자는 이 두 글'자체의 분화를 방해하였다. 우리 문'자도 독서와 필기에서 서로 자기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활자체와 초서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에 있어 두 글'자체는 될 수 있는 한 같도록 하되, 주는 어디까지나 활자체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자획들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어느 정도 곡선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문'자의 자형은 모난 것과 직선으로 된 것들이 많다. 문'자에서 곡선은 자형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하여 줄 수 있다. 이는 문'자의 시차성도 높일 수 있으며, 독서의 피로도 덜어 주며 필기 능률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는 경험하는 바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3), 자획을 좀 더 간단히 하여야 하겠다.

자획은 될 수 있는 한 1~2 획 자리를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작은 활'자의 인쇄에도 알맞고 필기도 빠르고 피로치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자의 자획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획수	자음자와 모음자	자 모 실 례	소계	계	총 40 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률
1	1	자 음 자	ㄱ ㄴ ㅇ	3자	5자	12%
		모 음 자	ㅡ ㅣ	2		
2	2	자 음 자	ㄷ ㅅ ㅋ ㄲ	4	9	22%
		모 음 자	ㅏ ㅓ ㅗ ㅜ ㅢ	5		
3	3	자 음 자	ㄹ ㅁ ㅈ ㅌ ㅎ	5	13	33%
		모 음 자	ㅑ ㅕ ㅛ ㅠ ㅐ ㅔ ㅚ ㅟ	8		
4	4	자 음 자	ㅂ ㅍ ㄸ ㅆ ㅊ	5	9	22%
		모 음 자	ㅒ ㅖ ㅘ ㅝ	4		
5	5	자 음 자			2	5%
		모 음 자	ㅙ ㅞ	2		
6	6	자 음 자	ㅉ	1	1	3%
		모 음 자				
7	8	자 음 자	ㅃ	1	1	3%
		모 음 자				

우리 문'자의 자획에는 1 획으로부터 8 획까지 있는데, 그 중 1~2 획이 34%(14 자), 3 획

이 33%(13자)이며, 4 회 이상이 33%(13 자)다.

우려 된 소리 자를 제자 원칙에 맞게 2~3 획으로 고치며 모음자 과, 겨, 괘, 계 등도 합리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4), 자획의 배치 및 필순을 좀 더 풀어서 가로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자내 자획들과 문'자들의 련결적 필기에 있어 최소한의 거리를 통하여 쓰게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세째, 철자법에 있어서

우리 철자법은 풀어서 가로쓰기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형태주의로 보다 일층 발전시켜야 한다. 문'자 체계와 자형이 아무리 훌륭한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직 이것은 글 쓰기에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문'자를 가로 풀어 씀에 있어서도 단어, 그의 형태부 및 이들의 결합될 때의 문'자들의 사용 규칙, 합성어의 표기 규칙, 단어들의 띄여 쓰기와 붙여 쓰기의 규칙, 줄간을 옮길 때의 규칙 등 수다한 문제들의 옳은 해결 없이는 좋은 글로 될 수 없다.

이런 규칙들을 선진적인 형태주의 철자법 원칙 우에서 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늘까지 음절 철자에서 거둔 성과들을 면밀히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에 적용하며 지금까지의 철자에 있는 표음주의와 력사주의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 *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 사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지어져 있다.

과거 일제의 암담한 통치 시기와는 달리 오늘 우리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은 지도 밑에서 문'자 개혁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 인민적 문화의 강력한 앙양을 위한 문'자 개혁 사업이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며, 성과적으로 수행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 나라에는 자기의 우수한 민족적인 자모 문'자가 있으며, 표준어가 전국적으로 규범화되고 방언이 기본적으로 수평화되였으며, 동음 이의어의 존재가 표음 문'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더욱 쉽게 한다.

그리고 문'자 개혁 사업이 빈 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세기에 걸치는 연구 성과와 경험들을 토대로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문'자 창제 및 개혁 사업 경험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준비된 언어 리론 전문가들의 집체적 력량을 기우려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자 개혁 연구의 옳은 해결을 위한 직접적 담보로 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머지 않아 기어이 올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적 민족 문화 말살 정책하의 남반부에서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쓸 우리의 민족적 문'자를 위하여, 문'자 개혁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층 더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자 료

조선어 토의 어휘-문법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

리 근 영

조선어의 언어 구조 안에서 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참으로 크고도 중요하다. 형태 조성의 토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의미 첨가의 토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들은 자기들의 언어 생활에서 조선어의 어휘 구성에 포함되는 수 많은 자립적 단어들을 언어의 건축 자료로써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언어 활동은 결코 이것만으로써는 원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립적 단어들은 이러저러하게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순응되면서 일정한 문법적 의미들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자립적 단어들만으로는 부족한 이러저러한 의미적 색채를 보충 받는다.

그런데 조선어에서 이러한 문법적 의미 또는 의미적 색채를 표현하여 주는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는 바로 이 토들인 것이다. 조선어에서 정밀하고 풍부하게 발달한 이 토들의 연구는 바로 조선어 언어 구조를 리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중심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에서 일정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또 달성하여 가고 있다.

토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성격, 그의 조선어 언어 구조 안에서의 위치, 역할, 발달 과정, 기타의 연구들이 모두 중요한 작업들로 된다. 그러나 조선어 토의 어휘-문법적 의미들을 깊이 인식하며 이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업은 토의 일반적 리론들을 유도하여 내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선어의 문법 서술에 있어서도 불가결의 전제 작업으로 된다. 그리고 또 조선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 의의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우리 조상들이 하여 온 사유 활동의 결과, 오늘날과 같이 풍부하고도 치밀하며 다양한 문법적 추상성들을 가지게 된 토들의 의미는 조선 인민들의 빛나는 문화적 성과들을 보여 주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작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김 수경 동지도 자기의 론문에서 토들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큰 세 가지 문제중의 하나로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주 1]

오늘날 몇몇 조선어 연구자들이 실제로 조선어의 언어 현실들에 파고 들어 가서 그에 립각한 자료 정리들에 몰두하고 있는바, 이것들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토들에 대한 이런 과업들과 깊이 관련들을 가지고 있다.

본 론문은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을 하는 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외'적인 문제들보다도 토 자체의 특성, 력사성, 기타들에서 오는 내'적인 문제들을 분석하여, 토의 의미 분석에 대한 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전망을 보여 주고자 한다.

I 아직 토로 넘어 오지 않은 것과 토와의 한계선 문제

다른 여러 언어들에서보다도 특히 조선어에서는 이러저러한 문법적 의미의 담당체로 되는 형태부 내지는 보조적 단어들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 자립적

[주 1] 《조선 어문》 1956년 2호, 65 페지~66 페지.

이런 어떤 단어에서 점차로 발달 변화하여 왔다. 오늘날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경로를 밟아 왔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울망정, 우리들은 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큰 경향적인 특징으로서 이것을 론증할 수 있다.

어떤 완전 명사적 요소들에서 불완전 명사적인 단어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불완전 명사적 단어들 중의 많은 부분이 접속사적 또는 양태성을 나타내는 요소들로 발달하여 갔다는 데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주 2〕

또 《버리다, 쌓다, 대다, 놓다, 두다, 말다, 있다, 오다, 가다, ……》 등등의 단어가 동사의 태범주에 속하는 형태 조성에 리용되고 있으며, 《하여, 하여금, 의하여, 관한, 두고, 말미암아, 너머, 위한, 더불어, 아울러, ……》 등등의 단어는 후치사적인 문법적 의미를 다분히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니, 하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고……》 등등도 일정하게 접속사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획득하여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은, 자립적인 여러 단어들의 의미가 점차로 자기의 원 어휘적 의미에서는 멀어지면서 어떤 양태성을 표시하는 자료로 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고, 보다, 말이다, 뭐, 모양이다, 그래……》 등등이 그러하다. 례컨대

1) 생존하시고 말고. 올에 여든 둘이시건만 근력이 좋으셔서… (홍 명희, 《림 꺽정》 1권 20 페지)

이 경우의 《말고》는 원래의 뜻인 《어떤 행동을 그만두고》와는 아주 다르다. 오히려 《생존하다》라는 과정적 상태가 현실성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가 《론의할 여지 없이 확고함》을 표시하는 양태적의미로 되였다.

2) 어제 저녁 밥에 체했다나 보아. (홍 명희, 《림 꺽정》 4권 357 페지)

어머니 날리가 났는가 보오. (홍 명희, 《림 꺽정》 1권 308 페지)

이 경우의 《보다》도 《책을 보다, 집을 보다, 일을 맡아 보다, 욕을 보다, 시험을 보다, 장을 보다, 사위를 보다……》 등등에서 볼 수 있는 《보다》와 같은 자립적인 단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체하다, 나다》 등의 동작이 현실성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가 《거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양태적 표현으로 된다.

3) 그 만큼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야 (리 기영, 《땅》 220 페지)

이 경우의 단어 《말》도 《언어》의 뜻이라기보다는, 《달라지다》라는 동작이 현실성에 대하여 《극히 확고 부동함》을 표현하여 주는 양태적 의미로 되고 있다.

4) 욕 먹을 짓을 했지 뭐야!…… (리 기영, 《땅》 214 페지)

이 경우의 《무엇》도 이미 미정-의문의 대명사적 의미를 벗어 나고 있다. 《하다》라는 동작이 현실성에 대하여 가지는 양태성을 표시하는 데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곧 《응당 그렇다》라는 당위성(當爲性)을 표시하는 데 리용되고 있다.

5) 자네가 나를 씨가스르는 모양인가. (홍 명희, 《림 꺽정》 4권 369 페지)

이 경우의 《모양》도 《생김새, 맵시》 등의 뜻이 벌써 아니다. 《불분명성》을 표시하는 양태적 의미가 농후하다.

6) 허허허. 아마 맘에 드는가 보군 그래. (리 기영, 《땅》 183 페지)

이 경우의 《그리하다 (그래)》도 벌써 지시를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기보다는 《화자의 확인》 내지는 《행동의 현실에 대한 확고성》을 강조하는 데 기울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어떤 문법적 의미의 담당체를 발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립적인 단어들을 리용하였다는 이 경향은 조선어의 큰 특징적 사실로 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적 사실들은 조선어 토의 발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토들의 전부가 다 례외 없이 그렇다고 할 정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수 많은 토들이 지난 날에 있어서 어원적으로 자립적 단어들과 관련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토에 있어서 이런 력사적 특징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토의 어휘-문법적 의미들을 판정하여 내는 데 있어서 큰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주 2〕 필자의 론문: 불완전 명사적 단어들에 대하여, 《조선 어문》 1957년 1호 참조.

첫째로는, 현재도 계속 토들이 자립적 단어들을 원천으로 하면서 발달하여 가고 있을 것인바, 어느 정도 성숙된 것을 현대 조선어의 토에 편입하며, 어느 정도의 것은 아직 덜 성숙된 것으로서 달리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곧 토로 아직 넘어 오지 않은 것과 이미 토로 넘어 온 것과의 한계 문제가 론의되여야 한다.

둘째로는, 현대 조선어 안에 존재하는 토들은 오랜 력사를 거쳐서 수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발달하여 왔느니만큼, 이러저러하게 그 원천으로 되였던 어휘 자료들의 의미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다. 곧 현재는 한 토지만 거기에는 력사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래 전에 발달한 낡은 요소와 상당히 근세에 와서 발달한 새 요소가 혼합되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토마다의 어휘-문법적 의미들은 그 추상성에 있어서와 문체적 색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현대 조선어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 토의 의미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어원적 구조를 설명하여 주는 력사적 지식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점이다.

둘째 문제에 관한 것은 토의 의미 주석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 항목에서는 다만 첫째의 문제만을 실제적 언어 자료에 립각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토와 토가 아닌 것과의 한계선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조선어의 특성 때문에 비교적 분간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례들을 들어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에게	
	한테	
운전수	더러	물어 보시오
	보고	
	를 불러서	
	를 만나서	

여기에서 우선 《에게》만은 그 어원이 아직 선명하게 해명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그 원천으로 된 자립적 단어들은 론증해 낼 수가 있다. 지면 관계상 이런 론증을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생략한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론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어의 연구자들 간에는 이것들 중 무엇만을 토로 보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차이들을 가진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까지 생각하여 오던 견해—곧 《에게, 한테, 더러》를 토로 보던 견해—와는 달리 《에게》만 토로 보고 《한테, 더러》는 후치사로 넘기는 견해도 있다. 〔주 3〕

그러나 《보고》를 토라고 보는 견해는 없으며, 더구나 《를 만나서, 를 불러서》 등을 토로 보는 이도 없다.

지면 관계상 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자세히 론증할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에게, 한테, 더러, 보고, 를 만나서, 를 불러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ㄱ), 《에게》는 그 어원적 구조를 알 수 없을만큼 이미 추상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서는 그 의미적 범위가 가장 넓다.

실상 죄는 소승에게 있습니다(고정된 위치). (홍 명희, 《림 꺽정》 1권 76 페지)

포두 군사들에게 청을 해서 잡도록 해 보구려(행동이 미치는 간접 보어). (홍 명희, 《림 꺽정》 1권 14 페지)

많은 처녀들에게 읽어 주고 해설해 주던 그 목소리(행동이 미치는 간접 보어). (송 영, 《석공 조합 대표》 20 페지)

학교 교사를 수리할 것들을 또한 수만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행동이 미치는 간접 보어). (한 설야, 《탑》 203 페지)

우길의 할머니에게 대강 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행동이 미치는 간접 보어). (한 설야 《탑》 165 페지)

내가 왜 그 자식에게 속을 까닭이 있소(행동의 원천이 되는 주체). (홍 명희, 《림 꺽정》 1권 94 페지)

그 놈의 부하 놈도 민병들에게 잡혔지요 (행동의 원천이 되는 주체——특히 피동상 동사와 함께 쓰임). (한 설야, 《탑》 202페지)

ㄴ), 《한테》는 벌써 《에게》와 같이 그 의미가 광범하지 못하다. 《소승한테 있습니다; 군사들한테 청을 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식한테 속다; 민병한테 잡히다……》 등에서는 《에게》와 아무 다름없이 서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등

〔주 3〕 아•아•홀로도위취, 《조선어 문법 개요》 54 페지 및 217 페지.

가될이다. 그러나 ≪처녀들한테 읽어 주다≫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좀 잘 쓰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에게≫가 더 순조로운 표현으로 된다. 더구나 ≪책을 학생 한테 주다≫ 등은 더 잘 안된다.

ㄷ), ≪더러≫에 이르면 더욱 그 의미가 제한된다. ≪그 자식더러 속다; 민병들더러 잡혔다≫ ≪소승더러 있습니다≫ 등은 아주 불가능하며, ≪처녀들더러 읽어 주다≫도 잘 안 쓰인다.

곧 ≪더러≫에는 ≪고정된 위치≫ 또는 ≪행동의 원천으로 되는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없으며, ≪행동이 미치는 간접 보어≫ 표현에 있어서도 제한성을 받고 있다. ≪말하다, 청하다, 애걸하다, 묻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등과 같이 어떤 ≪말을 하는 행동≫과 관련된 단어와만 결합될 경우에 ≪더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수더러 던지다; 운전수 더러 보내다……≫ 등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ㄹ), ≪보고≫는 그 의미의 범위가 ≪더러≫와 거의 같다. 그러나 ≪보고≫는 ≪더러≫만큼도 문법적 추상화가 되지 않은 측면을 가진다. ≪더러≫는 원래 ≪ᄃᆞ려≫였으며, 그 당시 ≪ᄃᆞ리다 (오늘날의 ≪데리다≫)≫라는 동사와 어원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면 어음론적으로 ≪ᄃᆞ려≫는 ≪더러≫가 되고 동사 ≪ᄃᆞ리다≫는 ≪데리다≫로 되어 버렸으므로 그 사이의 호상 련계를 직접 련상할 수 없다. 곧 ≪ᄃᆞ려≫는 ≪ᄃᆞ리다≫의 한 형태에서 분리되면서 자기의 독자적 발달의 길을 걸은 측면이 엿보인다. 그러나 ≪보고≫는 아직도 동사 ≪보다≫와 더 많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보고≫도 일정하게 동사 ≪보다≫에서 분리되어 화석화가 진행된 것임은 틀림 없다. ≪보고≫라는 형태로서 굳어졌으며 이것이 ≪보아≫ 또는 ≪보시고≫, ≪보셔서≫ 등으로 대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의미상에 있어서도 동사 ≪보다≫의 의미보다 더 추상성을 띄고 있다. 곧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몇백리 떨어진 지점에 있는 운전수보고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보고≫가 일정하게 문장에서 한 단어의 다른 단어에 대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데 봉사하고 있는 점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전수 보고≫와 등가적으로 ≪운전수를 보고≫라는 표현, 곧 ≪운전수≫가 대격 토를 동반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은 원래 동사 ≪보다≫가 타동사로서 직접 보어를 요구하였던 형식이 아직 그 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러≫도 ≪ᄃᆞ려≫였을 때 옛문헌에서 이런 대격을 요구하는 표현들이 있었다. 그 흔적으로서 오늘날도 ≪날더러≫, ≪널더러≫ 등의 표현이 잔재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보고≫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격과 결합되면서 점차로 자기 자체가 격토적 성격을 획득하여 버렸다. 마치도 ≪나하고 같이 가자≫에서의 ≪하고≫가 토로 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비하면 ≪보고≫는 ≪보다≫에서 온 한 형태인 것이 어음 구조상 너무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격 형태의 명사를 전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후치사적 성격을 가졌다고는 할망정 아직 격토로는 되지 못할 것이 뚜렷하다.

ㅂ), ≪(운전수)를 불러서, (운전수)를 만나서≫ 등이 한 토로 되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운전수≫와 ≪부르다, 만나다≫ 사이의 관계는, 자유스러운 단어 결합중의 한 형식이며, 그것을 더 벗어 난 아무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을 대체로 개괄하여 보면 문제의 초점이 ≪한테, 더러≫에 집중된다. 이것이 후치사냐 토냐 하는 문제가 바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에게≫에 비하여 문법적 추상성의 면에서는 별차이를 발견 못한다. 다만 그 적용되는 의미들의 범위가 넓고 좁고 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있는 ≪더러, 한테≫들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리론적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하여서는: 조선어 토의 발달 과정의 특성; 절대격에 첨가되던 후치사적 단어들의 격토에로의 점차적인 승격 과정; 조선어에서는 절대격 밑에 붙은 후치사적 단어와 어떤 격토와를 구조적 표식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사정; 기타의 실정이 고려되여야 하며 또 일반 언어학적인 격 리론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격토 분야에서의 극히 적은 하나의 례였다. 이것은 법토 기타의 분야에서도 허다히 존재한다. 한 례를 들면: —

현대 조선어에서는 ≪미래 시칭의 규정어형 토 ≪ㄹ≫에 이러저러한 다른 것들이 첨가된 표현들이 허다하다. 이 경우에 어떤 것은 그 첨가된 것까지 합쳐서 하나의 토로 발전하였고, 또 어떤 것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읽을+
- 가 ……………먼저 읽을가?
- 이라 …………마음껏 책이나 읽으리라.
- 새라 …………비밀 편지를 읽을새라 겁이 나서…
- 손가 …………허트로 읽을손가.
- 수록 …………읽을수록 재미가 난다.
- 망정 …………잘 못 읽을망정 여하간 읽기는 해야지.
- 지 ……………누가 읽을지 몰라요.
- 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읽을지라도 알 수 없을 것이다.
- 지언정 ………비록 그릇되게 읽을지언정 우선 읽을 용기는 내야지.
- 지나 …………그이가 결국은 읽을지나 처음부터 보일 필요는 없다.
- 지니라 ………마땅이 정신 차려 읽을지니라.
- 지어다 ………두고 두고 읽을지어다.
- 뿐더러 ………책을 읽을 뿐더러 글씨도 쓴다.
- 뿐 아니라 …책을 읽을 뿐 아니라 글씨도 쓴다.
- 걸 ……………그 때 책이나 많이 읽을 걸.
- 게 ……………내가 읽을 게 들어라.
- 것 같으면 …이 책을 읽을 것 같으면 자연히 알게 되오.

이 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ㄱ), 규정어형 ≪ㄹ≫에 붙은 이러저러한 것들의 어원은 ≪읽을가≫의 ≪가≫를 례외로 하고는 거의 다 론증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망정≫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불완전 명사적 단어들과 관련되고 있다. (이것들의 구체적 론증은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어원들을 실증적으로 론증하는 별도의 론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ㄴ), ≪ㄹ 뿐 아니라≫를 전체로써 하나의 토로 보는 조선어 연구자는 없는 것 같다.

ㄷ), ≪ㄹ 것 같으면≫은 이것을 하나의 토로 인정하는 이가 있다. 〔주 4〕

ㄹ), ≪ㄹ 걸≫, ≪ㄹ 게≫는 사실인즉은 하나의 토로 볼 수 있을 정도이나 이것을 그렇게 본 견해는 아직 없다.

ㅁ), ≪ㄹ지≫(이 때의 ≪지≫는 가령 ≪ㄹ지라도≫에서의 ≪지≫와는 뜻이 달라졌다. 의문의 뜻이 더 첨가되였다)를 보통 아무 의심 없이 하나의 토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여기서의 ≪지≫는 아직도 불완전 명사적 풍모를 농후하게 가진다. 곧 ≪읽는지, 읽을지, 읽던지, 책인지, 책이겠는지, 책이였는지, 책이였었을지…≫ 등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규정어형에 불완전 명사적 단어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다. ≪읽든지 말든지≫ 같은 것도 사실은 ≪읽든 말든≫들에 ≪지≫가 더 첨가된 것이다.

ㅂ),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지나, ㄹ지니라, ㄹ지어다≫도 보통 하나씩의 토로 보지만 ≪지≫에는 아직도 불완전 명사적 흔적이 다분히 남아 있다.

ㄹ+지 { 라도, 나, 어다, 니라, 면, / ㄴ데, 뇨, 냐, 요, ㄴ즉, 니, (언정)…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는 모든 다른 토와 결합이 되지는 않으나, 상당히 광범한 범위의 토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가 단독적으로 불완전 명사적인 풍모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점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나 ≪는지라, 은지라, 던지라≫ 등과 같이 규정어형의 토 ≪는, 은, 던≫ 다음에도 붙는 례들까지 있는 것이다. 이 ≪지≫들이 이젠 벌써 불완전 명사가 아니며 토에 녹아 들어 갔다고 본다면, ≪ㄹ지라도, ㄹ지언정……ㄹ지어다, ……ㄹ지니라……ㄹ진즉, ㄹ지니……는지라, 던지라, 은지라≫ 등은 모두 개별적인 하나 하나의 토며 그들 간의 호상 관계는 무시되게 된다.

이상을 개팔하여 보면, ≪는지, ㄹ지……≫, ≪ㄹ지라도, 는지라……≫ 등에서의 ≪지≫는 어째서 이미 불완전 명사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며, 또 ≪ㄹ 걸≫, ≪ㄹ 게≫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리론적 근거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 ≪ㄹ 것 같으면≫, ≪ㄹ 뿐 아니라≫는 전체로써 토냐 아니냐

〔주 4〕 가령: 최 현배, ≪우리 말본≫ 365 페지.

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의 해결은 의미와 형태의 화석화 정도에 대한 리론, 불완전 명사적 단어와 토와의 한계선 문제, 토의 문법적 추상성 정도에 대한 리론, 기타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이상과 같이 토냐 토가 아니냐의 한계선은 중요하면서도 용이하게 그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의 일반적 리론과 또 개별적 경우의 각이한 실정들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의 의미 주석에 있어서는 토와 류사하면서도 토가 아직 못된 것들까지도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토의 의미 주석 사전》이 편찬될 경우에는 토와 류사하면서 토가 아닌 이러저러한 부류의 언어적 요소들도 수록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의 여러 특징들과 문법적인 의미까지도 주석하여 주는 동시에, 그것은 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또 어째서 그런가의 리유까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몇 개의 례를 더 든다면:——《느니만큼, 느니만(못하다), 느니(차라리…한다), 느니보다(낫다)……》 등에서의 《느니》도 《는+이(불완전 명사)》에서 온 것인만큼 《는 것만큼, 는 것만, 는 것보다…》와 의미상은 등가물이겠는데, 이것들이 모두 토냐 아니냐 또는 일부만 토냐 하는 문제가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또 《야말로》가 하나의 의미 첨가적 토겠는지 후치사적 단어겠는지 또는 다른 것이겠는지 리론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조차, 마저, 서껀, 까지, 부터, 나마……》 등이 후치사적 단어냐 의미 첨가의 토냐 하는 문제도 더 많은 자료에 립각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Ⅱ 형태 조성의 토와 의미 첨가의 토의 한계선 문제

형태 조성의 토는 문장에서 단어가 가지는 역할을 표시하여 주는 데 특징이 있으며, 의미 첨가의 토는 단어들에 일정한 의미적 색채를 붙여 주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호상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갈 때, 서로 엇섞여 있어서 량자간의 사이가 그다지 멀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분석한 토대 우에서 결론을 얻어야 할 론문은 별도로 작성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다만 몇 가지의 실례만을 들고 넘어 가기로 한다.

ㄱ), 그는 나물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리 기영, 《땅》 293 페지)

이 글에서 《나물도》에 있는 《도》는 물론 의미 첨가의 토다. 그 토는 단어가 문장에서 가지는 역할과는 관계 없이 《포함》 또는 《강조》의 뜻이 더 필요한 경우에 첨가된다.

《책도 있다; 책도 읽는다; 책을 읽어도 본다; 책을 읽어 보지도 않고; 책을 읽어 보지 않고도…》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의 례문에서 《도》는 《나물》이라는 명사가 《보이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그는 나물 눈에 보이지 않았다》와 같이 《도》를 제거한 문장이 오늘날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물이》와 같이 주격 토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도》에는——물론 주로는 《포함》 또는 《강조》의 뜻이 지배적으로 있겠지만——또 주격 토 《이》의 기능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도》 대신에 《만, 마저, 조차, 까지, 부터, 서껀, ……》 등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여기서 격토 《이》의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도》와 같은 정도로 고찰될 수 있다.

ㄴ), 우길 어머니도 날이 어두어서만 다니고…(한 설야, 《탑》 184 페지)

이 글의 《어머니도》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첨가의 토 《도》는 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것이 보통 아무런 위치성 없이 다만 《포함》 또는 《강조》의 뜻을 더할 때 어디에나 첨가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체에 알맞는 정도로 위치적 제한성이 있는 것이다. 곧 《우길이 어머니도 다니다; 우길이 어머니도 모시고 간다》 등에서와 같이 주격 토나 대격 토가 올 자리에는 격토 없이 《도》가 잘 올 수 있지만, 《우길이 어머니도(어머니의) 옷자락; 우길이 어머니도(어머니에게) 보낸다; 우길이 어머니도(어머니로) 혓보았다……》 등등에서와 같이 위격, 여격, 조격들의 자리에는 《도》가 단독적으로는 잘 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도》가 격적인 기능의 성질을 다소나마 가졌다 하더라도 주격, 대격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한성은 《도》가 명사의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주며, 더욱더욱 어떤 한 격토(주-대격토)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셈으로 된다.

ㄷ), 더욱이나 아래와 같은 《의미 첨가의 토》는 문장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가 고정되는 데 이르고 있다.

처럼………앵두나무만은 옛날처럼 싱싱해서 앵두가 불긋불긋 줄달려 있었다.(한 설야, 《탑》 27 페지)

보다……우길이는 계덕이보다 세살이나 어리나 어쩐지 때는 제가 낫거니 싶고…(한 설야, 《탑》 27 페지)

이 경우에 《처럼》은 언제든지 단어를 문장에서 상황어 성분으로 만들며, 《보다》는 또 언제든지 단어를 문장에서 비교의 보어 성분으로 만든다. 문장 성분을 결정하여 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격토보다도 더 한 값으로 제한되여 있다. 다만 격토와 같이 문법적 추상성만을 농후하게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어휘적 의미가 극히 많은 비례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ㄹ), 또 의미 첨가의 토가 형태 조성의 토의 일부 구성 요소로 되여 버리는 데서도 그들 간의 린접성을 엿볼 수 있다.

도……소위 애국 반장만 되더라도 그들이 여간 자세를 하지 않았지요.(리 기영, 《땅》 261 페지)

이 글에 있는 《되더라도》는 원래 《되더라 해도》와 관련되는 것인바, 오늘날은 그 중의 《도》가 《더라》와 합하여서 《더라도》라는 조건법의 접속 술어형 토로 되고 말았다. 곧 《도》는 형태 조성의 토의 일부로 참가하고 만 것이다.

는……사실 소를 세우는 농군의 기쁨은 당자가 아니고는 모른다.(리 기영, 《땅》 256 페지)

야……소는 성미가 눅어야 좋다.(리 기영, 《땅》 256 페지)

도……세상 없어도 올 가을에는 여웨야겠다.(리 기영, 《땅》 292 페지)

여기서도 의미 첨가의 토 《는, 야, 도》들이 각각 조건법의 토(곧 형태 조성의 토)《고는, 어야, 어도》들에 들어 가서 녹아 버렸다.

만(마는) …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는 보이더라만 ……매우 씸배가 깊드라.(리 기영, 《땅》 257 페지)

떨어진 자들은 락망을 하지만 붙은 자들은 아주 제 세상이나 만난것 처럼…(리 기영, 《땅》 261 페지)

원래 의미 첨가의 토 《만 (마는)》은 접속적 기능이 있다. 가령 《비가 옵니다만 그 대로 가시지요; 비가 옵니까마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마는 잘 될지 모르겠다……》에서와 같이 《ㅂ니다. ㅂ니까. 자……》들과 같은 종결 술어형의 토에 첨가되여서 그것을 다른 단어나 문장에 접속하여 주고 있다. 이런 데로부터 점차 발전하여 《더라만, 지만》 같은 것은 거의 하나의 토로 녹아 붙어서 대립적인 병렬적 접속 토로 되였다.

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형태 조성적 토의 일부로 녹아 들어 가 버렸음을 엿볼 수 있다.

다…… 그 언덕 앞 편전에다 도랑 모래를 파 올리고…(한 설야, 《탑》 24 페지)

이 《다》는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 말고; 학생에게다 부탁하면……》 등의 《다》와 모두 관련되는 것이며, 일정하게 《의미 첨가의 토》로써 《착수, 접근》의 뜻을 보여 주는 토다.[주 5]

ㅁ), 또 이번에는 반대로 형태 조성의 토가 의미 첨가의 토와 류사하게 쓰이는 현상도 있어서 더욱 량자간의 린접성이 농후하여 진다.

요……내가 알 수 있나요.(리 기영, 《땅》 256 페지)

이 《요》는 원래 《저것은 나무요; 뭐요?; 그만 가요!》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오》 계칭에 속하는 법 범주의 토, 곧 형태 조성의 토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합나까요?! 하지요?! 하네요; 할가요?……》 등등에서와 같이 여러 곳에 가서 붙는다. 곧 《하오》 계칭의 뜻을 첨가하여 주는 《의미 첨가적 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되고 있다.

라……늙은 파부라도 얻어 주려 하나…(한 설야, 《탑》 58 페지)

여기서 《파부라도》에 있는 토 《라》는 원래 형태 조성의 토였다(그것은 책이라; 그것은 책이니라). 이 《라》에 의미 첨가의 토 《도》가 붙은 것이 곧 토 《라도》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로써 거의 의미 첨가의 토로 되여 버렸다고 하여도 파언이 아닐 정도다(례: 나무라도 있으면; 나무라도 가져 올 걸).

이런 것 이외에도 합성된 격토 《에서의, 에로의,

[주 5] 《읽다가》는 [《읽》에 접근하고 (닿아), 나중에 거기서부터 떠나 (가)]라는 뜻이다. 곧 《읽》이라는 행동에 접근했다가 다시 떨어져 가는 것이 《읽다가》다. 론증은 여기서는 생략함.

에서가,……》등에서는 앞에 온 토들의 역할이 좀 달리 고찰될 가능성을 가진다. 가령《집에서의 작업을 수행한다》에 있는 《집에서의》는 《작업》에 대한 규정인데, 단어《집》을 우의 문장에서 규정어로 만들고 있는 것은 토《의》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격토《에서》는 단어《집》이 가지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데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의《에서》는 곧《집의》에 첨가되여서 일정한 의미(극히 추상화된 어휘-문법적 의미지만)를 단순히 더하여 주는 측면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곧 《행동 진행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형태 조성적 토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기의 의미 첨가적 역할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 형태 조성의 토와 의미 첨가의 토가 가지는 류사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ㅂ), 의미 첨가적 토《은, 는》이 거의 주격 토화하여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것도 일정하게 량자간의 린접성을 말하여 준다.

ㅅ), 《가, 를……》같은 것은 오늘날 격토로서 전형적인 형태 조성의 토라 할 수 있지만, 역시 이것도 아직 일정하게 의미 첨가적 역할(《강조》의 의미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에가 몬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도무지 읽어를 못 보았군.

이런 것도 형태 조성의 토와 의미 첨가의 토 사이에 만리 장성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ㅇ), 《무슨 일이거나 잘 하자; 방학 때든지 한 번 놀러 오시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하네; 자나 깨나 불 조심…》들에서 볼 수 있는《거나, 든지, 도, 나, …》들은 의미 첨가의 토인지 형태 조성의 토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여 있다.

이상과 같은 형태 조성적 토와 의미 첨가적 토가 가지는 호상 교차성 및 린접성, 근사성들은 토의 어휘-문법적 의미 주석 작업에 있어서 깊은 고려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우선 토의 의미를 주석하려면 이 량자를 갈라야 할 것이며, 그 의미 주석에서도 그 량자가 가지는 특성들이 반드시 언급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Ⅲ 토의 복합체에 관한 문제

조선어는 교착어적 성격을 가진 언어로서 특징적인바, 형태 조성의 토는 물론이며, 의미 첨가의 토에 있어서도 몇 개의 토들이 서로 복합체를 잘 이룬다. 《에로, 에서의, 에서다, 으로가, 에서지만, …》들은 형태 조성적 토끼리의 복합된 례요, 《부터는, 까지도, 조차만, 나마나……》 등은 의미 첨가적 토끼리의 복합된 례다. 그러나 또《에서부터의, 마다에서, 만을, 까지만을, 만으로는……》등과 같이 량자가 섞여서 복합되는 수도 많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로써 의미 주석의 단위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설 수 있다. 토에 대한 일종의《어휘론적 단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체들에서는, 우선 복합됨으로써 일정하게 어떤 새로운 무엇이 거기에 고착되였는가 안 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둘로 갈라 보는 것이 편리하다.

《읽더라도》에서의 토《더라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더라》와《도》의 복합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복합체를 이룸으로 하여, 두 토가 각각 가지고 있던 의미들의 총화를 넘어 서서 어떤 새로운 한 의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직설법에 속하는 종결 술어형 토《더라》에《강조》 내지는《포함》의 뜻을 첨가하는 의미 첨가적 토,《도》가 붙어서 조건법에 속하는 접속 술어형의 새로운 토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는《더라도》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토임에 틀림 없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토 주석에서 응당 하나의 단위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의 복합체《으로만》같은 것은《더라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첫째로, 두 토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개 의미들의 총화보다 더 달라진 의미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두 토의 자유로운 결합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곧 《에서만, 에만, 으로만, 고만, 어만, 어서만, 면서만, 으로의, 으로도, 으로나, 으로부터, 으로까지, ……》 등의 평범하고도 수 많은 결합 가능성 중의 우연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으로만》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기만 한 결합 중의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격토에《만》이 붙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결합 순서가 제한되여 있다. 《만이, 만의, 만을》은 가능하나 《이만, 의만, 을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또 위격, 여격과 붙을 때는 이와는 반대로《에만, 에서만, 에게만》들의 순서가 가능하고《만에, 만에서, 만에게》는 불가능하다. 다만《으로만》, 《만으로》만이 어느 쪽으로나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만》은 명

사의 법토와 어울릴 때는《만》이 법토보다 앞에 오는 순서밖에 가능하지 않다(례: (사람)만이다; 만일지라도; 만이거든……). 그러나 동사의 법토와는 《(읽)어만, 읽'고만, 읽으면서만……》등과 같이《만》이 법토의 나중에 오는 순서밖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또《만》은 동사 종결 술어형의 법토나 《ㄹ수록; ㄹ지라도; …》 등과 같은 토에는 도무지 붙지 못한다.

이러한 어순 또는 결합 가능성의 복잡한 제한 속에서 그를 뚫고 이루어져 나온 하나가《으로만》이다. 그러므로 이것에서도 일정하게 그런 결합을 하는 자기의 특수성을 볼 수 있는만큼 아주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토의 의미 주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복합 요소로 된 둘 이상의 매개 토의 의미가 합해진 것을 새로이 넘어 서지 못한만큼 그다지 중요시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한된 결합 가능성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결합 가능성이 조선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취급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복합체는 부록으로써 빠짐 없이 망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의미들은 매개 구성 요소로 된 토들에 가 보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다.

토의 복합체의 문제와 관련되여서 또 하나 특수하게 문제로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읽는다지》같은 데서의 문제다. 곧 《읽는다 하지》처럼 《하》가 들어 간 것과 등가물이 될 수 있으면서도 《하》없이 토만이 복합체에 참가한 경우다. 이렇게 력사적으로 보아《하》가 빠져 달아 났다고 볼 수 있는 토의 복합체는 우선 그 결합이 극히 광범하다.

(읽)는다 (읽)느냐 (읽)으랴 (읽)자 (읽)으라 × ㄴ다, 는구나, 네, 오, 는구려, 는지요, ㅂ니다, 지, 느냐, 나, 는가, 소서, …고, 며, 면서, 는데, 는바, 거나, 든지, 지마는니까, 니, 기에, 는지라…는, ㄹ, 던, ㄴ, …

이것은 자유스러운 결합의 성격을 극히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토의 의미 주석의 단위로 되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하나의 토로 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진다.

선생님께서 저더러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문장의《가라면》에 있는 토《라면》을 들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것도《가라 하면》과 등가물인만큼 우에서 든 류형에 속하는 복합이다. 그러나 이 때 토《라》와 토《면》은 복합된 하나의 토라기 어렵다. 왜냐 하면, 《간다》는 행동에 관련된 토는《라》뿐이고《면》은 다른 행동 곧《하다, 말하다》 등에 관련된 토기 때문이다. 따라서《라》로써 진술되는 행동의 주체와 《면》으로써 진술되는 행동의 주체가 다르다. 우의 례에서 본다면《가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우의 말을 한 사람 자체고,《면》에 의한 행동 곧《하면, 말씀하면, 말하면, 명령하면…》등과 관련된 행동의 주체는 우의 글에서는 《선생님》인 것이다. 이렇게 주체를 달리하는 두 토가 한데 붙어서 하나의 그 무엇을 나타내는 단일한 토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실정은《선생님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라겠으면 가라지요》, 《선생님께서 가라시겠으면 빨리 말씀하시지오》 등등의 례들이 이를 더 분명히 설명하여 준다. 곧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면》과 관련된 주체만 존대하는《시》가 들어 갈 수도 있고, 그 주체의 동작에만 관계되는 시칭이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시》와《겠》은 절대로 《가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다. 《가는》 행동의 주체를 존경하고 있지 않으며, 《가는》 행동의 시칭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또《저더러 가라면》에서의 간접 보어《저더러》는《가다》와 결합하지 않았으며《면》과 결합한 셈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 두 주체가 한 사람으로써 겹쳐 버리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점차로 한 토로 녹아 붙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느라고 애기 어머니와 유복이가 먼동이 틀 때 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다.(홍 명희, 《림 꺽정》1편 51 페지)

이런 경우에는《이야기를 하는》주체와《이야기를 하노라》 하고《생각하는 또는 행동하는》주체가 일치한다. 곧 여기서는 주체가 모두《애기 어머니와 유복이》다. 이런 경우에는《노라고》(또는 여기서 온《느라고》)가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접속 술어형의 토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토의 의미 주석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로 되여야 한다.

또 이런 류형과 관련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나중의 토와 관련된 주체가 명확히 누구라고 밝혀질 필요가 없어졌으며, 거저 일반적 인물을 가리키게 되는 때가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토로 녹아 붙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너이들이 우리 울케의 동세로 들어 온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리 기영, 《땅》 298 페지)

(69 페지로 감)

중국 언어학의 현재 정형과 현존하는 제 문제

왕 력

1

중국의 어문학〔역주 1〕은 빛나는 성과를 가지고 있으나, 언어학(언어 과학)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년 시대에 처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언어학이라는 이 과학을 알게 된 것은 약 50 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본래 전 세계적으로 말해서 언어학은 각종 과학 중에서 역시 나어린 과학의 하나다. 그런데 중국의 언어학은 더구나 구라파의 언어학보다도 약 70~8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해방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언어학을 연구하였고 일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해방후에는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중국 언어학으로 하여금 갑자기 발전하게 하였다. 이 몇 가지 사건이란 아래와 같다.

1950년, 쓰딸린의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한 문제를 론함》(후에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 문제》라고 개칭하였음)의 발표.

동년, 중국 과학원 언어 연구소의 창립.

1951년, 인민 일보에서 《어법 수사 강화》〔역주 2〕의 발표.

1952년, 중국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1954년에 중국 문'자 개혁 위원회라고 개칭하였음)의 창립.

1955년, 세 개 회의의 소집 : 즉 1) 전국 문'자 개혁 회의, 2) 현대 한어 규범 문제에 관한 학술 회의, 3) 민족 어문 과학 토론회.

1956년, 중국 과학원 소수 민족 언어 연구소의 창립.

이상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첫째 사건은 언어학이 사회 과학 중에서 중요한 지위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그 나머지의 몇 개 사건들은 우리 당이 언어학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상술한 몇 가지 큰 사건 외에 또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이는 교육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역시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1954년에 종합 대학 중국 어문학부의 교수 계획의 개정이다. 개정한 결과 언어과와 문학과가 서로 분리되였고, 둘째는 1955년에 초급 중학교의 한어〔역주 3〕와 문학과의 분리이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쏘련을 향하여 배운 결과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해방후의 언어학의 발전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쏘련을 향하여 배운 결과며, 둘째는 당의 언어학 사업에 대한 중시와 방조의 결과이다.

언어학의 발전은 우선 우리의 대오가 확대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몇 년간에 소수 민족 언어 조사의 대오가 확대되였고 현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기본상 《많고, 좋고, 빠르고, 절약》〔역주 4〕의 요구를 달성하였다. 고등 학교(대학)에서도 약

〔역주 1〕 어문학(語文學)——어문학이란 것은 언어와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언어의 본질, 기원, 구성, 발달, 변화 등에 대한 학문을 말한다. 이 학문은 중국 어문에 대한 학문으로서 중국의 고유한 것이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근대에 서양에서부터 들어 온 언어학과 구분된다.

〔역주 2〕 《어법 수사 강화(語法修辞講話)》——려 숙상(呂 淑湘)과 주 덕희(朱 德熙)가 저작한 문법 서적이다. 주로 수사학을 취급하였다.

〔역주 3〕 한어(漢語)——여기서는 초급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문법 교과서인 《한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은 어음론, 어휘론, 품사론, 문장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역주 4〕《많고, 좋고, 빠르고, 절약(又多, 又好, 又快, 又省)》——이 말은 현재 중국의 각 생산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증산 절약에 대한 구호이다.

간의 언어학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사람들은 중국 언어학의 발전의 전면적인 정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례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언어학 인재를 조사함에 있어서 왕왕 대학과 사범 학원〔역주 5〕의 중국 어문학부에 언어학 방면에 관한 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하여 주의할 줄만 알고 로어 학원과 외국어 학교의 교원, 대학의 로어학부의 교원, 서방 어문학부와 동방 어문학부의 교원, 중학교 내의 교원 및 잡지 편집 일'군 등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여 왔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로어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과 로어 교과서 또는 로어 잡지의 편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지들은 그들이 쏘련에 대한 학습이 비교적 직접적이기 때문에 보통 언어학에 대한 교양이 비교적 높다. 또한 그들은 비교 교수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어에 대한 연구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전도가 원대한 신대원 대렬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만 끄집어내면 왕왕 중국 어문학부에만 련결시킬 줄 알고,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쉽사리 잊어 버리군 한다. 다음에 지적할 것은 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력량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들의 연구 사업에 대한 방조 사업도 대단히 부족하였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매우 분망하다. 그러나 그들 중의 부분적인 사람들의 각고 정려한 연구는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 그 실례를 들어 말한다면 어떠한 중학교 교원 한 분이 나에게 론문 한 편을 우편으로 부쳐 왔는데, 이 론문에는 많은 창발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의 언어학 연구 과정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의한다면 중국 언어학 방면에 관한 몇 부 중요 서적들을 정독한 외에 보통 언어학에 관한 저서들도 몇 부 보았고, 또한 계통적으로 《반듀링론》, 《자연 변증법》, 《헤겔의 <론리학> 적요》 등등의 서적들도 읽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중학교 교원은 우에서 말한 그러한 분인바, 그 수도 자못 많다. 이밖에 또한 어떤 40 여세나 되는 소학교 교원 한 분이 편지로써 나와 어떤 문법 문제를 토론한 바가 있었는데 그는 상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소학교의 연구 조건은 중학교에 비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학교의 어문학 교원들은 교수의 실천 속에서 허다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여러 분들로 하여금 연구와 해결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인사들이 각 전문 학원과 각 생산 직장 또는 군대 속에 흩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명백치 않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직업외 언어학 애호자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동지 한 분이 나에게 편지로써 《요 몇 년간에 나는 로어와 서반아어 및 독일어를 자습하였고, 영어와 불란서어 등 몇 가지 중요한 인도 구라파 계통 언어를 복습하였고, 또한 철학, 론리학, 언어학 및 현대 한어 등을 자습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어떤 해방군 전사 한 분은 현대 중국의 언어학의 중요 저작들을 스스로 독파하겠다는 굳은 뜻을 세웠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들의 언어학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열의는 고무 격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언어학을 교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역시 이를 받아 들이기 즐거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어학을 애호하며, 심지어는 자기의 일생을 조국의 언어 과학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암중 모색과 《무사 자통(無師自通)》의 조건하에서도 견결히 싸워 나아 가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감복하는 이외에, 마땅히 그들을 방조하여야 하며 받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절대로 직업외 언어학 애호자들을 경시하여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직업외로부터 전문가로 전변할(이미 이런 사실이 약간 있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가령 그들이 전문가로 전변하지 않더라도 언어학을 위해서 주는 영향만이라도 언어학의 전도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후 언어학에 관한 정기 간행물의 수량은 비록 적지마는 그의 질은 도리여 그다지 못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중국 어문》이다. 그의 내용상으로 보아 그의 대상이 어떤 부류의 독자들인지 매우 알아 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가 아주 훌륭히 그의 임무를 완성하였는지 짐작하기도 매우 어렵다(나는 이 간행물의 편집 위원중의 하나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역주 5〕사범 학원(師範 學院)——사범 학원이란 것은 사범 대학을 말한다. 학원도 대학과 같으나 종합 대학에 해당되는 것을 대학이라고 하고 단과 대학에 해당되는 것을 학원이라고 한다.

고 잘 편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나의 책임으로 된다). 잡지 《어문 학습》은 비교적 쉽지에 적합하며, 그의 주요 대상은 중학교 어문 교원들이다. 최근에 어문 교수 경험의 교환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잡지 《어문 지식》은 일종의 통속적인 간행물로써 언어 과학의 보급 사업에서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금도 역시 결핍되고 있는 것은 과학 연구의 성질을 띤 간행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 연구소의 《언어 연구》가 출판되어, 언어학 일'군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듣건대 이 밖에도 한두 가지의 언어학 관계 간행물이 더 출판되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외에 언어학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어학에 공헌이 있는 것에는 《로어 교수》 등 잡지가 있다.

최근 5년간에 중국 언어학의 진전은 매우 빠르다. 그러나 그것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탄탄한 것은 아니였다. 언어학의 보급이 사람들의 사상 인식 수준을 초과한 데서부터 충분한 군중적 기초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한 중국 언어학 자신에 많은 결점이 존재하고 있는 데서부터, 지어는 우리가 언어학 보급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고등 학교의 언어와 문학과의 분리에 관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들의 분리 문제를 론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문제 발생의 각종 객관적 요소들도 세세히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다만 지적하려는 것은 중국 언어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나간 짧은 5년간에 중국 언어학이 이와 같은 생기 발발한 기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후 10년이 더 경과한 후에도 만일 중국 언어학이 이 로정에 머무러 있다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는 더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목전에 존재하고 있는 중국 언어학에 대한 문제는 매우 많다. 대중의 토론을 거치지 않난서는 문제의 전면적이며 정확한 제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문제는 모두 내가 일시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고 주밀한 고려를 돌리지 못한 것인만큼, 전면적이라는 것은 물론 이야기조차 할 수 없거니와, 정확성에 있어서도 매우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선 이야기를 꺼내여 여러 동지들의 지도를 바라고저 한다.

1, 리론과 실천의 통일 문제

해방후 맑스-레닌주의의 학습을 하여 온 우리들은 어느 한 사람도 리론과 실천의 통일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어 과학의 실천에 있어서 아직도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나쁜 현상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갑, 을, 병, 정……, 한약방을 벌려 놓은》[역주 6] 것과 같다. 어떤 문법 서적은 분류로써 전체 내용을 대신하고 있고 그 분류한 내용 자체조차도 론리성이 결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잡하게 만든 서적들은 독자들의 비판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여졌다. 지금 우리들 앞에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는 언어 과학이 어떻게 언어 교육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맑스주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한 과학이 만약에 생산 실천 또는 계급 투쟁의 실천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학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 과학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주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즉 언어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기능을 발휘케 하여 인류 문화에 복무하며 계급 투쟁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령 언어 교육에서 단지 언어 사실에 대해서만 극히 개괄적인 서술을 하고 언어 실천과의 련계를 밀접히 취하지 않는다면 언어 교육 그 자신이 건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2년 이래 나 개인도 포함한 우리들은 늘 언어학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학에서 《현대 한어》[역주 7]를 《문장 습작》으로 대체시킬 수 없다고 늘상 주장하였고, 중학교에서의 《한어》 과목 내에는 《작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한 개의 일정한 과학 체계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한 개의 커다란 빈자리가 남게 된다. 문법에 대해서 볼 때 우리의 언어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 훈련에 있어서 그는 서양 문법처럼 중요한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문법 속에 수사학 방면의 훈련을 적당히 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글과 글'자를 옳바로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의 중국 어문학부 졸업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류창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과분하다거나 또는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언어 과학을 연구하는 자가 언어 교육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는 곧 언어 과학 그 자신으로 하여금 나날이 교조주의로 흐르게 하는 것이며 번쇄적 경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아름다운 꽃을 혼자서 구경하며》,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 격으로 될 뿐이다.

[역주 6]《갑, 을, 병, 정……, 한약방을 벌려 놓았다(甲 乙 丙 丁 開中藥鋪)》——《갑, 을, 병, 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갑, 을, 병, 정……처럼 그 대로 옮겨 놓은 것을 의미하며, 《한약방을 벌려 놓았다》는 말은 한약방의 약장처럼 오가지 잡탕을 느러만 놓고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결국 교조주의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역주 7]현대 한어(現代 漢語)——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대 중국어의 리론 문법을 말한다.

이와는 정반대인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협애한 공리주의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 과학의 《실천적 의의》에 대하여 묻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전심 전력을 다 바쳐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전문 문제를 흥미 진진하게 연구하고 있는 차에, 돌연히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당할 때에는 아연해서 무엇으로써 대답했으면 좋을지를 모를 때도 있다. 언어 과학의 실천적 의의는 언어의 법측을 찾아서 우리의 언어 실천을 지도함으로써 언어로 하여금 최대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언어에 관한 정치적 조치(례하면 문'자 개혁)와 언어에 관한 기술적 혁신(례하면 《번역 자동화》)에도 언어학의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부분적인 언어학 지식은 확실히 실천과의 관계가 비교적 간접적이다. 문제가 전문 분야로 들어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실천적 의의의 부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십분의 삼의 학식만 있으면 벌써 실천적 문제를 십분의 구는 해결할 수 있다고. 과연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깊은 학문이 있는 전문가라야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치는 일은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참말 막대한 힘을 허비하면서 연구생을 배양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갖은 애를 다 써가면서 과학 연구를 더는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하여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세계 과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 갈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답변은 역시 정통을 맞치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사람들이 《백리를 가는 자는 구십리가 반 길이다》라고 한 말은 참으로 잘 한 말이다. 구십리를 백 리의 절반으로 치는 것은 최후의 십 리가 가장 간고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까닭이다. 한 의사가 일년 내내 한 번도 난치의 병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난치의 병을 치료할 줄 아는 의사만이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란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의 십분의 구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도 한다. 때로는 문제의 마지막 해결이 이미 해결되였다고 인정되는 십분의 구를 동요케 하거나 지어는 뒤집어 엎기도 한다. 우리들이 언어는 연구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긍정만 한다면, 언어에 대한 어떠한 방면의 깊은 연구라도 모두 언어 과학에 대하여 방조로 된다. 언어 교육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언어 과학의 리론적 지도가 없이 언어 교육이 아주 훌륭하게 진전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리론이란 것은 맑스주의 언어학의 리론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소에서 축적한 언어 현상에 관한 일체의 지식과 자기 자신이 발견한 지식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근면한 로동을 지출하여야만 그의 대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협애한 공리주의에 눈이 가리워 공을 세우기와 리익을 얻기에 급급한다면 중국 언어학은 다시 더 발전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2, 교조주의와 주관주의 및 허무주의에 대한 문제

쓰딸린의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 문제》가 출판된 후로부터 중국 언어 학계에는 교조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해방전에는 교조주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도 양교조[역주 8]를 많이 반입하기도 하고 혹은 남몰래 리용한

[역주 8] 양교조(洋敎條)—서양의 학문들을 수입해다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 대로 옮겨 놓은 교조주의를 말한다.

바도 있었다. 그러나 양교조를 반입해 들이는 것은 쓰딸린의 교조를 반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정 당당히 할 수는 없었다. 나 자신도 포함한 우리들은 지난 5~6년간에 언어학 령역에서 때때로 교조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교수 사업에서 오직 교조가 있어야만 가장 편리하였고 가장 안전하였던 것이다. 물론 쓰딸린이 마르 학파의 법속적인 유물주의 관점을 반대한 그의 공로는 매몰할 수 없는 것이며 그의 리론도 기본상 정확하다고 지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자료의 구체적인 력사에 관한 생동하고 전면적인 연구가 결핍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쓰딸린의 저작 속의 말을 인용하며 아주 무비판적으로 그의 저작을 접수하는 데 있다.》(《언어학 문제》 1956년 제 4호 사설)

교조주의 성질과 근사한 것은 주관주의다. 본래 마르 학파의 착오는 구체적인 자료에서 리탈하며, 방금 진전중에 있는 언어 사실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리탈한 데 있으며, 언어 현상과 그 발전 법측의 력사적 분석을 론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 중국 언어 학계에도 근년에 바로 이러한 종류의 론문과 저작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은 왕왕히 어떤 원리로부터 출발하면서 이에 알맞는 일련의 자료들을 찾아서 그 원리를 증명하군 한다. 어떤 동지들은 자료를 찾는 인내성조차도 없이, 오직 다른 사람의 토론하는 그 속에서 그 대로 뱅뱅 돌고 있으면서도 그의 유일한 목적은 어떠한 《창견》을 내놓아 보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창견》이 구체적인 자료에서 온 것도 아니며, 또한 력사의 분석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이는 다만 그들이 상상해 낸 원리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들은 마르 학파를 반대한다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마르 학파의 연구 방법상의 착오를 거듭 범하고 있다. 이것은 마땅히 시정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며 전면적인 분석을 가하여야 한다는 연구 방법을 곡해한 데로부터 문제의 주요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어의 력사가 그렇게도 길고, 방언이 그렇게도 복잡한데, 만일에 우리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선차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사리 그 복잡한 자료 속에서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언어 법칙의 발견도 어떠한 언어 사실을 개괄한 결론도 취모멱자하는 데는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실례를 들어 말한다면 정 성수(丁 聲樹) 선생이 상고(上古) 한어에서 《弗(불)》, 《不(불)》 두 글'자의 구별을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 고증이 확실하고 상세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례외가 전연 없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례외에 근거하여 그를 반박하였다. 실지에 있어서 만약에 통례와 례외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연구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다. 우리들이 례외를 지적하고 그 례외의 원인을 캐는 것은 모두 마땅한 일이다. 단지 례외로 하여금 통례를 덮어 버리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어의 규범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는 저자들의 문장에 근거하여 《문법 및 수사 강화》에서 한어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그 례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물론 《문법 및 수사 강화》가 완전히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별다른 한 개의 문제다. 그러나 만약에 통례에 의하여 보건대 그 례문들이 규범에 맞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어떤 저자의 특수한 용어에 근거하여 문법의 규범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귀납된 일체의 언어 법칙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이것은 바로 언어학상에서의 허무주의인 것이다. 우리들은 늘상 이러한 말을 듣는다: 누구의 어떤 결론에 대하여는 《론박할 수는 있으나 립론할 수는 없다》고. 어떤 정형하에서는 이것은 《론박 할 수는 있으나 립론할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는 회의론자들(懷疑論派)의 사상 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상대 속에 절대가 있는 것을 믿지 않고 편면적으로 극단적인 상대성만을 강조하는 문제로 된다. 곧 《弗(불)》과 《不(불)》의 례를 들어 말하더라도 정 성수 선생이 례로 든 그 많은 자료는 모두 헛일로 되어 버렸다. 정 성수 선생의 결론은 어떤 약간의 례외에 의하여 깨여진 것으로 되어, 결국은 그 아주 명백한 한계까지도 모두 우연한 현상으로 되어 버렸고, 유일한 결론은 오직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게 되였다. 이 것은 우에서 말한 바의 주관주의와는 정반대의 두 개의 극단이다. 하나는 자료를 중시할 줄 모르며, 다른 하나는 자료의 포위 속에 빠져서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3. 언어학 각 부분의 발전 문제

언어학은 중국에서는 청소한 과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언어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언

어학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두 편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언어와 혹은 여러 가지의 방언을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이라고 한다. 이 것은 물론 유치한 론법이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문해자》[역주 9]를 연구하는 것이 즉 언어학의 연구라고 말한다. 표면상으로 볼 때 마치도 앞의 론법보다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보건대 《반근과 어덟량과의 차이》[역주 10]에 불과하다. 국민당 반동 통치 시기에 이전 중앙 연구원 력사 언어 연구소의 사업들이 방언 조사에 치중한 데서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언 조사가 언어학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1951년에 《어법 수사 강화》가 발표된 후에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법 그것이 언어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보통화(표준어)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방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학이 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외에도 또한 소수 민족 언어의 조사 연구가 있는바 이것도 목전의 긴급한 임무로 되여 있다. 우리는 이 긴급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중점을 내세우고 이 방면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바다. 문제는 기타 각 부분도 적당히 발전시키겠는가, 시키지 않겠는가에 있다.

나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방된 후 언어학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현대 문법만을 연구하려고 하였고, 문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왕왕히 분류와 류별에 많은 로력을 들이기를 좋아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언어학의 발전에 대해서 말한다면 유리한 것이 아니다. 목전의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문법을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문법 방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더욱 더 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법 이외의 일련의 긴급한 임무들까지도 어떤 사람이 이를 완수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일반 언어학이다. 최근 50년간에 중국 언어학 각 부분에서 만일 물방울 만한 성과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일반 언어학의 덕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일반 언어학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길을 통하여 중국 언어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 언어학이 락후하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자기를 아는 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언어학의 락후는 주로 이 일반 언어학 지식의 락후에 기인되고 있다. 때문에 만일 이 박약한 부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국 언어학의 발전 전도는 커다란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다음에 강조하여야 할 것은 어휘론과 의미론 및 사전학이다. 한어 규범화의 사업은 주로 사전 사업이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력사적인 대사전의 작용은 규범화 사업의 범위를 훨씬 벗어 나는 것이다. 사전은 우리의 12개년 전망 계획중 《알짜 연극》이며 《꼭 완성하여야 할 임무》다. 사전의 주요 내용은 물론 어음이나 문법이 아니고 어의(語義)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날에 어떤 동지가 동의어에 대한 연구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매우 긴박한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직도 한 권의 동의어 사전도 나오지 않았다. 이 방면에 우리는 많은 인재가 요구된다. 만일 지금 곧 착수하여 양성하지 않는다면 때 늦은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땅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수사학이다.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래의 언어 교육은 아마도 수사학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을 어떤 사람은 문체론이라고도 하며 또는 풍격학(風格學)이라고도 한다. 내 개인으로서는 수사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였던 간에, 우리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수사학 부문은 마땅히 다음과

[역주 9] 《설문해자(說文解字)》——서적명이다. 내용은 주로 륙서(六書)의 뜻을 추구(推究)한 것이며 중국 한(漢)나라의 허신(許愼)이 선집한 것이다. 그 후 남당(南唐)에 이르러서 서 현(徐鉉) 외 몇 학자들이 이를 재간(再刊)하였고 청조(淸朝) 중엽에 와서 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많았다. 그 중 가장 저명한 것으로 단 옥재(段 玉裁)의 설문 해자주(說文 解字注), 왕 균(王 筠)의 설문 석례(說文 釋例) 설문 구독(說文 句讀) 등 외에 기타 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였다.

[역주 10] 《반근과 여덟량과의 차이(半斤和八兩的差別)》——이 말은 갑과 을이 겉보기는 다르나 그 내용은 꼭 같다는 뜻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중국의 한 근은 열 여섯 량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반 근과 여덟 량은 명칭은 다르나 그 중량은 꼭 같은 데서 나온 말이다.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어떻게 말하는 말이 가장 론리에 맞고, 가장 생동적이며 가장 힘 있는 말로 될 수 있겠는가; 둘째로, 상이한 언어 수단을 어떻게 리용하여야 상이한 환경과 상이한 대상에 가장 유효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첫째 문제에 대하여는 력대 작가들의 언어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내 생각 같아서는 우선 각 계층과 각종 문화 정도의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리해 능력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는 이 중에서 둘째 문제가 목전에 있어서 특히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서사어들은 대다수가 공식화되였고 개념화된 언어들이다. 어떤 독자들에게 써서 보이든가를 막론하고(년령, 문화 수준,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천편 일률적이며, 그나마도 그다지 고명한 언어도 아니다. 이는 실지에 있어서 언어의 교제적 효능을 대단히 저락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여야 할 것은 실험 음성학이다. 실천적 의의가 가장 풍부한 면에서 말한다면, 다만 보통화를 보급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어음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아다 싶이, 한어 방언의 상호간의 차이는 주로 어음상의 차이다. 물론 지금 북경 어음을 표준음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지만, 우리들의 북경 어음에 대한 지식은 전면적인 것은 아니다. 고본한(高本漢一칼. 그렌) 조 원임(趙元任)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류행되고 있는 교과서들의 북경 어음에 관한 기록은 각인 각설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따를 바를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믿음직한 선생(어음 실험기)을 곁에 두고서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어음 실험을 잘 하기만 하면 론쟁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어느 한 사람도 연구한 바가 없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례컨대 보통화의 성조의 변화는 절대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때문에 깊은 연구를 더욱 진행하여 그의 법칙을 찾아 내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어음 실험은 소수 민족의 언어와 방언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방조를 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 언어학의 당면 임무가 우에서 말한 몇 가지 문제에만 국한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례컨대 《번역의 자동화》도 긴박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작가 사전(로신 사전 등)도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여기에서 일일히 례를 들 수 없다. 단지 비교적 중요한 문제를 몇 개 골라서 잠간 이야기한데 불과하다.

4, 우수한 전통을 발휘하는 문제와 세계 언어 과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 가는 문제

우에서 중국의 어문학은 빛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우수한 전통은 지금에 와서도 일련의 로 선배들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정형에 비추어 말한다면, 구식의 어문학과 신식의 어문학 사이에는 련결이 잘 되여 있지 않다. 어문학의 위대한 성과는 력사 방면에 있으며, 특히는 상고 한어 방면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런데 부분적인 청년 언어학 일'군들은 이 옛물건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무서워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학 발전 전도에는 커다란 위기가 숨어 있다. 한편으로, 서양으로부터 전해 온 언어학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도 락후하여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선조의 우수한 전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계승하기를 싫어하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 언어 과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 가겠는가? 그래 과거의 구식 물건은 완전히 물이 낡아서 더 다시 빛을 낼 만한 점이 전연 없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력사적으로 언어를 연구한 것은 아무런 착오도 없다. 가령 서양에서 언어의 력사적 연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일반 언어학도 있을 수 없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착오는 단지 력사주의의 관점에서 한어의 력사를 연구할 줄 모르는 데 있는 것이지, 그들이 한어의 력사를 연구한데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여 우리가 가령 언어 과학 령역에서 세계의 선진 과학 수준을 따라 갈려면 언어 현상과 그의 발전 법칙에 대하여 력사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은 가장 전망성 있는 연구 사업의 하나라고 인정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선배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이 배울 만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즉 질고한 연구 정신이다. 그들이 한 글'자의 어원을 위하여 쓴 문장과 소비한 시간은 왕왕 현대인들이 책을 반 권 쓰는 시간과 상등하다. 그들은 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할 대로 다 한 다음에도 경솔하게 붓을 대지 않았고, 한 책

을 다 써 놓고도 경솔하게 발간하지 않았다. 그들의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고증은 순전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결과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고한 연구 정신이 결핍되여 있으면서도 세계 언어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 가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심오한 과학은 번잡을 싫어하는 사상과는 상용될 수 없으며, 《요점을 재치 있게 말하는 것》과도 상용될 수 없다.

선인들이 연구해 놓은 성과는 오늘에 와서도 역시 쓸모가 있는 것이다. 선인들의 업적을 《실천적 의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여 그를 멸시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극히 황당한 것이다.

3

천진 언어학회가 창립되였다. 이 일은 당의 언어학 사업에 대한 중시와 지지를 또 한 번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능히 우리의 언어학 사업을 깊은 신심과 결심을 가지고 잘 해 나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선진적인 공업 국가에로 전변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언어학도 점차적으로 락후한 상태로부터 앞으로 매진할 것이다. 언어 학계 자체에 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오는 전례 없이 장대하여졌다. 그러나 다른 과학 부문에 비하여 본다면 여전히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상태에 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한 과학은 가장 쓸모 없는 과학이라는 정리를 아직까지 내린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마치 세계에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생물학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계에 인류 사회가 있는 한 반드시 언어가 존재할 것이며,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언어학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과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 가려면 반드시 그의 질과 량을 똑 같이 중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과학 연구의 질을 제고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대오를 더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곧 여러 동지들이 과학 보급 사업을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진 언어학회 자체가 즉 언어학 사업을 추동시키는 한 개의 기구이다. 때문에 많은 과학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중국 어문》 1957년, 3호에서 전재)

역자 유 치호



(61 페지에서 옴)

이 경우에는 《들어 온다면》에 있는 토 《면》과 관련된 주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기 때문에 《다면》이 하나의 토로 될 가능성을 가진다. 만약에 이 때 《너이들》이란 사람이 주체로 되는 관계로 된다면 《다》와 《면》은 같이 붙을 수 없다.

선생님께서 비가 온다면(또는 온다시면; 온다시였으면) 오는 줄 알 것이지 무슨 의심을 품겠는가?

여기서의 《다면》이 앞에서의 《다면》과 그 뉴안스가 다름을 느낄 수 있다. 앞의 것은 순전한 가정법의 토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서의 것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고려하면서 이런 류형의 복합된 토들은 아주 굳어 버린 것 이외에는 의미 주석의 단위로 삼을 필요가 없다.

(본 론문은 2회에 나누어서 발표된다. 다음의 부분에서는 〔Ⅳ 토의 의미 주석 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Ⅴ 결론〕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 적 ── 소 개 와 ── 비 판

탁 희수 저 《조선 어음 개론》

동경 학우 서방 판 1956년

장구한 일제 통치하에서 일제의 조선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전을 저지당하였던 우리의 모국어는 8·15 해방 이후 오로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과 지도에 의하여 개화 발전되고 있으며, 또 대외적으로도 영웅적 조선 인민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이 모국어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며 풍부화시키는 데 한결같이 힘써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오래 동안 외국에 있어서 외국어를 생활 용어로 하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동포들──특히 어린 후대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시기에 탁 희수 동지는 멀리 동경에서 일본에 있는 후대들의 모국어 교육에 있어서 정확한 조선어의 발음을 교수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어의 어음적 특성에 대한 자기의 연구와 또 오래 동안의 교수 과정에서 얻은 실천적인 성과들을 종합하여 《조선 어음 개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저서는 그 내용이

- 제 1장 말소리
- 제 2장 자모의 음가
- 제 3장 음절
- 제 4장 어음의 변화
- 제 5장 어음 교체
- 제 6장 습관화된 소리
- 제 7장 소리의 강약, 장단, 고저
- 제 8장 음성과 어의
- 제 9장 표준 발음법과 그와 관련된 철자법
- 제 10장 한'자 획 명칭
- 제 11장 모음 적응의 현상

의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말소리에서는 발음 기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였고, 모음과 자음, 단음과 합성음, 구강음과 비음, 유성음과 무성음 등 어음의 부류 및 이 부류들의 특성을 밝혔으며, 다음으로 조선어의 자모를 훈민 정음 및 훈몽자회의 자모 체계 등에 립각하여 력사적으로 고찰하고, 끝으로 조선어의 어음을 분류하고 매개 어음들의 발음 방법 및 그 정확한 음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였는바, 이 제 1장에서는 《조선말의 자모》라는 절에서 서술한 조선어 어음의 분류와 매개 어음의 음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여 있으며, 동시에 이 저서의 다른 부분의 서술을 위한 기초적인 대목으로서 많은 페지 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음을 분류함에 있어서 저자는 일반 성음학적 원칙에 립각하여 모음 분류에서는 혀의 고저, 입의 개폐 정도와 입술의 형태 등에 기준을 두었고, 또 자음 분류에 있어서는 그 음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음되는가 하는 발음 방법과 어느 위치에서 나는가 하는 발음 위치에 그 기준을 둠으로써 과학적이며 옳은 방법론에 서고 있으며, 그 결과 극히 부분적인 어음들의 음가에 대하여 의견 상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당하게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필자는 특히 모음 내는 법, 자음 내는 법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매개 어음들의 정확한 발음 방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어음들의 음가를 확정하기에 노력함으로써 조선어 어음 체계의 특성과 위치를 규정하는 리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의 정확한 발음 지도를 위한 기초로 되게 하려는 실천적 목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제 2장 자모의 음가에서는 제 1장에서 조선어의 어음 체계를 확정하고 그 매개 어음의 고유한 음가가 규정된 것을 토대로 하여, 이 어음들이 어음 련쇄 속에서 다른 어음들과 결합되였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변종(Вариант)들을 설명하고 있다. 즉 매개 어음들이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위치는 1) 어두, 2) 모음과 모음 사이, 3)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 4) 무성 자음과 모음 사이, 5) 모음과 유성 자음 사이, 6) 모음과 무성 자음 사이, 7) 어말 등인바 이 모든 위치에서 매개 어음들의 발음이 어떻게 나는가 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제 1장이 조선어 어음 체계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라고 한다면, 제 2장은 어음 련쇄 속에 있어서의 그의 구체적 개별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조선어 어음들의 구체적인 발음을 표시한 것이며, 이로써 저자는 조선어 발음의 정확한 교수를 위한 기본적인 리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저서에서 중요하게 서술된 것은 제 4장의 어음의 변화인바, 여기에서 저자는 조선어의 어음 변화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일어나며 따라서 조선어 발음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어음 동화에 관하여 상세히 론하고 있다. 즉 저자는 모음의 동화와 자음의 동화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우랄 및 알타이 계통 제 언어에서와 같이 조선어에서도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모음 조화 현상에 관하여

그 법칙을 구체적 실례에 립각하여 례시하고 있으며, 또 자음의 동화에서는 주로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호상 동화로 구분하여 매개 경우의 동화 현상을 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조선어에 있어서의 자음 동화의 일반적 개념을 주었고, 끝으로 구개음화 현상에 언급하였다. 물론 어음의 변화에는 동화 현상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으나, 이 현상이 실지 발음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동화 현상에 관하여는 이미 제 2장에서(48 페지 이하) 모든 위치에 있어서의 어음들의 구체적 발음을 례시한 항목에서도 그 실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리론적 해명을 주고 있다.

제 5장 어음 교체에서는 문법적 현상중에서 일어 나는 어음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바, 주로 어간과 토가 결합될 때에 있어서의 어음 교체에 관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동시에 이와 같이 동일한 어간의 말음이 여러 가지로 교체되는 것을 표기함에 있어서 어간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형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야 함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어음 교체는 순수한 어음론적 문제가 아니라 형태론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저자는 철자법상의 원칙을 이와 관련하여 해명하고 있으며, 특히 변격 용언의 처리에 있어서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변격 용언의 처리에 있어서는 철자상 ㅿ, ㆁ, ㆆ, ㄷ, ㄹ 등의 문'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이로서 어간을 고정시키자는 주장에 립각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어음의 장단, 강약, 고저 등 어음의 음향학적 특성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제 8장 어음과 어의에서는 주로 의성 의태어를 례로 하여 어음 변화와 의미론적 측면과의 련관성에 대한 문제를 론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저서의 실천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제 9장 표준 발음법과 그와 관련된 철자법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된다. 여기에서는 순수 조선어의 경우와 한'자어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확한 표준 발음 규범에 어긋나게 발음되는 경우들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렬거하고 그와 같은 그릇된 발음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어음론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확한 발음을 제시함으로써 표준 발음법에 대한 리론적 근거와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철자법상의 문제에도 언급하여 정확한 발음과 이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정서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 11장에서는 모음 적응의 현상이라는 표제하에 모음이 중복되였을 때에 그 중 하나가 생략되거나 또는 이들이 어울려서 다른 음으로 되는 경우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상 본 저서의 중요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요컨대 이 저서는 조선어 어음의 분류와 매개 어음들의 기본적인 음가 및 그들의 변종들을 설명하고 이 어음들이 단어 속에서 결합될 때에 일어 나는 어음 변화의 현상을 서술함으로써 조선어 어음의 기본적 특성을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 발음법의 확립과 이에 따르는 철자법상의 문제 등 실천적 목적에 기여하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저서는 가능한 한의 많은 자료들과 구체적 실례, 그리고 조선어 교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산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자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국외에서 문헌 수집상의 애로와 특히 현실적으로 생동하는 조선어의 언어 현실을 생생하게 관찰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이 저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저자의 고심과 모국어 연구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도 저자의 학구적 열의에 의하여 이 저서가 자기의 기본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동시에 부분적으로 적지 않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서술 체계에 있어서 체계성과 순차성이 결여되여 있는 점이다. 즉 어음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먼저 어음의 최소 단위인 Фонема로부터 시작하여 매개 어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음절, 다음으로 어음들의 결합,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에서 일어 나는 어음 변화 등의 순서로 되는 것이 체계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 저서에서는 례를 들어 제 1장 말 소리의 생리적 측면인 발음 기관의 항목 다음에 어음의 음향학적 측면으로서 서술되여야 할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에 관한 부분이 제 7장으로서 어음 변화를 서술한 후에 가서 위치하게 된 것은 체계상으로 볼 때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체계상 고려를 요하는 점은 제 4장 어음의 변화와 제 2장 자모의 음가, 제 6장 습관화된 소리, 제 11장 모음 적응의 현상 등의 호상 관계에 대한 문제다. 즉 제 2장 자모와 음가에서 례시한 매개 어음들이 어두, 어중, 어말의 모든 위치에서 나타나는 발음에 대하여는 어음 변화의 원리를 리해한 후에라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순서를 어음 변화의 일반적 개념을 설명한 후에 배렬함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제 4장 어음의 변화에서는 동화 현상에 관한 것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어에 있어서는 어음의 동화 현상이 어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 실제의 발음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데로부터 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표제가 《어음의 변화》인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어에서 볼 수 있는 어음 변화의 현상을 그 외의 것도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목을 어음의 동화라고 함이 제 6장, 제 11장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 6장 습관화된 소리에 포함된 내용도 대체로 어음의 동화, 어음 탈락, 어음 교체 등의 현상으로 설명되는 것들이며, 또 제 11장 모음 적응의 현상도 모음의 탈락 또는 축약 현상으로서 어음 교

체를 제외하고는 다 어음 변화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들이다. 따라서 제 6장과 제 11장은 이를 제 4장 어음의 변화와 제 5장 어음 교체 가운데에서 서술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음 변화 현상인 제 6장 제 11장이 산만하게 여기 저기에 배렬함으로써 그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 가서는 어음 동화 이외의 어음 변화 현상은 마치도 어음 변화 이외의 다른 현상인 것 같은 감을 주고 있다. 물론 본 저서의 취지가 조선어의 어음론에 관한 순수한 리론적인 측면에 치중한 것보다는 정칙 발음법과 정서법 등 실천적 목적에 치중한 데로부터 설명의 필요상 그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음론에 대한 일반적 기초가 체계적으로 서술된 토대 우에서 그러한 실천적 문제들이 론의되여야 할 것이다. 서술 체계가 정연하지 않은 데로부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현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실들이 여러 번 중복되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바, 례를 들어 동화 현상으로써 설명하여야 할 문제가 제 4장 이외에 제 2장과 제 6장에서, 그리고 어음 교체의 현상으로 설명하여야 할 부분이 제 5장 이외에 제 6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내용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릇된 서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ㄲ, ㄸ, ㅃ, ㅆ, ㅉ 등의 된소리를 《ㄲ, ㄸ, ㅃ, ㅉ는 언제든지 유성음으로 난다》(6페지 하단) 《ㄲ <ㄱ>의 된소리 유성음………》(38페지 8행 이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성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ㅋ, ㅌ, ㅍ, ㅊ 등의 유기음을 ㄱ+ㅎ, ㄷ+ㅎ, ㅂ+ㅎ, ㅈ+ㅎ 등과 같은 중자음으로 보고 있는데(39페지) 이것은 완전히 착오다. 즉 된소리의 본질은 ㄱ, ㄷ, ㅂ, ㅅ, ㅈ 등의 평음을 발할 때에 성문 파렬이 동반됨으로써 형성되는 무성음이며, 유기음 ㅋ, ㅌ, ㅍ, ㅊ는 평음 ㄱ, ㄷ, ㅂ, ㅈ 등이 발음될 때에 인두(咽頭) 마찰이 동반됨으로써 형성되는 단음이며 중자음이 아닌 것이다. 된소리의 본질을 유성음으로 보는 견해가 일부 외국인 학자들간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보게 된 리유는 이 음을 발할 때에 성문의 작용이 동반된다는 데로부터 온 것이나, 그러나 성문의 파렬이 동반된다고 해서 유성음 형성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성대의 진동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님으로 이를 유성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된소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무성음이다. 그리고 조선어의 어음 체계는 ㄹ, ㅁ, ㄴ, ㆁ 등 유향음 이외에 자음에 있어서 유성음이 독립한 Фонема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문 28 페지 《주해 28》에서 ㄲ=ㄱ+ㆆ, ㄸ=ㄷ+ㆆ, ㅃ=ㅂ+ㆆ………와 같이 된소리가 ㄱ, ㄷ, ㅂ……등 평음에 성문 파렬음 《ㆆ》가 합해져서,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음이 합해서 한 개의 된소리가 형성되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그렇게 본다면 역시 된소리의 본질을 정당하게 파악한 것으로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어떤 음을 발할 때든지 동시에 두 개의 어음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된소리가 평음과 《ㆆ》의 두 음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음을 발할 때와 같은 발음을 하되 그 외에 성문을 폐쇄함으로써, 나오는 숨을 저장하였다가 이 것을 터놓아서 형성되는, 다시 말하면 성문의 파렬이 동반되는 음이기 때문이다. 또 유기음 ㅋ, ㅌ, ㅍ, ㅊ를 중자음으로 보고 있는 것도 완전히 그릇된 관찰이다. 즉 이 유기음들이 ㄱ, ㄷ, ㅂ, ㅈ 등 평음과 인두 마찰음 《ㅎ》가 어울려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전자의 된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음이 겹쳐서 된 것이 아니라, 평음 ㄱ, ㄷ, ㅂ, ㅈ를 발음할 때에 동시에 인두의 마찰을 동반함으로써 형성되는 단음이다. 그런데 유기음이 중자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하 ─→〔가카〕 } 맏 형 ─→〔마텽〕}
좋 고 ─→〔조코〕 } 좋 다 ─→〔조타〕}

잡히다 ─→〔자피다〕} 꽂히다 ─→〔꼬치다〕}
않 밖 ─→〔안팍〕 } 좋 지 ─→〔조치〕 }

등의 례를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ㅋ, ㅌ, ㅍ, ㅊ 등이 ㄱ, ㄷ, ㅂ, ㅈ와 ㅎ가 겹쳐서 이루어지는 음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독립한 어음으로서의 ㅋ, ㅌ, ㅍ, ㅊ의 음가와 어음 련쇄 속에서 어음들이 순차적으로 발음될 때에 일어나는 음 현상과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ㄱ, ㄷ, ㅂ, ㅈ 등이 말음에 올 때에는 조선어 발음의 특성에 의하여 완전 폐쇄되여 내파음으로 되는데 이와 같이 폐쇄됨으로써 나오던 숨이 저장되고 해당 발음 기관에 긴장이 생겼다가 ㅎ를 발하는 데로부터 ㅎ의 마찰 정도가 강하게 되여 마치도 ㅋ, ㅌ, ㅍ, ㅊ 등과 비슷한 느낌을 줄 뿐이지 완전히 그와 꼭 같은 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각하와 가카》, 《맏형과 마텽》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도식적으로 본다면 《앉고 ─→ 안꼬》로 발음된다고 해서 ㅈ+ㄱ=ㄲ와 같이 된소리 〔ㄲ〕가 ㅈ 및 ㄱ가 어울려서 된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것들은 발음 위치를 일단 폐쇄하여 기류를 저장하고 또 발음 기관의 부분이 긴장되였다가 다음 발음으로 넘어 가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된소리나 유기음 자체의 음가와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유기음의 본질에 대하여 저자는 또 40 페지 중단에서 《중자음의 소리 내는 법》을 말하면서, 《ㅋ, 모든 것을 〔ㄱ〕 내듯이 하여 입길을 막았다 가〔ㅎ〕에서처럼 몸청을 마찰하여 내는 숨으로써 그 막음을 깨뜨리고 낸다………》고 정당하게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자음으로서 본 것은 전후 모순이다.

다음으로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등도 두 개의 소리가 겹친 것이기 때문에 중자음이라고(39 페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문'자와 어음을 혼동한 데서부터 오는 착오로서 어음론적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비과학적 규정이다. 철자상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중자음의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어에 중자음의 존재는 인

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자와 어음을 혼동한 실례는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ㅟ, ㅙ, ㅞ 등을 합성 모음이라고 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25~26 페지). 이것들은 문'자의 조직상으로는 다 두 개 이상의 모음자가 합해서 된 것들이지마는 어음상으로는 저자가 정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음적 성질을 띤 ㅣ, ㅗ, ㅜ 등과 모음이 합친 것으로서 순수한 모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의 명칭으로서 합성 모음자라고 한다면 별 문제이나 어음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당치 아니하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을 《모음과 자음의 발음》이라는 항목에서 어음의 분류로서 론하고 있는만큼 더욱이 용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음 분류에 있어서 ㄴ, ㅈ, ㅉ, ㅊ, ㅅ, ㅆ 등을 경구개와 혀'바닥(설면)에서 나는 소리로서 경구개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28 페지 하단, 75 페지) 이 음들은 경구개보다는 이'몸(齒槽)에 가까운 앞에서 나는 것으로서 경구개까지 들어 가지 않는 음이다. 더욱이 다른 곳에서 《ㅅ는 ㅈ, ㅊ보다는 조금 앞쪽이기 때문에 설단음에 가깝다》 (31 페지 주해 19)고 하여 전후 모순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파찰음의 설명에 있어서 《약한 파렬음 뒤에 곧 마찰음이 오는 것을 파찰음이라고 한다》(29 페지)고 하여 파렬음이 나고 계속하여 마찰음이 난다고 하였는데, 만일 그렇다면 파찰음의 본질이 파렬음과 마찰음의 두 음이 합해진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런 규정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며 역시 어음론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파찰음의 본질은 두 음의 합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단독적인 어음으로서 파렬도 아니고 마찰도 아닌 그리고 파렬에 가깝기도 하고 마찰에 가깝기도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조음되는 방법이 파렬과 마찰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어음인 것이다. 즉 파렬, 마찰의 두 계단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꺼번에 나오는 단음인 것이다.

제 2장 자모의 음가에 있어서 음가의 개념을 《…한 개의 문'자가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소리의 총체를 그 문'자의 음가로 치게 된다》(48 페지 8행)고 하였는데, 즉 이것은 어떤 어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음이 어음 련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종(вариант)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일반 어음론적 개념으로서의 음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술어 사용상의 문제일지는 모르나 보통 음가라고 하면 저자가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2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조선어의 매개 어음이 단어 속의 모든 위치에서 나타나는 발음을 고찰하는 것이라면 다른 술어를 사용하였더라면 음가의 개념 자체를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제 2장의 내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도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제 7장 어음의 장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정확치 못한 점들이 보이는바, 례를 들어 131 페지에서 《값을 물게 되다》의 《물》을 긴소리로, 《감(材料)》을 짧은 소리로 보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서 착오이다.

또 소리의 강약을 론하면서 133 페지에 단어의 강약에 관한 례를 들고 있는데, 즉 손(客), 초(醋), 밤(夜) …등은 강한 소리며, 손(手), 초(燭) 밤(栗)…등은 약한 소리라고 하고, 손(客), 초(醋), 밤(夜)…의 강도는 모음 ㅗ, ㅏ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 악쎈트의 특성이 고저에 있는 것으로서 매개 단어는 다 일정한 고저 장단을 갖지마는 절대적 강도는 갖지 않는 것이다. 손(客), 초(醋) 등은 강하게 발음될 때도 있고 약하게 발음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 강도로 고정되여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그 강도가 모음 ㅗ, ㅏ에 있다고 하는 것은 리해하기 곤난하다.

제 11장 모음 적응의 현상에서 모음 적응을 《두 음절 사이의 어느 한 부분의 모음이나 자음이 줄어져서 발음이 되지 않는 것》(181 페지 4행)이라고 하면서 례로서 가마솥──가마, 갈대──갈, 냄새──내, 누구──누, 변리──변, 옷고름──고름, 옷단──단, 이튿날──이틀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실례로서 모음 적응의 현상이 아니며 음절이 탈락된 것으로 동의어다. 따라서 이들이 모음 적응의 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리론상 착오라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였거니와 다음으로는 어음론적 개념들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정확치 못한 점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례를 들어(전기 음가의 개념에서도 잠간 언급하였으나) 역행 동화를 말함에 있어서 《두 자음이 서로 이어 날 적에 그 이어 나는 힘으로 말미암아 절로 하나(후속 음절의 두음)가 다른 하나 (선행 음절의 말음)에 영향을 주어서 달라지게 소리 나게 하는 것을 역행 동화라 한다》(71 페지)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음의 동화를 말하는 것이니까 어음의 호상 영향으로 말미암아 같아지는 면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당할 것이며, 또 동화되는 원인이 《이어 나는 힘으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 것이라 하겠다.

어음 교체(78 페지)를 설명하는 항목에서는 응당 이에 대한 언어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서술한 후 이에 따라 일어 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설명이 없는 것도 계몽적 목적을 가진 이 저서의 취지로 보아서 독자의 리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기본적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불철저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더 정연하게 서술되였더라면 이 저서가 목적하는 과학적 성과를 더 거두었으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은 이 저서가 조선어의 어음을 취급하는 것인만큼 그의 중요한 부분인 악쎈

트에 관한 문제가 응당 론술되였어야 하겠는데 어떠한 사정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요한 부분이 루락되여 있는 것은 본 저서의 부족점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탁 희수 동지의 《조선 어음 개론》을 읽고서 느낀 몇 가지 점에 관하여 소감을 말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착오라고 생각되는 점이나 불철저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들이 결코 이 저서 전체가 가지는 의의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저자가 설정한 목적에 잘 부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부문의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가 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곤난한 조건하에서 이 저서를 이루어 놓은 저자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류 응호

———◇———

알 림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는 언어학과 문학에 관한 고서적, 희귀본, 해방전 잡지와 신문들을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거나, 팔 분을 아시면 언어 문학 연구소에 편지로 련락하여 주십시오. 조선의 어문학 발전을 위하여 독자 여러 분의 큰 방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정화실

이 번 호부터 《조선 어문》에는 《언어 정화실》을 만들어, 출판물에 나온 글 가운데서 그릇되였거나 어색한 부분을 고치고 다듬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독자들이 이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본 편집부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글을 어렵게 쓰지 말자.

※ 《경옥에게는 녀자들을 항용 그렇게 생각해 오고 녀자들 자신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처럼 되여 버린 관념에 대한 반발이였다》(소설 《개마 고원》 240 페지).

이 글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로 될 수 없다. 무슨 이야긴지 알기 어렵다. 론리가 더 선명하게 글을 쓰자. 인민들이 알아 보기 좋은 친절한 글을 쓰려는 진지한 노력—이것은 인민들에게 봉사하려는 작풍과 관련된다.

2) 표현을 조선말답게 하자.

※ 《민요에 의한 합창과 중창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라지오 방송 1957, 4월 하순).

이 말에서 《민요에 의한》 같은 표현은 조선말 같지 않다. 번역 냄새가 풍긴다. 《민요의 합창과 중창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 《구월산의 훌륭한 송림은 근래에 와서 송충들에 의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를 받고 있다》(《조선의 식물》 196 페지).

이 글에서도 《송충들에 의하여》 같은 표현은 번역식이다. 《구월산의 훌륭한 송림은 근래에 와서 넓은 지역에 걸쳐 송충들의 피해를 받고 있다》로라도 하면 훨씬 나아진다.

3) 문맥을 잘 고려하자.

※ 《그리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이 지대에는 약용 식물이 많은 것으로써 유명하다》(《조선의 식물》 67 페지).

이 글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이라는 주어에 대한 술어는 《유명하다》와 같은 형용사로 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이 지대에는 약용 식물이 많은 것으로써 유명하다는 사실이다》로라도 하여서 문맥의 조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해'별만 보고 걷던 눈에는 갑자기 큰 건물 안의 어두움에 어리둥절하는데 확 스팀의 더운기가 풍겨 와 모자를 벗는 이마에 땀이 버쩍 났다》(《잊을 수 없는 사람들》 108 페지).

이 글도 문맥의 조리가 잘 닿지 않는 글의 하나다. 특히 《눈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그러하다.

《해'별만 보고 걷던 눈이 갑자기 큰 건물 안의 어두움을 만나서 어리둥절하여지는데 스팀의 더운기까지 확 풍겨 와서 모자를 벗는 이마에는 땀이 버쩍 났다》로라도 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다.

4)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을 잘 고려하자.

※ 《…건축을 목적으로 가까운 주변의 삼림들을 오직 말살만 하였을 뿐이지 그것을 유지 보호하며 육성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조선의 식물》 15 페지).

《말살하다》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로 되는 것은 《유지 보호하며》 이하의 부분이다. 《유지 보호하며 육성하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로 하면 더 나아진다. 곧 동사 《유지 보호하다》와 어울려서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으로 되여야 할 단어는 《육성》과 같은 명사일 수 없다. 《육성하다》와 같은 동사이여야 한다.

5) 단어의 결합 관계가 의미적으로 잘 성립되는가를 고려하자.

※ 《4월에 들어 서면서 부터는 조합을 더욱 조직 강화하는 한편 생산 계획을 3월에 비하여 23% 이상으로 더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상업 신문》 4월 26일).

이 글에서 《생산 계획을~더 생산하다》라는 단어 결합은 의미상 성립되지 않는다.

《4월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조합을 더욱 조직 강화하는 한편, 3월에 비하여 23% 이상 더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좋을 것이다.

※《로인은 하늘이 꺼지듯 앞이 캄캄하여 발'걸음을 허청거리며 집으로 돌아 왔다》(《로동 신문》 57, 5, 12, 제 3면).

《땅》은 《꺼진다》고 하지만 《하늘》은 《무너진다》고하는 것이 조선말이다.

※ 《경옥은 귀가 더 멀어진 할머니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소설 《개마 고원》 246 페지).

《눈》은 《멀어도》 《귀》는 《멀지》 않는다. 《귀》는 《먹거나》 또는 《어두워진다》 여기서도 《경옥은 귀가 더 어두워진 할머니의…》으로 하는 편이 좋겠다.

6) 필요 없이 군말을 넣지 말자.

※《평양에는 현재 모란봉 뿐 아니라 대성산에 있어서도 식물이 풍부하다》(《조선의 식물》 189 페지).

이 글에서 《있어서도》는 불필요한 단어일 것이다. 또 기타의 문맥 관계도 순조롭지 않으므로 《평

어문 학계 소식

언어 정화 사업 중간 총화

지난 5월 18일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는 그간 진행한 언어 정화 사업에 대한 중간 총화 회의를 가지였다.

회의에는 이 사업에 동원된 언어 문학 연구소의 여러 연구사와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언어학 연구실장 송 서룡 선생이 지난 4월 5일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첫좌담회를 가진 이후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첫조치로서, 우선 각 출판 보도 기관들에서 직장별 좌담회를 계속 가지였으며, 한편 신문 기타 출판물에 론설들을 게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직장별 좌담회는 4월 29일 로동 신문사를 위시하여 현재까지 20 여개의 출판 보도 기관들과 가지였으며,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한 론문은 현재까지 15 건이나 된다. 현재도 좌담회와 론설 집필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중간 총화 회의에서 이 번 좌담회들에 참가한 여러 학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는바, 토론을 통하여 보면, 4월 5일 첫좌담회를 가진 이후 각 출판 보도 기관 일'군들은 이 사업을 더욱 실천적인 운동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치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출판물들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일부 출판물들에는 실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좌담회들에서는 일부 생산 성, 기타 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련계를 가지여야 할 것이 강조되였다.

즉 우리의 적지 않은 학술 용어, 기계명, 소비품명, 기타 상품명들은 해당 성이나 기관들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여 내니 출판 보도 기관으로서는 의견이 있은 것도 있으나, 그러나 그를 임의로 고칠 수는 없고 하니 그 대로 지면에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례컨대 《야로비자찌야》나 《자돈》 등은 이미 그런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서 하부 기관에 시달했으니 신문 기타 출판물에서 자기들이 단독적으로는 곤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특히 생산 성 기관들과 어문학자 및 출판 보도 부문 일'군들이 더욱 긴밀한 련계를 가져야 할 것이 강조되였다.

그리고 일부 일'군들은 언어 정화 사업이라면 마치 힘든 한'자 어휘를 쉬운 말로 고치는 것만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심지어 한'자 어휘라면 매모조리 순수 조선 어휘로 고쳐야 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물론 일체의 한'자 어휘를 순수 조선 어휘로 고칠 수도 없거니와 사실상 고쳐서도 안 된다 그러니 언어 정화 사업이란 힘든 한'자 어휘를 쉬운 우리 말로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언의 사용, 그릇된 발음, 필요 없는 외래어의 사용, 문법에 맞지 않는 말투,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의 사용 등 우리 언어 생활에서 곤치고 다듬어야 할 전반적 부분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제기되는 전반적 부면에 걸쳐 정화 사업은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전 인민들에게 재인식 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번 중간 총화 회의에서는 앞으로 각 출판 보도 기타 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 례컨대 필요한 기관들에 노트 같은 것을 비치하여 두었다가, 매 기자나 일'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휘나 문제들을 써 넣기로 하고, 연구소가 일정한 시일에 수집하여 대안을 기입하여 회부하는 방법, 또 전화로 문의하여 오는 데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연구소내에 일정한 위원회를 조직 할 것 등도 토의되였다.

끝으로 보고자로부터 결론이 있었는데, 결론에서는 이 번 중간 총화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계속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 강조되였으며, 실질적인 문제로서 언어 정화 사업을 위하여서는 규범 문법의 제정, 표준어 사정 사업, 철자법의 정밀화, 외래어 표기의 재사정, 정칙 발음의 설정, 학술 용어의 재사정 등이 하루 속히 진행되여, 전 인민 대중들에게 언어 정화를 위한 실질적 가능성을 주어야 하며, 각 출판 보도 기관들을 위시하여 여러 관계 기관들과 이 사업에 대한 통보 사업도 강화해야 할 것이 강조되였다. 특히 학술 용어 재사정에서는 각 분과에서의 토의에 많은 언어 학자들도 망라되여, 전문적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심중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언어 정화 사업을 위하여 인민들 매 계칭에 사용하고 있는 일상 용어를 파악 료해하고 그를 더욱 다듬고 문화적인 말로 정화해 주어야 할 것들이 강조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하에 우리는 이 사업에서 벌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근기 있게 매개 관계 일'군들은 계속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정정——《조선 어문》 3호 69 페지 40 행 t^{c}는 t^{o}, 73 페지 12 행 Wi는 wi의 오자였습니다.

조선 문'자 개혁안과 론문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 개혁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조선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조직되였다.

문'자 개혁은 전 인민적이며 전 민족적인 중요 문제이다.

연구 위원회는 관계 학자들을 망라하여 지난 반세기에 걸치는 이 부면에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연구 사업을 조직 추진시키고 있다. 이 연구 사업에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인민들의 참가를 요구한다. 이미 국내외의 각지로부터 문'자 개혁안과 론문들을 연구 위원회에 보내 오고 있다.

연구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문'자 개혁 연구 사업의 더 한층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안과 론문들을 될수록 빨리 보내 줄 것을 희망한다.

보내 온 것들은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 연구하여 처리하며, 우수한 것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례금을 드리며, 필요한 것은 출판물에 발표하며, 규정된 원고료를 지불한다.

제출 장소 : 과학원 조선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

1957년 7월 1일

과학원 조선 문'자 개혁 연구 위원회

1957 조선 어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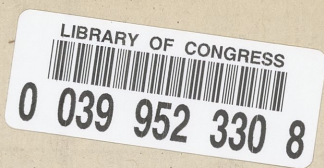
조선 어문 편집 위원회

1957년 7월 20일 인쇄
1957년 7월 25일 발행

편집 위원 김 병 제(책임 위원) 김 수 경
리 극 로 최 익 한 홍 기 문
황 부 영 안 함 광

발 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인 쇄 로 동 신 문 출 판 인 쇄 소

㉶—170 값 60 원 발행 부수 5,000부



도 서 안 내

독일 고전 관념론과
헤겔 변증법 비판

국판 400 페지

함 봉 석 저

이 저서는 독일 고전 관념론의 계급적 본질을 밝히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헤겔의 《정신 현상학》과 《론리학》의 전 내용에 걸쳐 상세히 분석하면서 그의 변증법을 맑스-레닌주의 유물 변증법의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 서술하였다. 이 저서는 우리 나라에서 헤겔 변증법을 전면에 걸쳐서 분석 서술한 것으로서는 처음이며 철학 분야에서 맑스주의의 원천을 심오히 연구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서적이다.